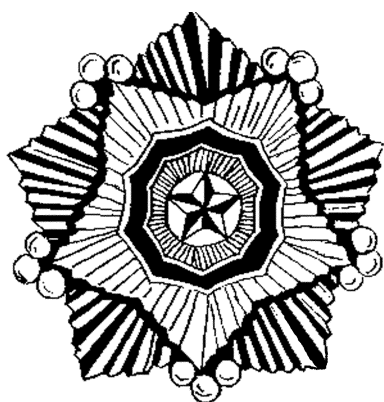


6

주체104(2015)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4(2015)년 제6호

(루계 제812호)

차 례

당의 선군령도를 명작폭포로 만드는것은

우리 작가들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론설) 리 창 유(3)

6월 4일!(시) 정 두 국(7)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7)

빛나라 6월 19일이여 방 명 혁(8)

주체문학의 대강 (8)

단편소설 정의 바다 탁 속 본(9)

신발의 무게 외 1편 김 경 남(20)

환호성 오 정 로(21)

군위부대들의 군기앞에서 최 향 일(32)

☆ 1950년 그날처럼 장 명 길(33)

해 그들은 신입병사들이였다 외 1편 김 광 호(34)

☆ 로병의 시(시 묶음) 김 정 곤(37)

통일 이루자(가사) 채 근 수(19)

병사는 언제나 완강의결전에 산다(가사) 최 흥 록(38)

미채과학자저리조감도앞에서 전 수 철(54)

우리 당의 혁명방식, 투쟁기풍, 창조본태로 새로운 시대정신, 조선속도를 창조해 나가자!

— 공동구호에서 —

만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단편소설)	리 해 련(22)
수 바늘에 대한 생각	박 경 로(35)
필 환하늘	박 수 선(65)
무명전사들의 한해 그리고 한생 (시초)	김 정 경(67)

문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은방울꽃 (단편소설)	김 은 경(39)
나는 소학교 선생님이니다 (시초)	김 일 송(52)
무지개에 비낀 정서와 랑만 (평론)	최 진 혁(55)
멋쟁이지식인청년의 형상을! (연단)	림 순 남(62)

시 《평양에서 외적을 심벌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에 대하여	변 남 혁(75)
--------------	-----------

자
료

임진조국전쟁의 승리를 안아온 우리 민족의

애국적투쟁에 대한 설화작품들	주 명 철(76)
-----------------	-----------

고구려에서의 소설발생과 《은달전》	리 수 향(78)
--------------------	-----------

조국과 승리 외 1편 (외국인 시)	(74)
---------------------	------

상 식	(61)
-----	------

당의 선군정도를 명작폭포로 바트는것은 우리 작가들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

오늘 우리앞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며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하여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야 하겠습니까.》

문학예술부문에서 침체를 불사르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작가, 예술인들앞에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현시기 문학예술부문의 창작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정도를 받들어나가기 위한 투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가 깃들어있다.

오늘 문학예술부문에서 혁신적안목과 진취적인 창작기풍으로 명작창작의 포성을 더욱 높이 울리는것은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격동적인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며 선군문학예술의 개화발전을 위하여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실한 문제이다.

주체적문학예술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며 강성국가건설을 고무추동하기 위한 혁명적진군의 우렁찬 나팔수, 힘있는 추동력이다.

당의 사상과 의도, 시대정신을 민감하고 깊이있게 반영한 우리의 문학예술작품은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을 달고 이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선군혁

명위업수행으로 힘있게 떠밀어주며 온 사회에 약동하는 전투적기백과 혁명적랑만이 차넘치게 한다.

당의 사상과 의도, 시대의 숨결과 기상으로 만장약되어 일단 터지면 막강한 정서적감화력과 위력으로 천만대중의 심금을 울리고 원주의 아성을 들부시는 글폭탄, 노래폭탄이 많이 쏟아져나와야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서 보다 큰 전진과 혁신적성과가 이룩될수 있다. 오늘 선군시대에 창작된 훌륭한 문학작품들은 강성국가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주체혁명위업실현으로 세차게 불러일으킴으로써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고 우리 식 사회주의와 당의 선군정치를 신념과 량심으로 받들어나가도록 이끌어주는데서 큰 작용을 하고있다.

작가들은 명작창작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천만군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과감히 펼쳐나선 격동적인 현실을 훌륭히 반영한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신들의 숭고한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명작이란 시대의 절박한 요구가 잘 반영되어있으며 사상예술성이 높고 인민들의 사상미학적요구에 맞는 그런 작품을 말한다.

아무리 종자가 좋은것이라 할지라도 풍만한 예술성이 안받침되지 않은 작품, 남이 써먹은 창작수법으로 생활을 그려낸다면 류형과 도식을 면할수 없고 참신하고 새맛이 나는 그런 인간문제를 반영한 작품을 써낼수 없다. 작가의 독창성과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난 작품만이 명작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명작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애국적감정과 우수한 생활풍습, 취미 등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여야 한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 구호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서는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년을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하기 위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원썬들에게는 철추를,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필승의 신심을 주는 사상의 미싸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데 대한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고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드는것이다.

그렇게 하자면 우리 작가들이 써내는 작품 한편 한편이 모두다 명작으로 되어야 한다. 명작을 내놓자면 작가들이 현실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를 똑바로 알고 창작의 예봉을 이 중요고리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문제에 집중시켜 새롭고 특색있는 인간문제를 똑바로 잡아쥐어야 한다. 사수에게 파격이 뚜렷하지 못하면 명중탄을 퍼부을수 없다.

당에서 무슨 문제를 중시하는가, 여기에 창작의 파격을 정하고 탐구와 사색을 집중할 때 숨결도 뜻도 보폭도 당을 따라 자그마한 편차도 없이 줄기차게 내달릴수 있다.

구태의연하고 창조가 없는 창작은 도식과 류형에 맡겨둘기마련이다.

글 한편한편에 피타는 탐구가 깃들어야 한다.

이 탐구란 본질에 있어서 시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절박한 문제를 똑바로 잡아쥐는것이다. 약간의 편차가 생겨도 파격은 바로 보이지 않는 법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 자자구구를 가슴에 새기고 창작적탐구에 온념을 기울일 때 시대가 무엇을 바라는가를 똑바로 알수 있는것이다.

작가들에게 있어서 또한 중요한것은 부단히 창작적자질을 높이는것이다. 이 창작적자질은 책상머리에서가 아니라 들끓는 현실에 들어가 부단히 사색하고 탐구할 때 그리고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당의 목소리를 명심하고 세계를 딛고 올라서겠다는 자신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시간을 아껴가며 지식의 탐을 쌓아가는 과정에 이룩되는것이다.

장편소설 《땅》, 《석개울의 새봄》, 《시련속에서》, 장편서사시 《백두산》과 장시 《조선은 싸운다》, 가사 《흰눈덮인 고향집》을 쓴 작가들은 현실속에 들어가 자기의 창작적자질을 부단히련마하였으며 어휘 하나를 고르는데서도 자기 식의

독특한 문체를 창작해내기 위해 애썼다.

한 작가가 가사 한편을 쓰기 위해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두번씩이나 오른 실례도 있다.

또한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운명》과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2009년》에는 아직 다른 장편소설들에서 눈에 뜨이게 나타나지 않은 자기식의 독특한 구성형식—다장면구성형식으로 수령형상소설의 품격을 한단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탐구는 본질에 있어서 창조이고 문학작품 창작에서 일대 혁신이라고 할수 있다.

이들처럼 목표를 높이 정하고 기성의 틀을 깨뜨릴 때 명작이 마련되는것이다.

무엇보다도 작가들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에 적극 이바지하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하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당을 견결히 옹호하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작가들은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위인적품모와 조국해방과 조선로동당창건, 그의 강화발전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형상한 총서 작품들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와 형태, 여러가지 형식의 수령형상문학작품들을 더욱 활발하게 최상의 수준에서 품위있게 창작하여야 한다.

수령형상문학은 주체문학의 기본이고 중심과제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쌓으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형상하여야 하며 수령형상문학의 고유한 생리를 잘 살려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령형상문학작품들에는 수령을 중심에 놓고 형상할데 대한 고유한 생리를 어기고 측근인물이나 상대인물의 생활을 지나치게 많은 분량에 걸쳐 묘사함으로써 수령을 중심위치에 놓고 형상하지 못하는 부족점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다. 또한 수령을 형상한 송가문학인 서사시들에서 서정성 일면에만 치우치다보니 그것이 서사

시인지 장시인지 형태상 계선도 명확치 못하여 예술적흥미가 둔구어지지 않아 잘 읽혀지지 않는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수령형상문학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들을 적극 창작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앞에 나선 지상의 과업이다.

탁월하고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과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위인적 풍모에 끝없이 매혹된 천만군민의 뜨거운 심장의 목소리가 진실하고 감명깊게 울리는 명작들을 창작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지는데 이바지하는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작품창작에 화력을 집중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은 우리 혁명의 교과서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데 수령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우리 혁명이 나아갈 길이 있으며 우리 나라를 온 세계가 부러워할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울 무적의 힘이 있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심장깊이 아로새기고 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대건설전투장들, 레전대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과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파수원화하는 자연과의 전쟁, 산림복구전투장을 비롯한 주요건설전구마다에 나가 현실을 뜨겁게 체험하고 현실속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인간들의 높은 정신적미를 깊이 탐구하여 사상에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더 많이, 훌륭하게 창작하여야 한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이며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이다.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황금벌의 새 역사를 대대손손 빛내여갈 일념으로 뛰고 또 뛰는 농업근로자들의 전형적인 모습과 유기농법,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이들의 투쟁모습을 뜨겁게 형상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또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작품들을 활발히 창작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상과 령도, 풍모, 업적의 위대성을 다양한 형태와 형식의 작품을 통하여 감동깊게 펼친 문학적형상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나가야 한다. 특히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내려치는 혁명전통주제의 명작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는데 힘을 넣음으로써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과 필승의 신념, 혁명적락관주의를 감명깊게 형상한 작품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

수령결사옹위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넓이고 투쟁의 기치였으며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불굴의 기상을 낳게 한 정신적원천이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참된 애국자로 키워주는 사상적자양분이다. 작가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선군혁명투사의 시대적전형을 훌륭히 형상하여야 하며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이는 길에서 더없는 삶의 보람과 기쁨을 찾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움의 가장 깊고 숭고한 세계를 부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일군의 시대적성격을 훌륭히 창조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또한 다양한 현실주제의 작품을 통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군체제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선구자, 본보기가 되고있는 인민군대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진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미제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빛나는 전통을 깊이 반영하고 무진막강한 군력과 국방공업의 위력을 생동하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백전백승의 군사강국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넘치게 안겨주어야 한다.

작가들은 또한 지식경제시대를 과학과 기술로 억세계 떠메고나가는 과학자, 기술자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당이 준 과업을 결사관철하는 근로자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감명깊게 형상하여야 한다.

은 나라에 차넘치는 체육열기와 체육인들의 생활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새 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과학기술강국화, 인재강국화를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는 교육자들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는데 웅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주제로 한 명작창작에도 깊은 주의를 돌림으로써 조국해방 일흔돛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의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간다는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또한 가는 곳마다 당정책옹위가요, 흥취나는 민요풍년으로 전진하는 대오에 열정과 랑만을 더해주는 노래소리가 울리게 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작가들은 우리 당의 문학예술의 대중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작가후비양성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힘을 기울이며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창조된 민족문화유산을 적극 발굴조사하고 주체시대 인간들의 미감에 맞게 훌륭히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조선민족제일주의교양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작가들이 창작에서 구태의연한것, 낡고 진부한것으로부터 오는 도식과 경직을 풀고 새것을 끊임없이 탐구하기 위하여서는 모란봉악단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조기풍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창작과 창조활동에서 시대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항상 새로운것을 들고나오는 비결은 그 주인인 창작가, 예술인들이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려는 사상적각오가 높고 부단히 실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린데 있다.

우리 작가들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창작적자질과 실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작가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의 혁명신념, 혁명투지, 혁명배짱을 지니고 10월의 대축전장으로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시켜 침체와 부진을 불살라버려야 하며 시대의 명작을 훌륭하게 창작하기 위한 실력전, 실력경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당의 사상과 의도를 제때에 받아들이고 작품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명작창작의 중요한 선결조건이다.

작가들은 우리의 문학예술을 수령의 문학예술로, 당정책화된 문학예술로, 인민의 문학예술, 전투적인 문학예술로 발전시킬데 대한 주체적문학예술건설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 당의 정책적요구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작품들마다에 우리 당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며 우리 당의 사상과 의지로 맥박치게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강령적말씀과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 그리고 조국해방 일흔돛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돛에 즈음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자자구구 학습하고 그 진수를 뼈와 살로 새겨야 하며 창작실천에 훌륭히 구현하여야 한다.

실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는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돛을 맞이하며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데 대한 목표와 과업, 그 방도에 이르기까지 환히 밝혀주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작가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할수 있게 하는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방대하나 우리에게 명작창작의 길을 환히 밝혀준 위대한 수령님들의 강령적교시가 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으며 당에 의하여 육성된 재능있는 작가들의 대부대가 있는 한 이 높은 목표는 기어이 훌륭히 수행될것이다.

전체 작가들이여.

조국해방 일흔돛과 당창건 일흔돛을 향한 장엄한 총공격전의 포성은 울려퍼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함께라면 기쁨도 슬픔도 시련도 영광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따라 보무당당히 총진군의 발걸음 세차게 울려 명작풍년의 자랑찬 선물을 안고 승리의 경축광장에 떼뻗이 들어서자!

리 창 유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보천보전투는 한마디로 말하여 생리별을 당한 어머니와 그 자식들의 상봉과 같은 사변이었다고 할수 있다. 조국은 보천보에서 울린 총소리를 계기로 하여 자기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충직한 아들딸들을 만날수 있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전투는 망국사의 흐름을 광복으로 돌려세운 결정적인 계기의 하나였다고도 표현할수 있다.》

《우리가 보천보전투를 조직한 목적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민족재생의 전기를 마련하려는데 있었고 좁은 의미에서 보면 항일혁명투쟁에서의 결정적인 단계, 질적비약을 이룩하자는데 있었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혁명의 길에 나선 첫날부터 언제나 사고의 출발점을 조선혁명에 두었다. 몸은 비록 이 국에 있었으나 마음은 항상 조국에 가있었고 조국의 동포들에게 가있었다.》

6월 4일!

정 두 국

가림천 거치른 물결우에
희망의 달빛 담아시고
곤장덕 어두운 수림속에
한줄기 구원의 길 열어놓고
보천보여 너는
삼가 이날을 그리었다

빛도 없고 삶도 없는
깜깜한 암흑속에서
일제의 깨다짜에 짓눌려
피눈물의 세월 이어가면서도
보천보여 너는
부디 이날을 기다렸다

복수의 불기둥이
보천보의 서리찬 하늘에 닿아
눈물의 밤을 태운 이날
꺼져가던 가슴들에
소생의 불을 지펴
벗어섰던 조선의 맥박이 다시 뼉
6월 4일!

군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밤하늘의 우뢰인양
보천보의 하늘에 울린
조선의 빨찌산 김대장의
우렁찬 웨침소리—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정신은 살아있다!
조선의 심장도 살았다!

원쭉의 머리우에 불을 지르라!

이는 구원의 손길
기다려 애타던 가슴들에
새삶의 숨결을 준
뜨겁고도 열렬한 그이의 사랑
간악한 일제의 머리우에
결단코 내리고야말
멸망의 최후선언

하여 쓰러졌던 조선이
다시 일어나 백두산을 우러르며
탄압의 총칼에 반항의 주먹 들었다
《필승》을 부르짖던
일제의 《동조동근》도
한줌 재되어 관속에 들었다

오, 보천보의 6월 4일이여!
70여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도 너의 불길은
온갖 원쭉들을 불사르는
신념의 불로 꺼짐을 모르거니

승리란 말과 함께
조선이 간직한 6월 4일!
78畝 이날 세계여
다시 조선의 목소리를 들으라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정신은 살아있다!
조선의 심장도 살았다!
원쭉의 머리우에 불을 지르라!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작품은 진실하여야 할뿐아니라 철학적깊이가 있어야 한다.》

《형상의 철학성을 보장하는것은 원래 문학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문학은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이다. 인간의 운명문제는 문학이 다루어야 할 문제인 동시에 철학상의 문제이다. 그 어떤 인간의 운명문제도 인간에 대한 철학적견해와 입장을 떠나서는 풀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문학은 철학성을 띠게 된다.

문학이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으로 되자면 마땅히 철학적깊이가 있어야 한다.》

빛나라 6월 19일이여

방 명 혁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당의 역사를 돌이켜볼수록
붉은 해돋이를 떠올리는
청신한 새날의 아침과도 같이
내 마음속에 안겨오는
1964년 6월 19일

이 땅에 레사로이 찾아온 날이었어도
이날에 우리 인민은
가장 큰 행운을 받아안았다
또 한분의 백두령장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중앙청사에 높이 모시였거니

가슴뜨거워라
력사의 그날부터 오로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 위해
끝없는 사랑과 헌신의 길 걸어오신
장군님 한생이 뜨겁게 어려와...

그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못 잊을 6월의 그 기슭에서
혁명의 분수령을 맞이한 조국땅에
우리 장군님 한평생
쌓고쌓으신 그 업적을

높이 솟아 빛발치는
주체사상탑을 바라보면
수령님의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빛내여주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 어려오고
한편의 영화를 다시 보아도
우리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열어주시던
그 로고 가슴에 안겨오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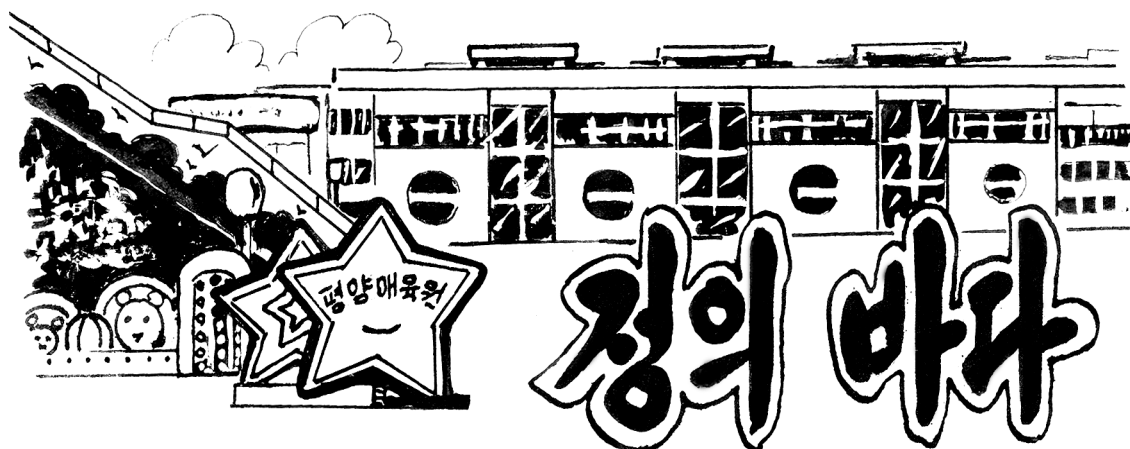
우리 장군님 당중앙청가에서
맑은 봄기운마냥
이 나라 방방곡곡에 뿌려주시던
번영의 열풍을 안고
가는 곳마다 기적의 대기념비 솟구치고
인민의 만복은 더 활짝 꽃피었어라

정녕 력사의 그날과 더불어
내 조국의 모습은 더더욱 젊어지고
사람들은 사람마다 참다운 혁명가로 자라나
즐기차게 달음쳐온 우리 혁명은
영광의 자욱만을 새겨오지 않았던가

아, 1964년 6월 19일
그날이 있어
우리 당력사는 금문자로 찬란하고
바로 그날이 있어
오늘의 내 조국의 모습도
이렇듯 눈부신것이어라

6월의 그날부터 펼쳐오신
장군님의 평생념원 이 땅에 꽃피우시며
오늘도 끊임없는 헌신의 길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장군님의 한생의 뜻 이어가시는
우리 원수님 계시여
영원토록 무궁할 조선로동당!
그 천만년 미래속에
인민의 마음속에
불멸의 기념비로 우뚝 솟아 빛나는
아, 6월 19일이여!
대를 이어 길이길이 빛나라



락 속 본

1

출근준비를 하고 집을 막 나서려던 애육원원장 최송련은 같이 가야 할 손자 진희가 갑자기 방바닥에 퍼터버리고앉아 발버둥질을 치는 바람에 아연해서 내려다보았다.

《안 갈래, 안 갈래. 나 애육원에 안 갈래.》

《너 오늘은 왜 그러니, 응? 어서 가자. 내 가다가 맛있는거 사줄게.》

최송련은 어서 업히라고 무릎을 점으며 등을 돌려봤지만 진희는 오히려 방바닥에 벌렁 뒤로 나가 넘어졌다.

《싫어싫어. 잉잉, 나 안 갈래.》

《그럼 너 혼자 어디에 가 놀겠니. 그러지 말고 어서 가자. 할머니 출근시간 늦어진다.》

《안 갈래. 싫어싫어, 잉잉.》

최송련은 도리질, 발버둥질 다하며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애를 안타까이 쳐다보았다.

이 애가 왜 이렇게 속을 태울까. 여느때 오히려 앞장서서 《할머니, 빨리 가자.》하며 손잡아 끌던 애가...

문득 전번주 일요일 저녁에 있던 일이 떠올랐다. 그날은 마침 진희의 엄마인 맘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었다. 진희의 아빠, 엄마는 늘 현지에 나가 연구사업에 전력하고있는 과학자들이여서 일요일이라 해도 별반 집에 들어오는 날이 없었는데 그날은 같아 입을 옷을 가지러 왔던것이다.

오래간만에 집에 온 며느리는 저녁밥상을 물리고 설겅이마저 끝내자 옷방에 올라가 진희를 그러안고 쌓였던 정회를 풀기 시작했다.

《우리 진희 그새 더 큰것 같구나... 그래 오늘도 할머니를 따라 애육원에 가서 놀았나요?》

《응.》

진희는 주유치원에 다닌다. 그래서 최송련은 토요일 저녁마다 주유치원에 가서 진희를 찾아오곤 하는데 일요일에는 그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 애육원에 데리고 나가곤 한다. 같은또래의 원아들과 어울려 놀라는것이다.

《그래 오늘은 애육원에 가서 뭘하면서 놀았나요?》

《영춘이하고 자전거를 탔어, 공두 차구.》

《그래요? 참 재미가 있었겠구만요.》

《응, 그런데 할머니 날 고와 안해.》

사이문사이로 도란도란 새어나오는 모자간의 정이 철철 흐르는 목소리들을 흐뭇해서 들으며 쌀함박에서 뉘를 골라내던 최송련은 뜻밖의 소리에 눈이 둥그래서 옷방쪽을 올려다보았다.

(아니, 저 애가?)

《호호호, 우리 진희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고와하는게 우리 진희라는걸 몰라요?》

《아니야 씨, 나보다두 영춘이를 더 고와해. 자전거두 난 조끔밖에 못 탔어. 할머니가 날 보구 영춘이만 좀더 태우자고 그러던데 뭐.》

《그건 우리 진희가 너무 욕심스레 혼자만 자전거를 타겠다고 해서 그런거예요.》

《아니야, 나보다두 영춘이가 더 많이 탔는데 뭐. 할머니 나빠. 오늘 권총을 가지고놀다가 고장났을 때두 나만 욕했는데 뭐...》

《그건 애육원 장난감을 못쓰게 만들었으니까 그

런거예요.》

《그래두 나빠. 할머니 애육원에만 가문 날 본척 두 안하는데 뭐. 나 애육원에 안 갈래. 씨, 엄마 나 권총 사달라, 애육원것보다 더 멋있는거.》

《내 다음번에 올 땐 꼭 사다줄게. 진흙 할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진흙 이제 크면 할머니가 왜 애육원원아들을 그렇게도 고와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도 난 애육원에 안 갈래. 싫어, 씨.》…

최송련은 그때 그것을 철없는 손자애의 단순한 투정질로 웃어넘기고말았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이렇게 애육원에 안 가겠다고 뻔대는걸 보니 이 할머니한테 대단히 불만이 있는 모양이었다. 최송련은 어이가 없어 웃고말았다. 그렇다고 저렇게 때를 쓰다 지칠 때까지 기다리고있을수도 없었다. 최송련은 피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넋지시 물었다.

《그럼 우리 외할머니네 집에 갈까?》

아닌게아니라 발버둥질을 치며 울던 애가 그 소리에 울음을 툭 그쳤다. 언제 울었더냐싶게 눈을 깜빡거리다가 찌글찌글 울려다보았다.

《정말?》

최송련은 말없이 한눈을 깜빡하며 웃어보이고는 진희의 외할머니네 집에 전화를 걸었다. 마침 외할머니가 집에 있었다. 진희를 보내라고 했다. 전화를 걸면서 《예, 이제 데리고가겠어요.》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손자애가 푸시시 일어나앉았다. 등을 돌려대기 바쁘게 어정어정 다가와 목을 그러안으며 매달렸다. 최송련은 애를 업고 집을 나섰다. 외할머니네 집은 다행스럽게도 애육원으로 가는 도중인 복새거리에 있었다. 최송련은 진희를 업고 가면서도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아무리 철없는 다섯살짜리의 말이라 해도 할머니가 자기를 고와하지 않아 애육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것이 속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복속에서 복을 모르는 아이들… 그들중의 하나가 바로 이 진희였다.

이 진희란 이름에서부터 보통사람은 상상도 못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담겨져있다.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 애의 이름을 지어주시었다.

몇해전 진희가 태어나기 전이었다.

당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현대포병전술학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사업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연구사들과 무릎을 같이하시고 토론을 하실 때면 날이 언제 저물고 또 언제 새날이 밝는지 가늠하지 못하시었다.

그때 **김정은**동지께서는 젊음이 넘치는 연구사인 진희의 아버지도 알게 되시었다. 그 나날 그이께서는

강의실에 펼쳐놓은 대형군사지도에서 줄곧 지도작업을 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지도작업에 얼마나 열중하시었는가 하는것은 그이의 과로한 부담으로 생긴 일들이 모두 연구사들을 울리곤 하였다는 사실들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때로는 연구사들의 가정도 자주 방문하곤 하시었는데 그런 때면 그이께서는 줄곧 어린이들과 한데 어울리곤 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아이들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그들과 같이 즐기는것은 그이의 타고나신 천품이기도 하였다.

아이들의 노래도 들어주시고 잘 불렀다고 불도 다독여주며 목마도 태워주고 방안이 좁다하게 비행기도 태워주시면서 시간을 바치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연구사들은 감격을 금치 못해하였다.

어느날 장판지가 보기 좋게 늘어난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때는 광경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연구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군사종합대학에서 밤을 새워가며 전술학연구에 심혼을 쏟는것도 바로 아이들의 행복한 요람을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것은 다 미래를 위한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심장으로 뜨겁게 감수한 진희의 아버지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며칠전에 집사람이 아들을 낳았다고 보고드리고 이름을 지어주시면 좋겠다고 무엄하게도 청을 드리었다.

원수님께서 얘기이름이야 부모들이 자기들의 녀원과 지향을 담아 짓는것이 인륜법도가 아닌가고 사양하시자 애아버지는 바로 자기들의 간절한 소원이 원수님께서 얘기이름을 지어주시는것이라고 절절히 말씀드리었다. 원수님께서서는 웃으시며 《하, 이거 어려운 과업이다.》하시더니 정말 이를 후에 이름을 지어주신것이다. 그 이름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에서 한자씩 따낸 진희였다. 원수님께서서는 아이이름에 조국의 이름을 펼치며 빛나게 살라는 부모들의 희망을 담아주시었다....

예로부터 두벌자식이 곱다고는 하지만 이런 복까지 받은 손자애여서 최송련은 정말 금이야옥이야 온갖 정을 다 쏟아붓고있었다.

하지만 애육원에 나가서 정에 주린 부모없는 원아들앞에서까지 진희의 엉덩이만 두드리고있을수는 없었다. 육친의 정을 그리는 원아들은 어른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 눈빛 하나,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법이다.

자기를 불면 날새라 쥐면 꺼질새라 애지중지하는 할머니가 애육원에 나가서는 자기에게 좀 어찌어찌한다고 불이 부어 나쁘다고 하는 진희인데 애육원원아들이야 오죽 정을 그리워하겠는가. 진희를 외할머니네 집에 맡긴 최송련은 급히 애육원으로 향

했다. 가지많은 나무 바람잘 날 없다고 술한 애들을 거느리고있는 최송련으로서는 어느 한시도 마음을 놓을수 없는것이 애육원 원아들 일이었다. 총총히 걸으면서도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르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밤새 애육원에서 별다른 일은 없었는지... 혹시 어느 애가 앓지는 않는지, 또 밖에 남몰래 뛰어나간 애는 없는지, 또 누가 말썽을 부리며 다투지는 않았는지...

진희가 자기보다 더 고와한다고 엇드레질을 하는 그 영춘이란 애도 최송련이 각별히 관심을 돌리는 애들중의 하나였다. 늘 우울하고 소침해서 다른 애들과 잘 섞이지 않는 애인데 얼마전에도 애육원에서 없어서 소동을 피웠던것이다.

거리에서 해매이다 어느 아빠트옆에 쪼그리고앉아있는것을 겨우 찾아왔었다. 먹다남긴 간식들을 모아두었겠는지 불룩한 간식주머니까지 꼭 그러안고있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대답은 안하고 눈물만 툭툭 흘렸다. 최송련은 속이 상했다. 혹시 영춘이와 진희가 서로 싸우지나 않았는지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래서 영춘이가 애육원에 마음 붙지 않아 뛰쳐나갔고 진희도 그래서 애육원에 가지 싫어하는건 아닌지...

최송련은 오만가지 걱정을 가슴에 안은채 애육원으로 들어섰다.

2

애육원마당에는 암청색승용차 한대가 서있었는데 키가 후리후리하고 얼굴이 길쭉한 장년의 한 일군이 철봉대와 평행봉대가 주련이 서있는 곳을 돌아보고있었다.

시인민위원회에 있다가 당중앙위원회로 소환되어간 김옥이었다.

최송련이 다가서며 인사를 하자 김옥도 돌아보고 반색을 했다.

《애육원을 좀 돌아보려고 나왔소.》

그리고는 두손을 허리에 얹고 애육원건물과 마당을 빙 둘러보았다.

《그전보다 애육원이 더 환해졌구만. 환경이 훨씬 깨끗해졌고... 원장동무가 아글타글 애쓰는게 알리오.》

최송련은 어쭙은 표정을 지으며 애육원청사쪽을 쳐다보았다.

《저야 뭐... 부부장동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야 어떻게 이렇게...》

김옥이 도리머리를 했다.

《도와주는게 기본이 아니지. 주인들이 그것을 정상유지관리하면서 보다 편리하게 위생문화적으로 더 잘 꾸려나가는게 기본이 아니겠소.》

김옥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애육원청사쪽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자그마한 사진기도 들려있었다. 최송련은 그의 뒤를 따라걸으며 왜 갑자기 애육원으로 나왔을가 하고 생각해보았다. 최송련이 김옥을 처음 알게 된것은 애육원원장으로 임명받을 때였다.

《송련선생, 우리는 애육원원장감을 물색하느라 시내 수십개의 유치원원장들을 다 료해해보았소. 송련선생은 조국해방전쟁때 미제야수들의 폭격에 랑부모를 다 잃었더구만. 젓먹이때부터 당의 품에서 자라 애육원을 거쳐 유아녀학원을 나오구 사범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했구... 돌도 되기 전부터 부모없이 자랐으니 원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게고... 송련선생이 제일 맞춥하다고 보았소.》

힘껏 밀어주겠으니 부모없는 아이들때문에 우리 장군님께서 걱정하시지 않게 일을 잘해봅시다.》 하며 손을 힘있게 잡아주던 사람이 바로 그때 시인민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일하던 이 김옥이었다. 김옥은 자기가 말한대로 정말 애육원사업을 힘껏 도와주었다.

처음 애육원이 여기로 옮겨왔을 때는 건물이 시원치 않았었다.

살림집들속에 에워싸여있는데다가 어느 기관이 쓰던 건물이어서 아이들의 잠자리는 물론 식당, 목욕탕, 위생실 어느것 하나 마음드는것이 없었다.

김옥은 힘있는 건설력량을 애육원을 꾸리는데 돌리고 자신이 솔선 두팔을 걷고나섰다. 그는 건설자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라, 저것은 또 어떻게 해라 하면서 요구성을 높였다. 하여 불품없던 건물이 실내물놀이장까지 갖춘 멋쟁이애육원으로 꾸러지게 되었다.

김옥은 이름있는 가구공장에 물려 교양실과 식당, 잠자는 방들마다 원아들의 연령적특성에 맞게 침대와 밥상, 결상, 옷장들을 일식으로 현대적인 맛이 나게 갖추어주었다. 운동장에는 미끄럼대와 체조대, 철봉, 평행봉을 아이들의 키에 맞게 세워주고 룡구판은 고급한 인공수지판으로 제작해다가 놓아주었다. 그해 6월 1일 국제아동절에 있었던 일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날 길건너편에 있는 유치원에는 아침부터 학부형들이 발들여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모여들며 흥성거리는데 애육원에는 교양원들과 그들이 초청한 몇몇 친척들이 왔을 뿐 좀처럼 흥이 오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운동회분위기는 하늘과 땅차이었다. 최송련은 안타까웠다. 자기가 직접 복을 두드리고 뺨파리를 치며 분위기를 돋구려 해도 길건너편에서 와- 하는 환성이 터져오를 때면 손땹, 다리땹이 다 풀렸다. 바로 그때 애육원마당에 승용차 한대가 들어와 멈춰섰다. 최송련은 자기도 모르게 차걸로 달려갔다. 차에서 내리는 김옥을 보자 저절로 눈물이 앞

각 쏟아져나왔다.

《왜 이제야 왔습니까, 예?!》

《원장동무, 왜 그래? 무슨 사고가 났나, 응?》

바로 그때 길 건너편에서 또다시 와- 하는 함성이 터져올랐다.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눈길을 돌렸던 김옥은 그제야 송련의 애끓던 심정을 이해하고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두손으로 송련의 손을 꼭 잡으며 자책어린 소리로 말했다.

《용서하오. 동무가 6.1절날 아침 꼭 오라고 하는걸... 내 일만 일이라고 생각하다보니 큰 죄를 지었소.》

김옥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되짚어 떠나갔다. 잠시후에는 인민위원회 일군들을 뺄스에 가득 태우고 들이닥쳤다. 그들은 아동백화점에 들러 놀이감들을 한아름씩 사들고왔었다. 얼마후에는 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의 가족들까지 음식들을 이고지고 애육원으로 찾아왔다.

그리하여 그날의 운동회는 길 건너편 유치원보다 더 흥성거리며 열을 올리였었다.

최송련은 그날 저녁 떠나려는 김옥의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말했다.

《부위원장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내가 버릇없이...》

김옥은 눈물이 글썽한 송련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볼수 없는듯 눈길을 내리깔며 도리질을 했다.

《아니요. 내가 옹당 받아야 할 비판이었소. <왜 이제야 오는가.> ... 얼마나 정당한 비판이요. 우리 인민위원회 일군들이야말로 인민들의 호주가 되고 이 애들의 학부형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요. 용서하오, 우리 장군님께서 그리도 사랑하시는 아이들인데... 앞으로 더 관심을 돌리겠소.》...

그것이 벌써 5년전 일이다. 그 다음날은 원수님께서 진회의 이름을 지어주신 뜻깊은 날이었다. 김옥은 그후에도 자주 애육원에 나와보곤 했었다.

이런 그가 당중앙위원회로 소환되어갔기에 이제는 오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또 찾아준것이다.

《난 확실히 일군의 자격이 없소. 내가 여기와 본지가 이제 펴 오랬지?》

애육원청사정문을 열고 현관홀에 들어서면서 김옥이 최송련을 돌아보았다.

최송련은 이렇게 자기비판부터 하는 김옥을 의아한 눈길로 마주보았다.

《이제야 부부장동지가 다른 중요한 일들을 맡아보시는데 어떻게...》

최송련이 미소를 머금으며 눈을 내리깔았다.

김옥은 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이들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소.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나라의 왕

으로 내세워주시던 아이들이 아니요. 오늘은 우리 원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며 내세워주시는 왕들이란 말이요. 그런데 나는 ...그걸 잊고 살았거던.》

최송련은 왜서인지 코허리가 시큰해움을 느끼며 조심히 그의 뒤를 따라걸었다.

김옥은 걸음을 옮기며 자책어린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엿그제 아침이었다.

김옥이가 사무실책상에 마주앉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며 설계를 하고있는데 그이께서 전화를 걸어오셨다.

《동무들이 작성한 문건을 보았습니다. 이 자료들이 동무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보고 료해한것들입니까?》

김옥은 긴장해졌다. 자기들이 작성하여 올린 문건에 무엇인가 빈틈이 있다는것을 느꼈던것이다.

《도당을 통해 료해한 자료들입니다.》

수화기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말씀도 들려오지 않았다.

김옥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가 하고 생각을 더듬어보았다.

지난해말에 동해안군부대들에 대한 현지도도를 마치고 돌아오시여 평안남도애육원에 대한 자료를 료해하신 원수님께서는 김옥에게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 양로원들의 구체적인 실태를 될수록 빨리 알아볼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김옥이 시인민위원회에 있을 때 그런 부문을 맡아보았으니 파악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신것 같았다.

김옥은 즉시 아래단위에 포치하여 자료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집계하여 원수님께 올렸다. 자료들은 두번세번 확인을 한것들이였다.

그런데... 원수님께서서는 준절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자료들에서는 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수자들만 알자면야 무엇때문에 동무에게 과업을 주었겠습니까. 동무들이 현실에 나가 원아들의 맑은 눈동자를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더라면 좋았을걸 그랬습니다. 그들이 식당에서 무엇을 먹고있고 또 무엇을 먹고싶어하는가, 후방물자들은 어떻게 보장되고있는가, 침실과 세목장은 어떠한가. 옷들은 어떤것을 입고있고 무엇을 그리워하는가, 애로되는것들은 어떤것들인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기가 얼마나 실무적으로 일처리를 했는가를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빨리 문건을 만들어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원수님의 그 심원한 뜻을 너무도 모르고있었다.

《방금 수자를 가지고 말했지만 수자에도 정이 느껴지게 하여야 합니다. 청무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꾼들은 사람들속에서 울리지 않는 목소리도 들을줄 아는 귀를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원아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에 기뻐하며 무엇에 우는가, 그들의 행동과 언어에서 표현되지 않아도 그들의 생활을 통하여 보고 느낄줄 알아야 합니다.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양로원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것이 당의 의도입니다.》

김옥은 그길로 평양을 떠났다. 원산과 함흥, 청진과 혜산, 강계, 신의주...

각 도의 육아원, 애육원들에 찾아가 원아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양로원에서는 노인들과 무릎을 마주하고앉아 담배를 권하기도 했다. 식당과 창고들에도 들러보고 사진도 찍었다...

《그러니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양로원들과 학원들을 다 돌아보고 오시는 길이군요. 참 이번에 다른 도들에서도 다 물고기를 공급받았지요?》

《그렇소. 모두가 생신한 물고기들을 듬뿍듬뿍 받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오. 그래서 그 모습을 찍은 사진들도 가져가는 길이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먼저 취사장으로 들어갔다. 식모들이 김이 뽕얹게 서린 취사장에서 동자질을 하다가 다소곳이 인사들을 했다.

《오늘 점심준비를 어떻게 하나 좀 봅시다.》

김옥은 조리대위에 올려놓은 물고기를 보고 반색을 했다.

《여기선 물고기를 하루에 얼마씩 먹입니까?》

물고기를 손질하던 얼굴이 곱살한 아주머니가 자랑스레 대답했다.

《한 아이에게 하루 200그램씩은 줍니다.》

김옥은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저쪽 큰 가마에서는 한창 콩나물을 데쳐내고있었다.

《김치는 얼마나 담그었습니까?》

김옥이 최송련을 돌아보며 물었다.

《봄남새 날 때까지는 풍족하게 먹일수 있습니다.》

취사장에서 나온 김옥은 창고와 침실, 세목장과 교양실과 잠방들을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원아들까지 만나고나서야 흡족해서 말했다.

《이만하면 생활이 괜찮다고 볼수 있구만.》

《그렇습니다.》 하며 최송련은 간절한 어조로 말했다.

《원수님께 잘 말씀드려주십시오.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원수님께서 우리 애육원일을 두고 더는 걱정을 하시기 않게 말입니다. 여기 애육원은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소. 원수님께 동무들의 그 심정을 그대로 보고드리겠소.》

김옥은 떠나갔다.

그가 탄 차가 애육원울타리밖으로 나가 살림집모퉁이를 돌 때까지 최송련은 그린듯이 서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이 자꾸만 가슴을 파고들었다.

원아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에 기뻐하며 무엇에 우는가. 그들의 행동과 언어에서 표현되지 않아도 그들의 생활을 통하여 보고 느낄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자기는 영춘이가 무엇때문에 우울해있고 무엇때문에 애육원을 뛰쳐나갔는지 똑똑히 모르고있다는 자책감이 뇌리를 세차게 쳤다.

영춘이는 정녕 이 애육원에 마음이 붙지 않아 그런것이 아닐가.

우리의 사랑이 아직 너무도 부족해서 그런것이 아닐가.

최송련은 자기도 모르게 나직이 한숨을 내그었다.

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들을 돌아보고계시였다.

1호 랭동창고에는 바닥에서 천정까지 각종 랭동 물고기블록들이 탄약상자처럼 빼곡이 들어차있었다.

찬 기운이 풍기는 창고안을 돌아보시던 원수님께서는 얼음속에 굳어져있는 물고기들의 눈알을 보시며 물고기의 선도가 좋은것이 알린다고 기뻐하시였다.

《이 수산물랭동시설들은 당에서 마음먹고 마련해준것입니다.

당에서 마련해준 최상급의 이 설비들이 군대와 인민들의 생활에서 은이 나게 일을 잘하여야 합니다.》

랭동창고를 구석구석까지 돌아보고 밖으로 나오신 원수님께서는 1월의 땀뻘 바다바람에 외투자락을 날리시며 방파제우에 서계시였다.

처절씩, 파도가 쉬임없이 밀려와 방파제기슭을 때릴 때마다 은구슬같은 포말들이 해빛에 령롱한 무지개를 일으키며 휘뿌려졌다.

원수님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일군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이때 랭동창고 저쪽에 승용차 한대가 급히 달려와 멎는것이 바라보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반색을 하시였다. 김옥이 승용차에서 내려 달려오는것을 보시였던것이다.

《빨리 왔구만, 좀 쉬고 오후쯤에 떠나라고 했는데...》

김옥은 원수님께 고개숙여 인사를 드리고나서 큰 숨을 내쉬었다.

《이번에 계획했던 대상들은 다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냥 내치 달려왔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밤새 달려온 흔적이 력연한 얼음버께가 하얗게 덮인 승용차를 보시며 그를 나무라시였다.

《그래도 이렇게 무리하게 차를 타면 되겠습니까. 이처럼 추운 때에 싸락눈이 깔린 길로 밤새 고속으로 달렸겠으니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언제인가 장군님께서 연형목동지가 현지도도를 마치고 떠나신 장군님 따라 고속으로 달려오는것을 보시고 도중에 렬차를 세우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시고는 어떤 경우에도 일군들이 그렇게 고속으로 달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엄하게 나무라시였습니다.》

김옥은 그이의 다심하신 념려에 가슴이 뭉클해움을 느끼며 고개를 떨구었다.

《전... 어쩐지 자꾸 오고만싶어서...》

김정은동지께서는 그의 심정이 리해되었지만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이렇게 그루를 박으시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시고는 수행원들을 둘러보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이 동무가 저녁에 도착하면 오늘 밤에 부대지휘부에서 토론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왔으니 저리 여기서 토의합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옥이 서류가방에서 꺼내드리는 문건과 사진들을 받아드시고 먼저 사진들을 한장한장 여겨보시였다.

원아들이 식탁에 앉아 맛있게 밥을 먹는 사진, 마당에서 뛰놀며 마음껏 웃는 사진... 창고안에 가려놓은 물고기블록들...

식탁에 마주앉아 권커니작커니하며 호합지게 웃는 양로원 늙은이들의 사진도 있었다.

그 어디나 식탁들은 푸짐하게 차려져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맵쌀 바다바람이 방파제를 날아넘어 불어치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사진들을 마지막장까지 다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수원들에게 넘겨주시였다.

《원아들과 로인들의 티없이 밝은 웃음을 보니 순간에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리는것 같습니다. 이따금 이렇게 한번씩 가슴이 뭉클하는 쾌감에 취해보기 위해 혁명을 하는것 같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진들을 보며 미소를 짓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다가 다시 문건에 시선을 주시였다. 한글자, 한글자 세심히 자료를 보고나신 원수님께서는 눈길을 드시여 김옥을 바라보시였다.

《수고했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특히 좋은 점은 고난의 행군시기 제일 고생을 많이 한 도에 육아원, 애육원원아들의 수가 훨씬 줄어든것입

니다.》

김옥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정중히 말씀드렸다.

《지금 어디서나 일군들이 원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원아들과 로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기 위해 분발하고있습니다. 평양애육원 최승련원장은 원수님께서 원아들때문에 걱정을 하시지 않게 일을 더 잘하겠다고 자기들의 심정을 원수님께 꼭 말씀드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 마음은 고맙습니다. 난 그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위에 둘러선 일군들을 가까이 부르시였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온것은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중등 및 초등학교 원아들과 양로원 로인들에 대한 물고기보장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원아들에게 하루에 물고기를 200그램씩 먹인다고 하는데 아직 적습니다. 300그램은 되여야 합니다.》

《예?》

모두들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원아들과 양로원 로인들 매 사람에게 물고기를 200그램씩 매일 공급하는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있는데 원수님께서는 그것이 적다고, 300그램씩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는데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첩을 꺼내드시고 그 수량이 얼마나 되여야 하는가를 몸소 계산해보시고나서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부르시였다.

《지금 있는 수산사업소들에서 잡는 물고기를 가지고서는 아무래도 안되겠습니다.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양로원들에 1년 365일 하루도 번짐없이 물고기를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수산사업소를 하나 새로 내와야 합니다.》

나는 그 임무를 인민군대에 주겠습니다. 인민군대에서는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전국의 수산사업소들의 모범이 되게 수산사업소를 하나 잘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산사업소 위치는 어디에 정하고 설계와 시공은 어디서 맡아하며 자재와 설비보장은 어떻게 하고 어로공모집과 어구보장은 어떻게 하라는것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다가오는 태양절까지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을 끝내고 배를 띄워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로인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하게 먹이는 문제는 한시가 새롭습니다.》

《알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신임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인민군지휘성원들이 어깨를 짙 펴며 감동어린 어조로 힘있게 대답올렸다.

《자, 이제 또 달려봅시다. 김옥동무는 나와 함께 갑시다.》

4

김정은동지께서는 달리는 차안에서 다시금 애육원원아들의 사진을 한장한장 번져보시다가 몇장을 따로 골라내시었습니다.

《이 애육원 말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중 한장을 손에 드시고 김옥에게 물으시었다.

김옥이 들여다보니 최송련이네 애육원을 찍은 사진이었다.

《?!》

김정은동지께서는 왼손으로 애육원건물을 가리키시었다.

《이 건물이 초라해보이지 않습니까?》

김옥은 더운것을 삼키며 조심히 말씀드렸다.

《좀 초라해보이기는 합니다. 원래 기관에서 쓰던 건물을 개건한것인데 겉보기엔 좀 초라해보여도 안에 꾸려놓은것이란 생활은 그만하면...》

《건물은 초라해도 생활은 그만하면 괜찮다는 말인데...》

원수님께서는 다른 사진들을 또 번져보시었다. 그러고보니 모두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들과 양로원들의 건물전경사진들이었다.

《어느 건물이나 다 어슷비슷하구만. 이 육아원과 애육원들은 아이들이 사는 집인데 아이들의 집다운 맛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것 하나 마음에 드는 건물이 없고...》

아무래도 건물들부터 육아원, 애육원답게 잘 지어주어야 하겠습니까.》

《예?》

김옥은 놀란 눈길로 그이를 우려했다. 방금전에 이들에게 물고기를 전문보장하기 위한 수산업소를 하나 크게 건설하자면서 인민군대에 파업을 주신 원수님이시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사는 집들을 또 잘 지어주자고 하시는것이다. 사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벌려놓은 건설만도 얼마나 많은가. 청천강계단식발전소,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방금 동무는 건물을 초라해도 생활은 그만하면 괜찮다고 하였는데...》

건물도 최상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왕인 우리 아이들의 집이 아닙니까. 생활이 그만하면 괜찮다는 말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만하면 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을수 있습니까. 하물며 그들은 부모의 정을 모르고 사는 원아들인데... 그들은 마땅히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속에서 앞으로 영웅도 나오고 군인도 박사도 나

오고 이름난 배우, 체육인 다 나와야 합니다.

집을 지어줍시다. 우선 평양에 있는 육아원과 애육원부터 먼저 지읍시다. 김옥동무가 설계일군들과 토의를 잘해보시오. 앞으로 육아원과 애육원이 있는 도와 시들에서도 그대로 건설할수 있게 표준설계를 만들어보시오.》

《알았습니다.》

김옥은 속에서 용암같은것이 부글부글 끓어오름을 느끼며 힘있게 대답을 올렸다.

그후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시 모란봉구역 인흥동의 좁은 길을 에도시어 소총아빠트지구에 자리잡고있는 평양애육원을 찾으시었다.

그날은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상징으로 우리 당 력사문헌에 아로새겨져있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애육원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시고 떠나시기에 앞서 원아들에게 퐁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애육원을 옛 동화에 나오는 궁전보다 더 멋지게 지어주겠다고 사랑의 약속을 남기시었다.

5

밤, 밤이 깊어가고있었다.

삼라만상이 꿈나라로 가고있는 깊은 밤.

최송련은 영춘이를 등에 업고 육아원에서 돌아오고있었다. 벌써 세번째로 걷는 걸음이였다.

그의 등에서는 영춘이가 제법 고롱고롱 코까지 풀면서 달게 자고있었다.

집집의 창문들엔 불들이 꺼지고 가로등마저 깜박깜박 졸고있는 밤.

이밤 당중앙위원회청사 어느 한 방에서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치료병동의 건축설계형성안을 보시며 책임설계가의 해설을 주의깊게 듣고계시었다.

김옥은 건설을 맡아할 상무조일군들과 시공을 맡아할 인민군부대지휘관들과 함께 서서 황홀한 눈길로 앞에 전시해놓은 설계형성안을 바라보고있었다.

책임설계가는 설계형성안을 지시봉으로 가리키며 열정적으로 설명해나갔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육아원과 애육원, 치료병동을 집중시키는 방향에서 건축설계형성안을 작성할데 대한 가르침을 주신데 따라 두개의 형성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첫번째 형성안은 건축의 생활기능적합리성과 구조적합리성, 사상에예술성을 건축의 사명에 맞게 살려나가기 위하여 육아원과 애육원, 치료병동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안은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편리성, 미학적성, 비반복성의 원칙에서 육아원, 애육원,

치료병동을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로따로 독립적인 건축물로 형성한것입니다.

그것은 시각적으로 매 건축물들의 기능과 사명이 뚜렷이 알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옥은 대동강가의 버들숲속에 웅장하게 솟아있는 첫번째 형성안과 마치도 버들숲속에서 누가 더 멋있나 내기라도 하듯 자기 자태를 한껏 뽐내며 아기자기하게 자리잡은 두번째 안을 희한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자기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지금까지 본적 없는 희한한 건축물들이었다.

문득 며칠전 현지지도를 마치고 오시는 길에 원수님께서 아이들의 집을 지을 자리를 돌아보라고 하시던 일이 떠올랐다.

그날 인민군부대지휘부에서 야간전술훈련을 지도하시고 자정이 넘어서야 평양에 도착하시었는데 《소빨은 단김에 빼됐다는데 우리 이길로 저레 애육원 지을 자리를 가보고 옵시다. 그래야 그곳 지형에 맞게 건축형성안을 만들게 아니요.》라고 하시는것이였다.

김옥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있었기때문이였다.

《원수님, 먼길을 밤새 달려오셨는데 이제 잠시라도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좀 있으면 날이 밝겠는데...》

김옥이 간절한 어조로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현현하게 웃으시였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인데... 얼른 가보고 옵시다. 내가 생각되는 곳이 있어서 그러오.》

김정은동지께서는 손수 운전대를 잡으시고 차를 몰아가시였다. 옥류교를 넘어 류경원과 야외빙상장, 청년중앙회관사으로 해서 쇠마줄다리쪽으로 향했다.

한참 올라가다 차를 세우신 그이께서는 대동강 반쪽으로 이윽도록 바라보시다가 차에서 내리시였다.

《저기 저쪽이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쪽에 올라 여기저기 둘러보시다가 금수산태양궁전쪽을 향해 돌아서시였다. 불노을이 피어오르는듯 환한 금수산태양궁전을 우러르던 김옥은 갑자기 목이 꺾 메여올랐다.

김정은동지께서 옥아원과 애육원을 왜 여기에 세워주시려는지 그 높으신 뜻과 뜨거운 사랑이 가슴을 뽐뽐 두드리며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수령님들께서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늘 바라보며 기뻐하시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늘 우리들의 영원한 해님이신 수령님들을 우러르며 나라의 역군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라고 이렇게 금수산태양궁전 가까이 자리를 잡아주시는것 아니겠는가.

여기에서는 저기 대성산혁명렬사릉도 한눈에 바라보인다.

조국의 미래를 그리도 사랑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여기 옥아원, 애육원에서 밝게 웃으며 뛰노는 아이들을 내려다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

《김옥동무!》

김옥은 원수님께서 돌아보시며 찾으시여셔야 생각에서 깨어나며 몸가짐을 바로했다.

《예!》

《뭐 그리 좋아서 혼자 웃고있습니까?》

《예?》

김옥은 주위사람들이 돌아보며 빙글거리는것을 보고서야 자기가 제 생각만 하고있었다는것을 느끼고 뒤더수기를 굽었다.

《방금 우리 원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허허허, 집도 지어주기 전에 그런 생각부러 하고있었구만.》

김옥동무, 진짜 그렇게 되자면 우리 일군들이 신발창이 닳도록 뛰어야 하는거요. 그래 어떻소, 김옥동무 보기엔 어느 안이 좋은것 같소?》

《제 생각엔 두번째 안이 더 좋은것 같습니다. 버드나무숲속에 따로따로 떨어져있으니 마치 아이들이 숨박꼭질을 하는것처럼 보이는게 동심이 엿보입니다.》

《숨박꼭질을 한다, 허허허. 그러다 이 외따로 떨어져있는 치료병동이 아예 숨어버리면 어찌겠소.》

그이께서 통조로 말씀하시자 모두들 마주보며 소리내어 즐겁게 웃었다.

김옥이 당황해하며 눈을 깜빡거렸다.

《동무들도 다 알고있겠지만 우리가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는것이 건축에서 철저히 선련리성과 선미학적성, 선후대관을 보장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성안들을 보면 첫번째 안은 편리성을 보장할수 있으나 미학적성에서는 두번째 안보다 떨어집니다. 개성이 없습니다. 대신 두번째 안에서는 편리성이 첫번째 안보다 못합니다.

편리성이 건축의 실용적내용을 특징짓는다면 미학적성은 사상에술적기능을 특징짓는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옥아원과 애육원은 이런 요구가 리상적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형성안들에는 이것이 완벽하게 구현되었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방금 실용성에 대해 말했는데 나는 두번째 안에서 세개의 건물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형성해놓은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건축물들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니다. 나는 원래부터 이 거리를 줄이려고 서로 다른

구역에 있던 애육원과 육아원을 한곳으로 모을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육아원과 애육원, 치료병동을 서로 독자성을 가진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김정은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었다.

사람들은 모두 긴장해서 그이를 우러렸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형성안을 더욱더 바라보시다가 말씀을 이으시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최대의 편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면 우선 이 치료병동을 여기 육아원과 애육원사이에 놓아야 합니다. 치료병동이여서 이렇게 따로 떼어놓았다는데 그렇게 되면 방금 이야기한것처럼 아이들속에서 돌발적인 문제가 생겨도 최대한 짧은 시간에 구급처치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이 세개의 건물을 하나의 덩어리로 형성하고 중심에 치료병동을 놓아야 합니다. 이 세 건물은 복도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형상적으로 말하면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진 치료병동이 한팔은 애육원을, 다른 한팔은 육아원을 그러안은 어머니처럼 안겨오게 될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슴속에서는 자기들도 모르게 환희의 감정이 솟구쳐올랐다.

모두가 경탄의 눈길로 그이를 우러렸다.

김옥도 경의의 눈길로 그이를 우러렸다.

《이렇게 육아원과 애육원을 나란히 세워주면 원아들이 좋아할것입니다. 대체로 아이들이 육아원을 거쳐 애육원으로 올라오겠는데 그 애들에게는 육아원시절 정들었던 아이들도 있을것이고 동생도 있을것입니다. 혈육이 많지 못한 그들에겐 그렇게 정들었던 애들이나 동생이 무척 그리울것입니다. 그 보고싶은 애들에게 무얼 따로 주고싶은것도 생길수 있고... 그럴 때면 보육원과 교양원들이 어차피 그들의 통신원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을겁니다.》

아- 아-

김옥은 자기도 모르게 경탄의 목소리가 터져오르는것을 겨우 눌렀다.

불쑥 최송련이 하던 말이 떠올랐던것이다.

영춘이란 다섯살짜이 애에 대한 이야기였다.

《글쎄 며칠후에 또 없어졌어요. 저녁늦게야 지하철도역앞에서 찾아냈는데... 또 간식꾸레미를 꼭 안고있더군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나오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애를 태우는지... 난 아이앞이라는것을 생각 못하고 울었습니다.》

내가 하도 안타까와해서 그러는지 영춘이는 그제야 울먹울먹하면서 말하더군요. 글쎄 그 어린것이 육아원에 있는 제 동생한테 가려고 했다는거예요. 애육원에서 내주는 간식은 먹고 남는데 동생생각이 나서... 먹다남은 간식을 모아두었다가 동생한테 가져다주려고 그랬다는거예요. 또 눈물이 나

더군요. 나도 모르게 그 애를 꼭 그러안고 이렇게 말했지요.

육아원에서도 매일 간식을 내준다는걸 너도 알지 않느냐, 동생 걱정은 말고 어서 너나 많이 먹어라 하고요. 하지만 그 앤 눈물만 툭툭떨어떨 굴뚝 말을 들으려 하지 않더군요.

간식도 간식이지만 제 동생이 자꾸 보고파서 그러는것 같았어요.

할수없이 영춘이를 업고 대성구역에 있는 육아원에 가서 동생을 만나보게 했지요. 정말 혈육의 정이란...》

그런 최송련이가 육아원과 애육원을 이렇게 나란히 지어준다는것을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그 영춘이란 애처럼 동생이 보고싶을 때마다 가볼수 있고...

어쩌면 원수님께서는 그들의 일까지 다 아시고계시는것은 아닐까.

정말 놀라지 않을수 없는 일이었다. 자기는 최송련이한테서 그 말을 듣고서도 형성안을 그렇게 아이들의 생활과 연관시켜보지 못했는데...

김옥은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형성안을 가리키며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형성안을 좀 고칩시다. 이 세개의 건축물을 하나의 덩어리로 모아주는 조건에서 개개의 건축물이 다 자기 개성을 뚜렷이 살리게 하는것이 중요 합니다.》

그러자면 정문들을 잘 형성해주어야 합니다. 정문은 그 집의 얼굴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정문을 육아원과 애육원의 성격이 뚜렷이 살아나게 하자면 아이들의 연령적특성에 맞게 동화적인 색채가 진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창문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전통적인 방법인 4각형으로 구배의 연하게 할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보면 반달처럼 보이게 형성해줍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그 달속에 계수나무와 토끼가 살고있다는 동화이야기를 상상할수 있도록 재미나게 만들어줍니다. 육아원, 애육원, 치료병동이 하나로 연결되므로 육아원과 애육원에는 복도를 외랑식으로 만들어주고 외랑밖에는 내정을 형성해줍니다. 내정의 공간은 천연바위, 소나무, 잔디밭으로 형성하고 참매, 곰, 사슴, 나비 등을 실물처럼 조각상으로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좋아할것입니다.

외랑의 벽은 통채로 투명유리로 처리해주어 내정 바닥이 손금처럼 뻥히 내려다보이게 해줍니다. 외랑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라선형으로 만들어주되 계단을 완만하게 뿔아주고 장난이 심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불수광판으로 부드럽게 피를 돌려주면 안전성견지에서 미학적면에서도 좋

을것입니다.》

위대하시다. 과연 이 말로 우리의 원수님을 다 칭송할수 있을까.

매혹된다. 이 말이 저분께로 송두리채 끌리는 이 마음을 다 담을수 있을까.

세상에 이처럼 위대하시고 이처럼 세심하시고 이처럼 뜨겁고 이처럼 박식하고 이처럼 다심하시고 이처럼 모든것을 최상의 수준에서 정통하고계시는 분이 어디에 또 있으랴.

김옥의 눈앞에는 며칠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애육원을 찾으셨던 때의 일들이 영화화면처럼 떠올랐다.

너무도 기뻐 《아버지원수님!》하고 부르며 막 달려와 안겨들던 원아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그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볼도 다독여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주시고 애들의 볼에 뽀뽀도 해주시던 그이.

아이들은 원수님께 밝고도 씩씩하게 노래를 불러드리었다....

《끝으로 강조할것은 건축설계가들이 선 하나를 굶고 점 하나를 찍어도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그대로 담기게 하는것입니다. 빨리 지어줍시다.

당창건기념일까지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여 원아들에게 안겨주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김옥의 눈에도, 책임설계가의 눈에도, 인민군지휘관들의 눈에도 뜨거운것이 고여오르고있었다.

6

알려주자, 이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를 글로 남겨 후손만대 길이길이 전해가게 하자.

최송련은 억제할수 없는 흥분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덕을 매일매일 일기형식으로 기록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일파로 여기고있었다.

오늘도 원수님의 사랑이 담긴 꽃감과 사과, 물고기가 또 들어와서 늦도록 창고에 가득 채워놓은 최송련은 밤이 이슥해서야 잠방들을 돌아보고나서 그 일기장을 책상우에 펼쳐놓았다.

옆에 서서 무엇이랴 속살거리는 진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늘 받은 수량들을 적어놓고나서 다시 첫장부터 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한장한장 번지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다시금 가슴에 새겨안군 하는 최송련이었다.

최송련은 매일매일 날자를 밝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애육원원아들에게 돌려주시는 사랑과 은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적어나갔다.

2014년 10월...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보육실, 교양실, 잠방, 세면장, 놀이장, 자연관찰실 등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아이들의 성장발육, 지능계발에 적극 리용할수 있게 손색없이 꾸려졌다고, 원아들이 마음껏 뛰놀수 있는 운동실과 물놀이장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되었고 햇빛쪼이기와 밝고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수 있게 내정도 아담하게 조성해놓은것이 마음에 든다고 만족해하시었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렇게 훌륭히 완공된 육아원과 애육원을 돌아보니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늘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우리 원아들이 궁전과 같은 요람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모습을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보시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새로 일떠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더 높이 과시되게 되어 정말 만족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이처럼 훌륭한 보금자리는 세상에 없을것입니다.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멋쟁이집을 안겨주게 되었으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것만 같아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갑자기 전화종소리가 울리었다. 밝고도 은은한 음악선물이었다.

일기장의 글줄들을 더듬으며 뜨거움에 젖어있던 최송련은 이 깊은 밤에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하며 얼른 손수건으로 눈굽을 찍고나서 송수화기를 들었다. 뜻밖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걸어오시는 전화였다.

《원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원아들속에서 앓는 애는 없습니까?》

최송련은 뜨거운 불덩어리같은것이 가슴속에서 울컥 솟구쳐오르는것을 느끼며 젖은 음성으로 말썸드렸다.

《없습니다. 아이들이 새집들이를 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원수님, 오늘 인민군부대에서 또 꽃감과 사과, 물고기들을 한차 가득 실어왔습니다. 어제는 시인민위원회에서 놀이감들을 또 보내주더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원장선생이 매일 애육원에 나와 산다고 하는데... 집일은 어떻게 합니까. 진희는 누가 돌보고...》

《그 애는 주유치원에 다녀서... 토요일만...》

《아참, 그랬다고 했지. 그 애가 애육원에 가면

할머니가 자기를 고와 안한다고 일요일 하루 가서 놀라는것도 안 가겠다고 했지요?》

최송련은 어쭙게 웃었다. 언제인가 애육원에 왔던 김옥에게 여담삼아 한마디 했었는데 그 사실을 원수님께서 알고계시는 것이다.

《그 애가 이젠 자꾸 애육원에 오겠다고 해서 야단입니다.》

《할머니가 고와 안하는데도 애육원에 가겠다고 한단 말입니까?》

그이께서 의아해하시자 최송련이 자랑삼아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자기를 고와하지 않아도 애육원이 좋다고 합니다.》

《옆에서 말소리가 나는데 누구니까?》

원수님께서 물으시었다.

《지금 진희가 제결에 와있습니다. 애육원에 안가겠다고 떼를 쓰던 녀석이 지금은 애육원에 와서 떠나지 않겠다고 야단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진희를 바꾸어주소.》

《알았습니다.》

이어 진희가 짧은 팔로 송수화기를 받쳐들었다.

《진희냐? 이게 웬일이냐? 너는 주유치원생인데 애육원에 붙어살겠단 말이냐?》

《원수님, 애육원이 정말 멋있습니다.》

《어떻게 멋있느냐?》

《물놀이장도 체육유희장도 지능놀이장도 모든게 모두모두 멋있습니다.》

《그렇다?》

《정말입니다.》

원수님, 나는 이제부터 애육원에 와서 다니겠습니다.》

《하하하, 진희야, 야단갔구나. 이걸 어쩐다? 누구도 너를 애육원에 넣을 힘이 없는데.》

이어 최송련은 송수화기를 바꾸어들었다.

원수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었다.

《원장선생, 그러면 됐습니다. 진희의 평가가 우리 애육원에 대한 최상의 평가입니다. 그 애가 애육원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러겠습니까. 진희를 잘 키우십시오.》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새집들이를 하고 아이들이 좋아한다니 그 이상 기쁜 일이 없습니다. 애육원아이들을 맡은 원장 선생의 책임이 큼니다. 원장선생,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부모없는 아이들에겐 첫째도 둘째도 정입니다. 친어머니정처럼 뜨겁고 열렬하고 꾸준한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으로 아이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애육원을 아이들의 정의 바다로 만드시오. 이것이 우리 당의 뜻입니다.》

《아, 정의 바다!》

최송련은 자기도 모르게 원수님의 이 말씀을 되뇌어보았다.

순간 커다란 불덩어리같은것이 쿵 하고 가슴 한복판에 들어와앉았다. 그것은 순간에 용암처럼 끓어번지며 온몸을 핫핫 달구어주었다. 최송련은 송수화기를 꼭 그러권채 더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 그러나 심장은 쿵쿵 뛰며 이렇게 웨치고있었다.

《원수님, 원수님의 품은 그대로 우리 원아들의 정의 바다입니다.》

자본주의나라같으면 제일 불행할 부모없는 아이들이 원수님의 품에 안겨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로 되었습니다.》

최송련은 달아오르는 가슴을 어찌할수가 없어 창문을 활짝 열어제꼈다.

밤하늘에서는 무수한 별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원아들을 시샘하는듯 깜박이며 무엇인가 열심히 속삭이고있었다.

가사

통일 이루자

채근수

반만년 이 땅에서 단란히 살아온
한겨레 우리 어이 갈라져 살라
6.15공동선언 우리를 부른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루자

백두산 즐기내려 한지맥 한강로
두동강 웬말이나 조선은 하나다

저주로운 분계선 없애버리고
삼천리강토의 통일을 이루자

갈라져 몇해이나 반세기 넘었다
이제는 더 못 참아 더는 못 참아
북남해외 모든 동포 힘을 합치여
장벽을 허물자 통일을 이루자

신발의 무게 외 1편

김 경 남

내 향시 평범하게만 여겨지던 신발
어이하여 생각은 그 신발에만 얹혀있는가
오늘계획 넘쳐수행하자
결음새 바람이는 직포공처녀들의 땀시고운 신발
하늘가에 푸른 꿈 피우며
등교길 드바쁜 대학생들의 윤기도는 신발
꽃나비 나폴대는 아이들의 귀여운 신발

원산구두공장을 찾으신 우리 원수님
다종 다양 다색의 신발들 제모습 뽐내는데
한켠레 또 한켠레
손수 무게를 달아보시는
원수님 그 모습이 자꾸만 어려와서...

저울에 오른 신발
표시판에 나타나는 수자
한초한초 바라보는 일군들 마음 조이는데
아, 신발의 무게가 꺾 가벼워졌다고
원수님은 환하게 웃으신다

그 순간 그려보셨으니
그 가볍고 땀시난 신발 신고
달빛 유정한 대동강유보도 거닐 청춘들
과학자휴양소에 들어서서 로교수들
야영기 펄펄 등산길 오를 아이들...
아, 신발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인민이 누리는 행복의 무게는 그만큼 커져서

원수님 저렇듯 시름놓고 웃으시는가
우러러 그 영상 내 다시 새겨안노라니
폭설이 쏟아지는 군항을 찾으신 원수님
함박눈 펄펄 내려덮이던 그이 신발
폭우 내려꽂히는 병영구내 걸으시는 원수님
흙탕물 툭툭 튀어오르던 그이 신발
바람세찬 건설장에 계시는 원수님
모래먼지 뽀얗게 덧쌓이던 그이 신발...
자꾸만 자꾸만 어려와서
원수님은 웃으시어도 내 마음속엔 눈물이 고이
누나

자신께서는 눈길 진창길 먼지길 가시면서도
신발의 무게를 두고 것처럼 마음쓰시던
장군님심려 기어이 풀어드려
우리 가볍고 땀시고운 신발 신고
꽃길 락원의 길 걷게 하시려
원수님 바치신 헌신과 로교의 주추돌우에
로동자들의 궁전으로 신발공장의 본보기
표본으로
솟아 자랑높은 나의 공장이며

《매봉산》 그 꽃신신고 우리 꽃길 간다 해도
원수님손 꼭 잡고 천리만리 가고갈
충정의 한마음 무겁게 실려있어
아, 신발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구나

저 켜여, 우리에게 6.15가 있다

세월 간다 6.15도 가는것이나
그날에 태어난 아이가 15살이 되고
그날에 심은 나무 15번째 년륜을 감았어도
6.15는 가지 않았다
겨레는 불덩이를 안고 6.15 그날에 산다
북남삼천리는 그날의 뜨거움으로 달아오른다

어이 가며 어이 식으랴
후대들에게 통일조국 물려주시려
80평생을 고스란히 바쳐오신 수령님
그 로고 수령님 흰머리에 얹혀있어
잠을 깨도 조국통일부터 먼저 생각해야 한다시며
통일 통일을 위해 불같이 사신 장군님

6.15선언
우리 민족끼리!
그것은 그이 심장이 뿜어올린
애국애족의 불덩이거니...

애국애족의 불덩이 6.15선언
우리 민족끼리!
그것은 미국의 염통을 폭파하는 폭탄이다
반역의 무리들 명줄을 끊는 오라줄이다

원췌는 집요하고 악착하고 교활하다
온갖 험담과 거짓 잔피로
6.15선언을 유린 모독 짓밟고
자주통일의 대통령로를 열어나가는
겨레의 통일대행진에 차단봉을 내리며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다

허나 오산하고있다 어리석다
6.15는 겨레의 피와 심장
그 한조항 한조항 한자 한자는
겨레에 대한 피더운 사랑
원췌에 대한 서리발증주의 응결체다
사랑과 증오의 그 피가

겨레의 심장에 용용히 흐른다

온 겨레 자주통일의 꿈은길에 용약 들어섰다
우리예겐 6.15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그 길의 표대 기치 이정표
그래서 그 길은 갈림길없이 곧추 뻗어있다
그 길은 우리 민족끼리 열어가는 길
그래서 7천만이 다 들어서도 좁지 않다
원쭉가 어이 그 길을 감히 막아서라

만약 미국과 줄개무리들
민족의 통일대행진을 가로막고
핵전쟁의 참화를 끝끝내 몰아온다면
강철포신들 날리는 사랑과 증오의 불줄기
미국본토를 죽탕쳐 마지막명줄을 끊어버리리
겨레의 심장속 사랑과 증오의 불덩이
통채로 미국 악의 소굴로 날아가리

조국통일성전은 미국야만의 무리와
정의롭고 용감한 우리 민족과의 성전이다
그 성전은 통일축포로 이어지려니

우리 그날에 안았던 민족사랑의 불덩이 어찌 식
었으랴
그날에 잡았던 손 그날에 터치던 통일합성
다시 굳게 잡고 더 높이 올려가며
통일의 길 막아서는 원쭉의 숨통을 끊자
백년숙적 미제와의 최후결산을 하자

보이지 않느냐 원수님 손길들어 가리키시는
자주통일의 길 저앞에
환희롭고 경사롭게 마중오는 통일된 조국
겨레여 6.15를 안고살자
우리예겐 6.15가 있다

환 호 성

오 정 로

신발이
벗겨지는줄도 모르고
엎어질듯 달려가
품에 안기고

흘러내리는 눈물
씻을념도 못하고
그이 옷자락 잡고
발을 동동 구르는 얼굴엔
눈물이 주르륵

기별도 없이
문득 다시 공장을 찾아주신
우리 원수님
한번 뵈오면 또 뵈옵고싶은
그 간절함이 터쳐올리는
저 눈물의 환호

오, 환호여
오시고오시여
힘겨운 일 없애주시고
현대화된 공장 안겨주시고

멀리 있을수록 더 가까이
상처가 있으면 다 씻어주시며
천만식솔 마지막 한사람까지 품어안는 그 정에
쏟고쏟는 눈물
심장에서 터쳐올리는 소리없는 저 눈물의 폭발

가슴을 흔들여라

흔들여라
경애하는 원수님
겹겹이 에워싸인 가슴가슴에
사랑과 정의 혈맥을 이어주시여
그이의 두리에 뭉쳐
심장으로 웨치는 만세의 환호성
하늘땅을 흔들여라

환호성이여
너는 평범했던 사람들이
크나큰 영광을 안고
높뛰는 심장의 숨결로
새로이 태어나는 고고성이다

터져오르라 환호여
그 환호를 안고
얼마나 큰결음들을 떼고있느냐
산을 옮겨 바다를 메우며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이 땅

노도쳐라
원쭉들이 핵폭발보다 더 무서워하는 환호의
물결이어
경애하는 원수님 높이 모시고
최후승리의 그날로 가는 인민의 환호여
영원한 조선의 환호여



만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리 혜 련

저쪽 되면 숨이 나온다. 마지막까지 다 읽고나서 부주필은 나의 원고에 류달리 큰 자기 손바닥을 탁 소리나게 덮었던 것이다.

만약 저 후련한 탁! 소리가 아니라 손가락들의 토닥소리가 들리면 전혀 판것을 의미한다.

《이제 빛같은 익어벼두 속살이 설었으니 서둘러 그릇에 담아내면 독자들이 먹어내겠소? 가서 밤새 슬근슬근 열을 주며 다시 뜸을 들여보오...》하기 일쑤였다.

나도 (식성도 폐롭군.) 하며 원고를 안고 도로 나온적이 여러번 있었다.

이제 분명 《그릇에 담으면 되겠소.》하고 수표할것이 뻔하였다. 수표는 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이 원고내용의 문제성에 수표했다는듯 한 말이었다.

《또 금포리가 앞장섰다는건 좋은데 물깊이를 재자면 물에 들어서야지?...》

나는 30대에 벌써 공훈기자칭호를 받은 70고령의 부주필을 바라보기만 했다.

20여년의 기자경력에 녀성으로서 도일보사 농업 부장으로 사업을 시작한 나도 이젠 년장자연할 때도 있었지만 부주필앞에서만은 항상 스승앞에 시험지를 바치는 학생의 조마조마한 심정에서 벗어 못나곤 하였다.

《저... 농사종합보도에서 금포리소식이 많은것은 사실인데 도금기관에서 자료를 빨아올 때 금포리농사에서 혁신이 일어나고있는 비결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중을 발동시킬줄 아는 진짜배기 당일군이 집단적혁신의 밀뿌리라는 말이 뇌리를 쳤습니다. 제가 그곳 리당비서를 취재하러 금포리에 내려가겠습니다.》

그 말에 젊어서는 분명 미남자의 정기를 내뿜었을 로기자의 두눈주위에 그물코같이 뒤덮인 주름살들이 더 살속깊이 퍼져가는듯싶었다. 부주필이 인자하게 미소짓고있었던것이다.

《그래, 료리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에게 밥이 기본이야. 요란한 성과자료소식보다도 사람소식이 기본이요! 잘 취재해보오.》

그의 주장이나 나의 생각이나 일치했다. 격려하는 눈빛에 사뭇 고무된 나는 고개마루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았을 때마냥 후련한 기분을 안고 방을 나섰다.

온근히 격동된 나는 우선 금포리 리당비서에게 수차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

그때마다 교환수처녀는 록음테프처럼 하나의 소리를 반복하였다.

《비서동지는 방에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세번째로 찾았을 때도 처녀는 같은 대답이었다. 사뭇 레의를 지키던 나의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높아졌다.

《동문, 성실하지 못하구만요. 내가 벌써 세번째 찾는데 그동안 자기 비서가 있음직한 곳을 알아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이 참말, 기자동지도! 내가 어떻게 그 많은 곳중에 비서동지가 지금 딱 어디에 계시는지 안단 말이에요? 뻔히 다 아시면서도 그러시네!》

원?!... 혀를 차며 나는 서둘러 송수화기를 놓아버렸다.

가만히 교환수처녀의 말을 되새겨보았다. (뻔히 다 안다는것은 또 무슨 소린가. 와서 보면 다 안다는 소린가, 깜찍한것.)

나는 인차 평흥군 금포리로 떠났다. 기차로 평흥역에 도착하니 어느쪽이 금포리인지 모르는것이 난감하였다. 그러나 기차란 발로 굴을 쓴다는 선배들의 입담이 생각났다.

길을 물으며 걷기 시작했다.

선들 산들... 들바람이 기분 좋게 불을 스쳤다.

방금 벤 벼단이 횡대로 쪽 누워있는 논밭옆을 지나가는 길손들은 싱그러운 바람이 실어다주는 구수한 벼알냄새에 코를 찡긋하며 즐거워했다.

뒤시공간가량 걸었을 때 《금포리》라는 지경표달이 나타났다.

나는 그만 푹 멈추어서며 놀랐다. 《일망무제》란 표현이 딱 들어맞을 눈썹리 아득한 논판에 벼단 하나 없었던것이다.

빈 논판에는 마른 풀대들이 한가한 바람에 머리나 감는듯 허리를 굽혔다 폈다했다. 다 가을한 들은 무료해보였지만 그래도 논두렁의 토끼풀꽃이 아기자기 피어 벌나비가 맴돌고있었다.

토끼풀꽃주위에는 큰 나비도 있지만 보라빛나는 작은 나비도 많았다. 웬 들꽃이 이리 많이 폈나 했는데 팔랑 나는것을 보고야 나비인줄 알고 손벽까지 쳤다.

그러고보면 꽃파 나비, 벌이 없는 들이란 생의 활기가 멎은듯 아주 습습할것 같았다. 한쌍의 흰 나비가 날개를 딱 붙이고 달달한 정을 나누는데... 이거, 내가 언제 나비에 빠져 들길에서 머물거릴새가 있다.

나는 농립모를 벗어 들고 부채처럼 술술 부치며 가고있는 한 농장원을 소리쳐 불렀다.

그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 고장에서 수십년을 농사지어오는데 벼단칠수를 닷새에 와닥닥 끝내기는 처음이라는것이였다.

귀문이 활짝 열리였다.

《이렇게 넓은 들의 벼단을 꺼들이자면 열흘, 보름도 모자랄텐데... 이곳 농장의 전투력이 대단합니다.》

그 농장원은 동무라고 부르기는 딱한 그런 나이 같았다. 질은 눈썹끝에도, 초리센 귀밑머리끝에도 흰서리가 앉아있었다.

《참, 이곳 리당비서동지의 손탁이 그리 세다던데...》

《손탁이 세긴요. 근데 우리 리당비서동질 아시우?》

몽툭한 아바이의 물음에 나는 겹혀히 자기소개를 하였다.

아바이의 눈빛에 정기가 돌더니 말씨가 빨라졌다.

《하긴 벼단칠수를 와닥닥 하는데 한몫 한것은 우리 리당비서동지가 직접 창안한 벼단상차기였습니니다. 열배의 능률이 났으니까요. 제일 먼 상골논의 벼는 힘들게 탈곡장에 들이지 않고 이동식탈곡기를 전개하여 탈곡하였지요. 벼가율이 시작된 날

부터 포전길에 트랙토르, 달구지, 손수레까지 늘어섰는데 장관이었습다. 리당비서동지가 직접 트랙토르를 몰고 재밭중까지 벼단운반을 했으니 우리 농장원들이 힘이 안 날수가 있나요. 벼가율이 끝난 며칠내로 벼단칠수도 일단락했습다. 허허허! 기백있게 일을 해치우니...》

그는 말을 중둥무이하더니 갑자기 두눈을 꼭 감았다.

의아해서 쳐다보는데 다시 눈을 번쩍 뜨며 힘주어 강조했다.

《그렇지, 우리 일본새가 〈단숨에〉 이 노래와 끝내 맞아떨어졌지요.》

그밖에도 그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눈을 감았다 놀란듯 뜨는 우스운 눈웃임이 있을 때마다 그는 생활의 잡다한 이야기거리중에서 중요한것을 잘 골라내어 말하곤 하였다.

《아바이, 난 리당비서동질 만나러 리당에 빨리 가야겠는데 아바인 어데로 가십니까?》

《나두 리당비설 만나려던 참인데 마침이요. 같이 갑시다.》

우리는 리당위원회로 향했다. 정문이 보였다.

(있기나 할가?)

대체로 위구심이란 근거없이 오지 않는 법이다.

한발 앞서 정문을 열고 정중정중 달려들어갔던 아바이가 터덜터덜 걸어나왔다.

《열쇠가 걸렸습다.》

이때 나는 정문옆에 세운 속보판의 글을 읽느라 여념없었다. 그러자 아바이가 옆에서 주해를 달았다.

《류다른 맞절. 아, 그전 나웨다. 그림그린 녀석이 젊게 그려서 얼굴은 이 박만출일 안 닮았지요.》

아바이의 말에 《그러니까 벼바다에 맞절했던 박만출이란 농장원이 아바이란 말이에요?》하고 내가 묻자 아바이는 또 두눈을 지그시 감았다 조용히 뜨며 말했다.

《일인즉 내가 물관리를 맡은 포전에 벼알이 쟁쟁 소리나게 영글자 벼이삭이 땅에 닿일듯이 고개를 수그리였지요. 어느날엔가 마음이 흠족하여 논배미에 들어서서 한창 벼알을 세는데 〈아, 힘들게 세지 말고 한이삭을 똑 따지요.〉 하길래 머릴 들어보니 리당비서어른이 웃고있습니다. 〈예이, 비서동지때문에 다 헛갈렸습다.〉 하고 내가 나무랐지요. 그러자 〈봄내, 여름내 물고하고 씨름하시더니 이젠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아바이야 물고마다에 거름마대를 잠그고 장마철엔 물고를 베고 자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벼이삭이 아바이에게 절을 하는것 같은데 아바이까지 벼이삭을 세느라 고개를 수그리니 글썽 먼데서 보니까 꼭 농사군과 벼이삭이 맞절을 하는것 같지 않았습니까, 허허허.》 그 말을 들으니 맘속에 뭔

쿵 하니 오는게 있습니다.

〈웁으니, 맞절을 하는게 경우에 맞구말구요. 농사군한테야 이삭만큼 고마운게 있겠나요. 이삭이 고맙지 않다면야 농사군에게 땅이 귀중하지 않지요. 이삭이 뎌 벌을 보느라면 정말 이 땅에 절을 하고싶구말구요!〉

이번엔 리당비서동지가 웃음을 거두구 정색해집니다.

다음날 보니까 〈농장원은 벼바다에 절을 하고 싶어한다〉하는 속보를 내붙였더라 말이다. 리당비서동지가 마음속에서 마음속을 오갔지요.〉

내가 아바이말이 너무 생동하여 또 다음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그의 눈썹이 이마에 뛰어오르며 입귀가 활짝 벌어지는것이였다.

《아, 저기 마침 만날 사람이 오는군!》

아바이는 마당밖으로 정동정동 달려나갔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다.

《저… 도일보사 부장동무가 리당비서동질 취재하러 왔답니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하얀 이새로 미소를 뽐으며 나에게로 다가왔다.

《먼길을 오셨군요. 내가 잘 안내하지요. 품을 들어서 우리 비서동질 잘 소개해주시시오. 참, 리당부비서 길성철입니다.》

그러니… 하긴 이쯤도 괜찮다.

길성철은 매부리코에 고수머리였다. 보니 주름발이 선 작업복바지가랭이에 찻찻이풀들이 붙은것을 내놓고는 흠잡을데가 없다. 흔히 매력있다는 평이 붙기 쉬운 규칙적인 성격같았다.

《우리 비서동지는 노상 마라손주로서 삽니다. 하루에 가는 곳, 만나는 사람을 세자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이제 만나보시면 좋은 글감이 많을겁니다. 근데 비서동지는 과장하고 취주는 글은 완전질색입니다.》

그는 고개를 외로 돌리더니 아바이에게 말을 건넸다. 《아바인 명농1호가 전기없이 돌아가는걸 보자고 비서동질 찾아왔지요? 송동무네한테 가서 비서동지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고개를 돌리는 그 틈에 나는 물었다.

《부비서동문 리당비서동지와 몇년 일했습니까?》

그는 모자를 벗었다. 고수머리짚에 손가락빳을 넣더니 슬 빗어나갔다.

《1년반입니다. 그새 내가 변했지요. 사람들은 원래 나를 부비서가 아니라 문비서로 불렀지요. 왜 그랬냐 하면 글씨 문서나 잘 다룬다고 그랬다나요. 사실 처음 당사업을 하다보니 깐깐히 쓰고 베낄게 많았는데 만들어놓을수록 만들 문건이 어찌나 늘어나던지. 정말 문서놀음에 빠지면 당일군은 웃천정이 되게마련이라는것을 푹푹히 알게 된 그런 날이 있었지요.》

그날은 우리 비서동지가 이곳에 배치된 하루후였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그때를 회상했다.

…

축산작업반 자료를 보니 부아가 났다.

《새끼마리수 3, 엄지마리수 15, 엄지 한마리 새끼낳이수 2년 5… 이견 4자야, 산자야? 더럽게는 썼군. 펜을 손가락에 끼우긴 끼웠나? 54열에는 마리를 써야지. 리당에 올려오는 문건을 이렇게 걸썩 걸썩… 오늘은 바빠서 내가 정서한다.》

새로 배치된 리당비서와는 어제 군에 올라가서 인사를 했다. 오늘 내려오자바람으로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위한 축산토대정형을 보여달란다.

길성철은 창문을 열고 선동자료를 안고 마당을 빠져나가는 축산반 세포비서를 소리쳐불렀다.

《축산— 엄지 15마리나 되는데 새끼 3마리란건 뭐요? 전번에 돼지우리에 가니 새끼가 보글보글 뿜던데…》

세포비서는 목을 빼들고 맞소리쳤다.

《아, 전번엔 중돼지, 수돼지 다 뽐으라니 그랬지요. 참, 새끼들이야 다 나뉘주었지요.》

《빨리 가서 농장세대와 비육분조들에 나뉘준 새끼마리수를 종합해가지고 오오!》

세포비서는 대강 머리를 끄떡이고 자전거우에 올라타더니 멀어져갔다.

종합한 자료를 가지고왔다.

《농장원 72세대 2~1마리씩 120마리, 작업반 7개 비육분조에 15마리씩 105마리 공급…》

아래우를 훑던 길성철은 책상서랍에서 수첩을 꺼냈다.

《2년 54마리, 1년 27마리라, 15마리가 낳아서 400마리이상 되는군. 현재 노나준게 225마리라…》라는 수찰 휘갈겨썼다.

리당비서는 그날 해동갑하여 사무실에 나타났다. 놀랍게도 축산반장과 허물없이 두설두설 말하며 들어온다. 두사람의 감은듯만듯 한 눈들로 보아 룡을 주고받는것 같은데…

《부비서동무, 내 오던 걸음으로 축산반에 들렀댔소. 부비서동무가 반장동무더러 16절지종이장을 가지고오라고 했대지요. 동무해서 같이 왔소.》

성철은 헛기침을 두번 했다. 실태를 조리있게 이야기했다.

쥐여짜면 리당이 적극 도와주어 축산작업반에 온 실행돼지우리도 건설하고 이제는 축산토대가 잡히여 엄지돼지 한마리가 두해에 54마리 즉 15마리가 한해 400마리이상의 새끼돼지를 낳았다는것, 올해 225마리는 지금 어디어디 나뉘주고 백여마리는 류실되어 대책중이라는것이다.

이때 반장의 눈에 쌍초롱이 켜지더니 길성철의 말끝을 잡아채며 빠치는것이였다.

《아니? 누가 올해 400여마리 새끼를 낳았다 합네? 원, 종이장우에서 축산이 다되면 우린 할일이 없겠수다.》

혼드는 그의 몸에서 두엄내가 물씬 풍기었다.

리당비서는 푸수하게 웃으며 만류했다.

《반장동무, 그냥 가서 두엄을 마저 쳐내시오.》

작업반장은 리당비서에게 지푸라기 묻은 머리를 깊이 수그리고는 문을 나섰다.

리당비서는 타자친 《고리형...》하는 종이장을 썩 밀더니 세포비서가 준 자료를 보자고 했다.

그 란필을 알알이, 살살이 훑고난 그는 성철의 수첩을 끄당기더니 무엇을 긋고, 쓰고 했다. 그것을 들여다보던 성철은 와들 놀랐다. 《2년 54마리》가 《2년 5산》으로 되어있었다.

리당비서의 술맑은 눈썹이 미간에 모아볼더니 석침한 음성이 들려왔다.

《내 오후내 축산반의 돼지우리를 쳐내고 새 톱밥에 발효제를 치는 일을 도왔는데 쑥쑥 빠지는 톱밥삭은것이 완전히 부식토더란 말이요. 게다가 2년에 5산을 한다니 기분이 등 뒹땃소. 동무가 잡쳐놓는구만. 부비서동무, 우에 앉아만 있지 말고 우리 래일 축산반의 돼지두엄을 쳐내는 일을 도와주며 두벌농사 방도를 의논해봅시다.》

...

길성철은 상심한 어조로 말을 뱉었다.

《그후에... 그 일이 속에 걸려 안 내려가는지 축산반장은 나를 그냥 내리떠보는 눈치지요.》

깨끗한 그의 용모와 같이 솔직한 이야기였다.

길성철은 저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리당비서동지는 지금 탁아소에 있습니다. 어제 내가 사무실사람들을 데리고나가 탁아소의 기와를 새로 이어주었는데 밤새 온 비에 일없었는지 알아보겠다며 나갔지요.》

둘이서 큰길을 벗어나 문화주택과 잇당은 갈림길에 들어섰을 때였다. 한 아주머니가 두손으로 사발을 정히 들고 살얼음 딛는 걸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원 아주머니, 사람 받겠소!》

길성철이 칼칼하게 내쏘았다. 그 아주머니가 멈추어섰다.

《애이고— 문비서로군요! 비서동질 만나려우?》

길성철은 당장 쓴 오이꼭지 씹은 상이 되고말았다.

보육원옷을 입은 여인은 고개를 흔들며 수다를 떨기 시작하였다.

《예구, 리당비서동지가 지금 우리 탁아소에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잘 본 덕에 이번에 벼단꺼들이기에서 내인들이 한몫 했대구 우릴 어찌나 취주는지. 아이들 요람이 낡았다며 다시 해주겠다고 했대우. 마침 우유공급시간이어서 한고뿌 드렸지요. 아이들걸 축내면 안된다고 찬물을 달래서 꿀꺽

꿀꺽 마시더니 요 명치끝이 말쑤다지 않아요. 그래서 얼른 집에 와서 염소젖을 가지고가던 길이에요. 자, 어서 가자구요.》

탁아소마당에 들어섰다. 그 아주머니가 먼저 문을 밀고 들어갔다. 우리도 뒤따라 들어가려는 참에 여인은 다시 우릴 받을듯이 하며 돌파서나왔다.

《안엔 없어요. 비서동지는 위생실에 갔대요!》

그는 그런 쑥스러운 곳까지 따라가려는지 뒤쪽 거리는 오리걸음으로 아이들 놀이장뒤로 바삐 걸었다.

나는 부비서를 쳐다보았다. 어찌나 뽀시다레하는 자세로 입을 꼭 옥물고있다. 사람도! 그 아주머니를 만류하고싶어 따라갔다.

《비서동지, 이 염소젖을 드십시오. 예구, 그건 저희가 합니다.》

아이들의 야외위생실지붕기와를 이어주고있는 거울진 체격의 사나이가 보였다.

아—하, 이제 보니 부비서는 어제 기와를 씌울 때 구석진 곳까지야 내가 하라 하고 방임했던 자신을 질책하며 입을 깨물었었구나.

이윽고 리당비서는 마당가녁에 있는 수도에 가서 손을 씻었다.

그 아주머니와 마주서서 염소젖을 쭉— 들이켰다.

그 아주머니가 호들갑을 떨며 말했다.

《비서동지, 비서동지! 아, 글썄 우리 집 나리가 쌍둥이를 또 뻥땃 같아요. 호호호...》

《히, 이번까지 쌍둥이를 낳으면 그 암염소에게 무슨 칭호를 주긴 줘야겠소, 허허허!》

어마나, 염소이름을 무슨 나리라고 다 짓는담. 나는 웃음이 나오는것을 겨우 참아냈다. 남의 이야기를 엿듣다 웃으면 실례되는 일이 아닌가. 이제 다사한 저 여인이 입을 다물면 리당비서를 만나게 되겠지.

나는 그 자리를 떠 앞마당에 나왔다. 툭툭! 툭툭! 급한 발동소리와 함께 차체를 부르르 떨고있는 프락프르가 마당밖에 서있었다. 그곳에서 부비서 길성철이 프락프르운전수와 말추렴을 하고있었다.

자세히 보니 아이처럼 까분다. 박수를 치다가 모자를 허공에 던지고 다시 받고 하는것이 애들짓이 아니고 뭔가. 깎은 모나무처럼 각이 난 저 사람이 어쩔? 그러더니 희한하게도 모자를 휘두르며 이쪽으로 한달음에 달려오고있다. 풋내기포수가 호랑이를 잡은 기세랄가.

성철은 배를 감아쥐고 깔깔대는 탁아소아주머니를 밀어내더니 리당비서를 안을듯이 와락 다가선다.

《명농1호가 완전성공작입니다! 아, 종합탈곡기가 와릉와릉 돌며 비서동지를 기다린답니다. 발동기도 벼깍지도 잘 탄답니다. 이젠 정전되여도 24시간 탈곡기를 돌리게 됐습니다.》

리당비서도 맞소리친다.

《동무도 덤비니 배차구만! 발동기야 돌겠지, 타겠소? 어서 가세요!》

그들은 나의 결을 꿰— 지나쳐 결승선을 본 마라손선수들마냥 달렸다. 섭섭히도 나같은건 까맣게 잊은 모양 트랙포트에 엉킴 오르더니 썩 내달아간다. 이런 경우를 두고 닭쫓던 개 울 쳐다보는 격이었다고 하던가.

내가 기가 딱 막혀 부비서의 등을 쏘아보는데 뭇다면 깨꼬한다고 의기양양히 손나팔을 붙여댔다.

《저녁에 사무실에서 다시 만납시다!》

원, 천만의 말씀! 저녁같은 소리를 다하네.

보육원아주머니에게 물으니 명농1호라는것은 종합탈곡기인데 한달째 두드리고붙이고하더니 빛을 보아 저런다는것이다.

《수리분조가 떠들썩하겠구나.》

둥— 뜬 아주머니의 입에서 말이 물흐르듯 했다.

《우리 집 나그네이름이 탁수일인데 〈석개울의 새봄〉의 노랭인가 생각지 말라구요. 종합탈곡기가 돌면야 그게 기술혁신조 핵심인 탁동무 공로지 누구 공로겠나요?》

그 녀인의 가슴에서 터진 자랑과 기쁨의 샘줄기가 내 마음도 적셔놓으며 철철 흘렀다.

《비서동지가 벌써 내게 탁동무는 농장의 보배덩이라고 귀띔했지요. 그래서 장작도 내가 다 썰테니 집일에서 손을 싹 떼구 종합탈곡기만 성공시키라고 오금을 박았어요. 아하, 제가 수양높은 마누라를 만났으니 농장의 보배덩이 됐지 절루 됐나!...》

성공이라는 말에 은근히 흥분한 나는 길가의 못난 돌에 발부리를 채이면서 수리분조쪽으로 걸음을 재우쳤다.

수리분조에 다달았다. 탈곡기소리가 났다. 이제 탈곡기앞에서 수리분조사람들과 어울려 기뻐 웃는 리당비서의 모습을 사진찍으려는것이 나의 결심이였다. 사진기를 쳐들고 탈곡기에로 다가갔으나... 찍을 주인공은 달라졌다. 찰칵!(물체는 가던 방향으로 그냥 가려 한다는) 판성의 법칙으로 샤라는 놀러졌다.

《아, 기자선생, 종합탈곡기와 나는 찍어 뭘합니까. 이번엔 늙은게 젊어보이지도 않겠군.》

탈곡기옆에서 박만출아바이가 하는 소리였다.

(아까 그냥 아바이와 동행했을걸. 원길에 들었겠지.)

《박아바이, 리당비서동지는 오지 않았어요?》

《안 오다니? 저 신발무지를 못 보우? 사람들이 저 방안에 우르르 들어갔지요.》

아바이는 신발들이 엮치고 덮치고 가득 널린 곳을 가리켰다.

《종합탈곡기가 돌아가는것을 보고 비서동지가 기술혁신조조장 송동무를 버쩍 안아올렸지요. 그다

음엔 송동무가 비서동질 덤석 업고 돌고. 저안에선 지금 둘이 붙어 팔씨름을 합니다.》

안고, 업고... 팔씨름하고... 글로 쓰기에는 무엇인가 난감해보였다.

아바이는 종합탈곡기의 투박한 몸체를 가리켰다.

《미남은 못돼두 이게 실은 리당비서동지의 창조물이나 갈수다. 제힘으로 종합탈곡기를 만들것을 당결정에 쏘아박는 세포회의를 지도한 날로 자신이 직접 기술혁신조성원이 되었지요. 설계도면도 그가 구해주고 또 기술혁신조에 무슨 부속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내게 말기오, 또 무슨 강쇠가 있어야 한다면 그건 내게 말기오 했지요. 기계공장에서 그를 우리 농장 인수원인가 했더니요. 저 벼각지를 태워 전기를 얻는 발동기도 비서동지가 어느 량정사업소에 가서 기술자료를 뽐아온거라우. 정말 신창이 닳게 뛰어다니는 사람입니다. 그의 곁에 있으면 사람들이 뜨겁게 달지요.》

리당비서에 대한 나의 신뢰는 더욱 커지였다.

《어서 만나자요.》

일단 발동이 걸리면 조급한것이 나의 성격이었다.

레의 그 신발무지곁에 나의 신발을 벗고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보니 밭상을 가운데 놓고 팔씨름이 한창이다.

한사람은 등이 보이고 한사람은 얼굴이 보인다.

응원소리로 보아 낮익은 진희색등판은 리당비서고 두눈을 질끈 감고 악을 쓰는 얼굴은 송동무 같았다.

《아이구, 비서동지가 반칙을 하지 않나 보라구!》

다급한 소리를 내지르는 송동무의 팔굽이 무너질듯무너질듯 한다.

《이마의 피줄이 너무 굵다. 혈압이 튀지만 말라구, 내가 동무 안사람에게 경치지 않게.》 양보는 안하고 말은 숙부드러운것이 리당비서였다.

결판이 났다.

《기권할텐가?》 리당비서가 물었다.

《내가 기권하면 송가가 아닙니다.》 송동무는 꿈도 꾸지 말라는듯 두눈을 불꺼세웠다.

《좋네. 이제 지면 진거야. 그땐 송가가 아니고 무슨 가인가?》

《좋습니다. 탁가로 합시다.》

꼭소가 터지는 속에 발끈하는 사람이 있었다.

《왜 하필 탁가야, 지면 탁가라니? 씨도 못 남길 말을 하누만.》

성을 댄다는것이 아까 그 수다스런 탁아소보육원의 남편의 성을 불러댄 모양이었다.

송동무는 제격 자기 말을 정정했다.

《탁동무, 좋아. 나는 허가로 고쳐 자네 아주머니를 누이로 섬기겠네. 그대신 뽐뽐한 동무가 꼭

이겨 송가를 좀 찾아주게나.》

와-하! 웃음발이 쏟아졌다.

다시 한판이 붙었다.

이때 길성철이 나를 알아보더니 다가왔다.

《기자동지, 좀 나갑시다. 꼭 보여줄것이 있습니다.》

따라서고싶지도 않았지만 성격 발은 사람처럼 알리게 놀수는 없었다.

그는 꼭 미안해하며 나를 어디론가 이끌고갔다.

나는 수리분조의 어느 한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주련이 벽면에 놓여있는 함들중 하나를 열었다.

《이것은 우리 리당비서동지의 공구함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호기심이 생기여 공구함을 들여다보았다.

뼌찌, 줄칼, 나사들개, 치차, 베어링, 각종 나사, 볼트, 나트, 기름걸레... 없는것이 없었다.

《군대때 땅크병을 했다고 늘 자랑인 우리 비서동지는 수리분조 제일 넓은 프락포르의 조수입니다. 짬을 내어 수리를 도와주지요. 새 프락포르처럼 되면 다른 넓은 차에 또 옮겨타군 합니다.》

올해 프락포르출동식때 그가 조수로 앉은 프락포르가 첫손가락에 뽑혔지요. 지금 세번째로 프락포르를 옮겨앉았습니다.》

그는 생각깊이 공구함을 들여다보는 나에게 다시 말을 덧붙였다.

《참, 수리분조 탁수일이 팔목을 다쳐 리인민병원 의사를 하는 비서동지의 집사람에게서 치료를 받을 때 샌 소린데... 군대때 땅크병을 했다는건 거짓말이라구두 하구. 좌우간 언제 배워두었는지 프락포르를 잘 뚫습니다.》

나는 그제야 리당비서가 수리분조사람들과 팔씨름을 하며 왜 저렇게 잘 어울리는지 이해되었다.

프락포르를 정비하고 종합탈곡기를 만들고... 그때 여기서는 누구나 리당비서를 기다리며 손잡으며 한해를 일해왔겠구나. 고락을 나눈 전우였기에 서로가 닝큼 업어주고 안아주고 했을것이다.

피득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흔히 신문들에는 큰 도면을 들고 멀리를 가리키는 일군이러든가 책을 들고 대중앞에 손을 펼치며 연설하는 일군의 사진이 즐겨실리군 한다.

아까처럼 대중속에 묻혀 혁신자와 팔씨름을 하는 당일군의 모습은 신문에 나본적이 있는것 같지 않았다.

상이 번개쳤다. 독창적인 사진작품이 될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나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무슨 다른것을 자꾸 내보이는 길성철에게는 《잠간만!》이란 말을 남기었다.

그런데 그쪽의 문이 활짝 열려있고 사람들이 여겨지기 나와섰는데 무슨 난사가 더진것 같았다.

한사람이 신발을 량손에 쥐고 맨발로 마당에까지

나오며 소리친다.

《젠장, 누가 바꾸어신었소? 어랍쇼! 안 나서면 더 좋아!》

송동무였다. 모두들 장난꾸러기같은 웃음을 베풀며 묵묵하고 서서 한마디씩 시카스르고있다.

《필사적으로 송가를 고수하니 새 날개가 돋는 격이군.》

《발이야 뭘라 하나? 손이 신겨주면 신게마련인데...》

《에라, 신는다.》

송동무는 낫선 신발을 신었다. 그러고서도 뭐가 안심찮은지 자꾸 내려다본다.

이때 아바이가 다가와 나를 툭 건드렸다.

《참, 만나보셨수? 이자 비서동지가 경운기를 타고 나가던데...》

나는 다리뭉이 매시시 풀리는것을 느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요즘 애들의 날말대로 한다면 《호비》처럼 일도 꼬이는셈이다.

박아바이는 은근히 나의 귀가에 말자루를 풀었다.

《부장동무, 저-기서 떠드는 송동무의 신발바편 래력은 내가 알지요.》

그가 혼드는 말주머니에 나는 혹했다.

《어떻게요?》

《리당비서동지가 왜 팔씨름을 했는지 아시우? 아까 비서동지가 송동무의 신발끼진것을 보고 또 보더군요. 그냥 벗어주면 면구해하겠지 하니 우정 물고들어가 팔씨름을 하구는 바꾸어신고 간지우다. 내 눈은 그속을 뻔히 들여다봤지요. 아까 가는걸 보니 발가락이 나와 발을 오무리는게 불편하겠드라고요.》

나는 속에 무엇이 쿵! 떨어져앉는것 같았다.

아, 이런 사람을 누가 따르지 않으랴.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자고 호소해도 다 따라서고싶을게다.

《그가 간 곳을 또 따라가야겠어요.》

아바이는 나에게 뒤눈질을 하였다.

《부비서동무가 저기 오는데...》

나는 더는 《안내원》을 원치 않았다. 아까만 해도 그렇다. 나를 반가운채 끌고 나오지만 앉았어도 이런 맹랑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것이 아닌가.

그러거나말거나 길성철은 나에게 바투 다가왔다.

《내 아까 비서동지에게 피득 말을 했는데 바빠서 그러니 나더러 잘 방조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만 단념해야 할겁니다. 60리나 넘는 일자봉분교에 갔으니깐요.》

《분교예요?》 나는 놀라며 물었다.

길성철은 손수건을 꺼내여 이마에 뽁뽁 자꾸 내돋는 땀을 닦았다.

《원래 내가 가야 하는데지요. 실은... 내가 갔댔

지요. 작년에 농장에 양, 염소방목장이 서고 방목 공자녀들을 위한 분교가 있는데 리당위원회가 그 후원을 맡았습니다. 그해 이번에 분교에 생한 철봉대를 마련해주었습니다. 리당비서동지가 나더러 트랙포트에 실어다 운동장에 꼭 세워주고 오라고 합니다. 분교라는게 등판우에 있는데 트랙포트가 올라갈턱 있나요? 그해 산밑에다 부리워놓고 나왔지요. 교원보고 올려가라면 되지 하고 타산했지요.》

사실 일꾼들이 그쯤 도와주어도 괜찮게 평가되는게 아닌가고 하면서 길성철은 그때일을 이야기했다.

...

새 철봉대를 세워주니 애들이 좋아하더냐, 운동장 어디바루에 세웠느냐 오지꼬지 따지던 리당비서는 대노하였다.

《동무는 당규률이 뭔지 아오? 왜 당조직의 지시를 열렁뚱땅해치우오?》

길성철은 속이 요글요글해났다. 마음안에서 울퉁불퉁 뿔이 치미는것이였다. 그 《울퉁불퉁》을 끝내 자기 견해라는 모태에 올려놓고 결패라는 도끼로 짝 쪼개보이고야말았다.

《까놓고 말합시다. 비서동지! 아, 우리도 할일이 산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래사람들은 너무 앞질러가며 도와주면 고마운줄도 모릅니다.》

리당비서는 광— 책상을 치며 벌떡 일어났다.

《이제 보니— 우리도 할 일이 산갈다구?! 좋소, 오늘은 나와 어디 톱 터놓고 말해보지요. 동무는 누구 잘못을 료해해오라구 하면 아주 열정적이지요. 간간히 자료를 종합하고 〈자격정지, 검토〉라고 쓰기를 좋아하오. 그게 산갈다는 우리 할일이요? 동문 전번에 가독골다리를 보수할 때 책임지고 나갔지만 후에 형식적으로 세운 그 다리때문에 종족마을사람이 상했단건 알고있소? 그것두 우리 할일이 아닌 남의 일이어서 손이 시렸겠소?》

처음 보는듯 한 놀라운 눈길들이 허공에서 부딪쳤다.

리당비서는 목깃을 여느라 단추를 두개나 틀었다.

《사람들이 동무가 아래단위로 가느라 오토바이를 몰고 질주할 때 뭐라는지 아오? 맨날 뛰는데 도움되는것은 쥐뿔도 없고 자기 발등의 불을 끄느라 산다는거요. 당일군이 왜 이런 소리를 듣는가. 사람들의 애로를 짝 외면하기때문이지.》

길성철은 몸을 떨었다.

리당비서의 목소리는 낮아지였지만 의미는 호수처럼 깊어졌다.

《잘 생각해보오. 길동무, 기름과 물은 우아래로 갈라지면서 섞이지 않소. 관리와 인민은 기름과 물이요. 때문에 동무나 나나 판료화 즉 기름처럼 등

등 떠서 일해서는 안되오. 속에 물로 흘러들어야 하오! 바로 사람들에게 목마를 때 생수사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여야 한단 말이지요. 내가 일자봉분교에 철봉대를 세워주고오겠소. 동무도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일감을 찾아보오!》

...

술직한 성격인 그가 마음속에 피로움을 안고 모대기는것이 알리였다.

이때 나는 꼭 알고싶은것이 있었다. 그의 마음속 아픈 곳을 다시 건드리는것 같은 질문이 아닐는지 망설여졌다. 그러나 알고싶은것을 묻지 않고서야 무슨 기자인가.

《저... 부비서동무, 지금까지 일하면서 비서동지에게서 반드시 본받고싶은것, 말하자면 부비서동무에게 가장 교훈적인것을 좀 얘기해주세요.》

그는 입술을 감쳐물었다가 단호히 말을 시작했다.

《우리 비서동지에 대해 잘 알게 하기 위해서도 내 오늘은 톱 털어놓겠습니다. 나는 제대로 당학교를 다녔습니다. 경력도 좋으니 당일군 자격증을 쥐었다고 생각했지요. 나처럼 종이자격증을 쥐고 당일군이 다된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회각계에 일꾼들이 많지만 당일군만은 자격증을 가지고 일할수 없다고요. 민심이란 목마를 때 우물을 파주는 사람을 따르지요.》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강구었다.

《현실을 모르면서 축산반장아바이를 겹다고 한것은 그래도 약파입니다. 다른 한가지 내 잊지 말아야 할 교훈적인 일이 있지요. 지난해 장마때 5만쪽의 큰 나무다리가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그해 다리보수조를 무었는데 책임자는 앞채를 메는 실천가형의 초급일군이였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동원시켰지요. 어차피 건너 못 갈거니까 사람들은 다 옷등을 벗어붙이고 통나무며 막돌을 날랐는데 한사람만이 시뻘뻘해서 앉아있었지요. 왜 앉아만 있느냐 물으니 그가 이런 썩은 다리를 난 안 밟아 했단나요. 자네 펍 흐린 사람이야, 이제 다리가 다 보수되면 날아다니라구 하고 책임자가 한마디 쏘아주었다는데 그의 목깃을 제 먼저 잡아쥐었지요. 그러고도 우에다 안면을 내세워 계속 신소했지요. 그후 그의 친척되는 한 일군이 내리먹이는 바람에 나는 다리보수 책임자에게 자격정지책벌을 주었지요.

그때 다리를 새로 세운 애국자를 책벌준다느니, 기름취같은 놈만 고소하게 했단느니 뒤말이 돌았습니다. 우리 일꾼들이 나처럼 제 보신을 위해서 사람문제를 맹목적으로, 실무적으로 대한다면... 군중은 우리를 피합니다.》

길성철은 목이 타는지 입을 다물었다.

《비서동지는 그 일을 아십니까?》

《강습갔을 때 일이어서 몰랐습니다. 리당비서 동지가 돌아왔을 때 그 신소자가 고급담배를 가지고와 알랑거리는데 눈썹이 시였지만… 내 말했지요, 이번 제기된 사건은 좀 여론이 있지만 상급의 의도대로 처리했다고. 낯색이 변한 비서동지는 군중속에 들어가 료해를 하더니 다음날 리당에 두명을 다 불렀습니다. 다리공사 책임자는 얼굴이 벌에 너무 타서 땅색과 구별 안되게 새까만데다 손가락마다 붕대를 감았지요. 반대로 신소자는 하야말쑥하고 기름취갈았습니다. 비서동지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도에 있는 일군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문고리를 먼저 잡는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번에 골짜기의 사태막이를 하고 여섯개의 다리를 다 보수한 다리공사 책임자를 표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량심을 버리고도 부끄러운줄 모르는 사람은 단련을 좀 시키겠습니다. 양, 염소방목장 풀판조성을 위한 돌격대에 보내겠습니다.》

《뭐요?! 그 사람이야 양봉공이 아니요? 동문 왜 원새끼를 꼬요?》

《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의 물과 공기를 마시는 이상 앞으로 산불이 나면 제일먼저 뛰어가 끌줄 아는 인간, 다리가 무너지면 돌맹이 하나라도 고여야 량심이 편해하는 인간이 될 때 나는 그를 업고 다니래도 다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향땅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도 기고만장해하는것을 묵과한다면 그 후파를 생각해보았습니까?》

그쪽에서 〈동문…〉하고 버르더니 송수화기를 놓았지요. 비서동지는 전신이 긴장해진 신소자에게 오금을 박았습니다.

〈이보오, 나라란 판게 아니요. 개개의 도로와 다리, 마을이 모여 나라를 이루오. 후대들이 대대로 살아갈 이 땅을 위해 한번 자기 땀을 흘려보오, 얼마나 즐거운가.〉

그들을 내보내고나서 비서동지는 내게 말했습니다.

〈…난 이렇게 확신하오. 사람이 당정책과 어긋난것을 보고도 맹종맹동하면 옳고그른것을 분간 못하게 되고 실무화된 감정도 없는 일군으로, 나중에는 역적으로 떨어진다고 말ियो. 력사의 교훈이 없었소? 이 땅을 위해 제 몸을 아낄줄 모르고 헌신하는 애국자들을 적극 찾아내고 끝까지 내세우는것은 바로 당일군들의 본분ियो. 난 작두날에 올라 선대도 일하는 사람을 사랑하겠소. 책임지겠단 말ियो!〉

난 그때 비서동지앞에서 몸둘바를 모르겠더군요.

〈이 믿음을…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눈물이 글썽해지던 그 사람이 생각나 나도 모르게 앞이 흐려왔습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파의 사업이

란 불같이 뜨거운 인간만이 할수 있습니다.》

나는 방금 받은 충격에서 한동안 헤어날수 없었다.

리당비서는 정말 얼마나 훌륭한 당일군인가.

일군들은 선렬들이 목숨으로 찾고 부모들이 살점같이 여긴 사회주의대지, 대대손손 살아갈 이 귀중한 땅을 위해 진한 땀을 바치는 사람들을 언제나 사랑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하여 손에 기름을 묻히고 흙물에 신발을 적시면서 농장원대중과 늘 어울리는 당비서의 그 인자하고 대범한 모습에 길성철은 자신을 비취보며 부끄러움을 금할수 없다는 것이었다.

길성철은 옷자락앞섹을 꼭 맞추며 말했다.

《나같이 맞추기형일군들이 감정과의 사업을 무시하고 일 많이 한 사람을 가슴아프게 하지요. 나같은 당일군이 열이면 뿔하고 백이면 뿔하겠습니까.》

너무 솔직한 그의 말에 감복이 되어 나는 그를 위로하고싶어졌다.

《어떤 일군들은 원칙의 손전지로 남들만 비쳐보지요. 자기자신을 비쳐보며 질책하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길성철은 고개를 가로젓더니 말하였다.

《나는 멀었습니다. 우리 비서동지가 일자봉분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바빠나서 정 그러면 내가 다시 가겠다고 만류했었지요. 그는 내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한쪽손바닥을 펴더니 다른 손을 주먹쥐여 도장을 찍듯이 내리눌렀다.

《우리 리의 사람들은 나의 생명이나 갈소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애로를 외면하고도 회의, 포치, 장악 하며 할일이 산갈다고 생각하던 나의 〈바쁘다담백〉이 마음속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충격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목이 잠겨왔다. 생명! 얼마나 열렬한 말인가.

요즘 많은 일군들이 시간을 생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인민을 자기 생명으로 여기는 고결한 그 정신세계는 길성철에게 당일군이 되기 전에 참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인생철리를 뜨겁게 새기여 주고있었다.

취재길에 나서보면 우아래를 능란히 맞추느라 하루가 드바쁜 일군들이 없지 않다. 또 계획계획 하면서 수자채우기에 만족해하는 일군들도 있다.

허지만 아래사람의 신발끈진것을 보면 못을 밝은 듯 아파나 자리를 뜨지 못하는 그 마음이, 야외위생실 사소한 구석에도 비가 썰세라 넘려해주는 친정아버지같은 웅심깊은 그런 마음이 없다면 누가 그 일군을 늘 만나고싶어하며 따르겠는가.

길성철과 나는 헤어졌다.

나의 머리에는 사진처럼 새겨졌다.

당일군의 진정 바쁜 모습은 인민에게 헌신하는 그 모습이라고.

회의, 연설, 훈시... 그의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팜호르는 모습을 볼수 없다면 자리는 지키며 있어도 필요하지는 않는 일군인것이다, 끝부러진 송곳처럼!...

자고로 간신의 《지혜》로운 혀는 귀가에 기름둘게 하고 총신의 지혜로운 팔다리는 이 땅을 기름둘게 한다.

나는 어지간히 지쳤지만 이 땅을 기름지게 하려는 그런 진심을 가진 인간을 만나고싶어 또 떠났다.

농장 양, 염소방목장까지 60리길을 걸기도 하고 지나가는 차를 잡아타기도 하였다. 그다음에는 대자골이라는 물이 철철 흐르는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야 했다. 골짜기는 오를수록 더 가파로워졌다. 바로서면 뒤로 벌렁 자빠질것 같았다. 기어올랐다.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이 아니었다라면 짜장 큰일날 골짜기였다.

(이런 곳이니 부비서가 철봉대를 메고 오르는것을 기권했겠구나. 정보로만 걸어서는, 명예만을 바라고는 못하는게 헌신이야.)

나는 오르고올라도 끝이 없을상심은 그 골짜기를 뚫을 때 너무 힘들어 절음마다 구호를 웨쳤다. 목에 겨불내가 날 때 의지를 내게 준것은 그 구호였다.

40줄에 선 너인에게는 좀 당치않은 구호여서 내놓고 말하기는 참 무었하다.

나는 《팡크병이 되자!》, 《팡크병이 되자!》 이런 구호를 불렀던것이다. 모두들 킁킁 웃지나 않는지?

사실은 군대때 팡크병을 했다는 리당비서를 그려보았다. 그가 정말 팡크병이었을가?

나는 천신만고하여 골짜기를 뚫고 등판에 올랐다.

하늘아래 언뜻 별이 펼쳐졌다. 멀리 염소떼가 보였다.

애어린 황철나무로 바자를 둘러친 학교가 손안에 놓인듯 보였다.

학교운동장에 들어섰다. 나무로 만든 철봉대가 뽕히고 철판으로 만든 새 철봉대가 서있었다.

그걸 보는 이 학교에 자식을 둔 어머니들의 심정이 어떠했으랴.

나는 학교옆에 조금 떨어져있는 살림집문을 두드렸다.

《일자봉분교 선생님집이 옳습니까?》

문을 여니 정지목과 구들이 러쳐진 집안에 내외가 앉아있었다.

《저... 난 도일보사에서 왔습니다. 방금 여기로 온 리당비서동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경을 낀 남자가 울방자를 틀었던 무릎을 세우

며 《그런데 비서동지를 만나러 여기까지 온단 말입니까?》하고 놀랐다.

나는 사연을 다 말할수는 없었다.

그 교원은 채 타지 않은 담배를 비벼끄며 정색해졌다.

《기자동지들의 현실취재도 험치는 않습니다. 감기도 땀군다는 이런 아스피린고개를 다 올라오다니요?》

나는 그의 허심한 말에 웃으며 궁금한것을 물었다.

《비서동지는 또 어데 가셨는가요?》

그는 자기 안해를 홀깃 쏘아보며 나에게 탄식조로 말했다.

《기자선생, 흔히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한 다음에는 반쯤 감으라 했지만... 우리 집 부엌에 이런 인식없는 아낙네가 설 줄이야.》

안해는 나에게 먼구스런 표정을 지어보였다. 내가 웃으며 눈길을 주자 그는 하소연했다.

《일두 어쩌면... 리당비서동진 우리한테 정치적 생명을 보증해준 사람인데 어떻게 밥만 하겠나요. 찰떡을 쳐 대접해야 직성이 풀리겠더라니... 얼른 아꼈던 찹쌀을 씻어 떡보에 앉혔지요. 그 바람에 밥을 한다는 생각을 잊었지 뭐예요.》

떡보를 들어내고 떡을 치자 하니 밑부분의 쌀은 그냥 생쌀이어서 내외는 몸돌바를 물랐다는것이다.

리당비서는 볼이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교원을 늦추고 안사람을 안심시켰다.

《일없소. 떡은 먹은거로 치면 되지, 나는 강냉이국수를 좋아하니 그거나 한그릇 주오.》

아침에 데쳐놓은 강냉이국수를 달게 들며 리당비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나는 낮이나 밤이나 잊혀지지 않는 장군님의 모습을 생각하곤 하오. 선군장정의 길에 계시던 어느날 락엽이 내려앉은 너럭바위우에 점심점 저녁삼아 소박한 도중식사를 차려놓았을 때... 나는 오늘 이 밥을 들만큼 인민들을 위해 일하지 못하였소라고 하셨다는 우리 장군님의 그 헌신의 이야기를 말ियो. 우리 일군들중 누가 끼때가 되면 자신에게 이 밥술을 들만큼 사람들을 위해 일을 했는가 하고 자책한적 있단 말ियो? 내가 조그만 일을 하고도 생색을 낸다면 한평생 자신을 헌신해오신 우리 장군님앞에 죄를 짓는 행동ियो.》

리당비서는 인차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 더했다.

《나도 오금이 쑤시고 힘들 때도 있소. 그러나 일없소. 팡크의 조종간을 잡으시고 질주하시던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을 생각하면 힘이 배로 솟소!》...

나는 그때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듯 짜릿해왔다.

두눈을 꼭 감았다.

(땅크병출신이란 그런것이였구나!)

매혹과 흡모는 그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열정의 불길을 지펴주고있는것이다. 나는 조용히 교원에 게 물었다.

《비서동지가 또 어디로 떠나셨습니까?》

《일자봉에 올라갔지요. 이제 그곳에서 일을 보구는 그너머로 떨어지면 이웃군인데 그곳에 가서 우량종 양, 염소를 가져와야 한단나요. 앞으로 일자봉아래로 사도를 놓고 우유와 고기를 실어내릴 우리의 리상이 회의문건에 2년째 남아있는데 발퍼고있을 새가 없다고 하면서 먼길의 첫걸음을 떼듯이 가볍게 걸어갔지요.》

그의 안해는 나의 두손을 절절하게 잡아흔들었다.

《이런것을 신문에 꼭 내주세요. 우리 비서동지가 일자봉에 왜 올라갔는지 하는것 말이에요. 그곳에 사철 솟는 담수가 있는데 그 물을 이곳에까지 자연수로 끌어주겠다고 방목장책임자와 같이 갔습니다. 우리가 왕복 5리씩 다니며 수질이 좋은 음료수를 길어먹는다는것을 알고 발길이 안 떨어진다고... 우리 세집의 생명수를 위해 그 먼델... 정말 천부모라도 이렇게 인정넘치게 보살필수는 없을거예요...》

그의 말끝은 물기에 푹 젖었다.

문득 길성철에게 한 리당비서의 말이 뇌리를 찔었다.

당일군은 사람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던 그 말이 흥벽을 세차게 두드렸다.

생명수, 속담에도 《오래 살려거든 수도꼭지를 물고있으라.》 했다.

그만큼 우리 몸의 60억조남짓한 세포는 수분으로 충만되어야 하고 피속액체성분인 혈장의 90프로도 수분으로 되어있다. 알고보면... 우리 육체는 그속에 물이 흘러들어야 산다. 우리 몸안의 혈관과 림파관의 총 합친 길이는 실로 20여만키로메터나 된다고 하니 그 길고긴 물의 흐름이 생명활동이 아니라.

가령 우리결에 저런 진짜배기 당일군이 없다면 물없는 사막에서 사나 무엇이 다르랴.

그래서 사람들은 긴장할 때, 초조할 때, 성이 날 때, 눈앞이 캄캄할 때 당일군을 늘 만나고싶어한다. 그러면 사막에서 한고뿌의 물을 마실 때마냥 마르고 탄 마음은 안정되고 신경질이 적어지고 눈앞이 확 트이며 일에서도 능률이 나는데이다.

특히 생명수, 그 물이 몸에 쌓이는 로페물을 깨끗이 씻어주기에 생명은 더 활력을 가지는것 아니라.

저 리당비서의 헌신하는 순박한 모습, 이 땅을 살지우려는 리상, 진취적인 사고방식은 길성철과 나를 포함한 사람들의 마음에 잠재해있는 천편일률식, 낡은 틀을 불안고 놓지 못하는 경직된 사고, 말

공부질, 보신주의 등 우리의 집단주의세계에 쌓여서는 안되는 로페물을 씻어버려주고있다.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라신 우리 원수님의 사상에 불타 자기 단위 사람들을 생명처럼 여기는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당일군은 목마른 사람이 생명수를 찾듯 늘 만나고싶은 사람이다. 그런 당일군은 만날수록 힘이 난다. 우리 당의 모든 의도가 인민을 위한것임을 속속 알게 되고 그것을 눈물겹게 새겨안은 사람들속에서는 집단적혁신이 계속 일어 온 나라에 좋은 소식이 아니, 좋은 마음이 넘친다.

그렇다, 그 마음들에 봄시위마냥 넘치는 《로동당만세!》의 열화같은 감정은 땅을 밀고 돌아난 봄썩처럼 폭풍도 날려보낼수 없는것이다.

×

다음날 아침이었다.

길성철에게서 오전 첫시간에 리당에 오면 리당비서를 만날수 있다는 전갈이 왔다. 나는 봄새벽같이 산뜻한 기분으로 리당위원회로 향했다.

...

꾸밈도 없이 가식도 없이 진정을 더칩니다

...

《내 심장의 목소리》노래를 절절히 울리며 마올로 떠나는 방송선전차에 손을 재게 흔드는 사람이 리당비서가 분명했다.

저기 현관문앞에서 길성철이 반갑게 손짓했다.

바빠 걷는데 나보다 더 바쁜 사람이 나를 밀치며 앞으로 쭉 나갔다.

《비서동지이!》

허리구부정한 늙은 녀인이 손발이 어데 놓이는지 모르게 뛰어가며 소리친다. 리당비서는 바빠 그에게 마주 갔다.

나는 그때에야 정면에서 리당비서를 톡톡히 보았다. 땅처럼 꺼멓게 탄 넓은 이마에서 술진 눈썹이 자주 움썰하고 그때마다 두툼한 입술이 가식없이 열리고있었다. 류달리 마디굵어보이는 손은 땀내, 거름내가 푹 배인듯 한 진회색작업복단추를 단단히 채우고있었다. 꼭 끈을 조여맨 새 로동화에는 벌써 진흙이 발린것으로 보아 새벽걸음을 한것 같았다. 낡은 송동무의 신은 다 꺾트렸겠지...

낯을 쥐면 농장원과 헛갈리기 쉽고 트랙토르를 몰면 농장운전수로 그냥 보일 그런 사람이였다.

《이거 흰 독이 새 독을 치는거 아니요?》 하고 병색이 도는 그 늙은 녀인이 풀썩 주저앉았다.

리당비서는 쥐고나온 종이를 길성철에게 들려주었다.

《박만출아바이가 맹장이 터져 위중하대오. 내내

항생제를 맞으며 삭이었는데 논머리를 너무 베고
갔소. 내가 병원으로 가야겠소. 자, 정갈이 어머니
도 장기환자인데 가서 몸을 돌보십시오. 이제 아바
이를 본래대로 뿔뿔 뿔게 하지 않으리요. 내가 가
서 수술립회를 서겠습니다.》

리당비서는 어디론가 뛰어갔다.

이제 순간도 지체없이 환자와 불같은 인정을 실
은 차는 군인민병원으로 살같이 달릴것이다.

길성철은 리당비서를 또 만나지 못한 나를 보고
자기 불찰처럼 미안해하였다.

나는 부비서에게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말했다.

《아니, 난 이미 그를 다 만나보았어요!》

리명식이란 이름 석자보다도 당일군이란 이름 석
자가 생명수같아서 누구나 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이었다. 대중의 마음속에서 마음속을 오가며 바람
과 별에 그슬린채 신창이 다 닳도록 뛰는것을 락으
로 아는 사람이였다.

나는 한생을 땅에 절하고싶은 심정으로 일해온
박만출아바이의 생명이 마음놓이였다.

리명식리당비서를 끝내 만나지는 못했지만 사람
들의 마음길에서 그를 수다히 만나보았기에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본사로 향하였다.

진정 무거운 이삭이 있어 이 땅은 절하고싶도록
한없이 귀중하다!

군위부대들의 군기앞에서

최 향 일

무엇을 말해주느냐

그 무엇을 새겨주느냐

전승기념판에 소중한 전신된

군위부대들의 군기들이여

바라보면 기폭에 비껴오누나

돌격전의 앞장에서 원쑤무리 쳐부시며

남으로 폭풍쳐내달던 철의 노도

불사신마냥 목숨바쳐 싸운 군위병들의 모습

조국의 하늘 땅 바다를 지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용사들 위훈의 그 자욱

저 군기들에 어러오누나

수령님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하리

그 신념 드높이

전승의 날을 그려보며

원쑤의 화점 가슴으로 막고

적의 땅크를 맞받아간 용사들

천이더나 만이더나

수령의 부름따라

질풍처간 멸적의 길 얼마며

승리의 만세 높이 울린

고지는 또 얼마였던가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기적을 창조한

영웅부대들의 그 위훈 청사에 빛내주시려

우리 수령님 몸소 제정하시고 수여해주신

군위부대들의 군기들이여

그 이름만 들어도 원쑤들 공포에 떨던

용감한 군위부대들

이 군기 용맹의 나래인양 힘차게 휘날리며

승리자의 존엄과 영예를 떨쳤거니

전승의 축포 터져오르던 경축의 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대원수님의 사열을 받으며

미제의 항복서를 밟고 열병광장 행진해간

군위부대 영광의 대오들앞에

힘차게 휘날린 군기들

우리에게 말해주고있구나

수령님따라

장군님따라 백승의 한길 걸어온

오, 선군승리의 자랑찬 력사

오늘은 최고사령관동지의 손길아래

승리에서 승리로 빛나게 이어지고있다고

승리에서 승리로

그 위훈 전설처럼 펼쳐온 군위부대들

수령결사옹위 조국결사수호정신을

대를 이어 억세게 이어가라고

우리 심장 뜨겁게 불태워주누나

가리라 성스런 군기앞에서

결사의 맹세 다진 우리

백두의 선군령장 명령 내리시면

날강도미제의 성조기와

추종세력들의 기발을 걸레짜처럼 만들며

원쑤들 씨도 없이 격멸소탕하리라

축포오르는 조국통일광장을

군위부대 군기들로 가득히 채우리라!

1950년 그날처럼

장 명 길

강토에
사람들 가슴에
오랜 세월 삭지 않는 파편을 뿌린
50년대의 6.25...

해방덕을 누리던 사람들이
그 전쟁을 바랐던가
난생처음 제땅을 가져본 농민들이
공장의 주인되어 활개치며 일하던 노동자들이
월사금을 모르고 학교가는 자식들을
눈곱젖어 바래우던 아버지 어머니들이

매일은 일요일이라
무지개같은 휴식계획들을 안고
단잠에 들었던 사람들
소스라쳐 꿀잠을 깼 6월의 그날부터
3년세월 포화속에서 살며 싸웠거니

누구도 원하지 않은 전쟁
허나 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파헤쳐진 분여지에서
무너진 공장에서 학원에서
공화국의 주인들 다투어 전선에 나갔다
차지 못한 나이는 불구어가며...

반만년세월 비로소 안겨산 인민의 세상에
불비를 쏟아붓는 침략자를 맞받아
모두가 싸웠다 전선에서 후방에서
인민군전사들 조국의 한치땅을 피로써 지켰고
남정들이 비운 자리 녀성들이 메웠다
아이들도 투쟁의 대오를 지었다

부족한것이 많아
피도 많이 흘린 전쟁이었어도
얼마나 고귀한 전통이 마련되었던가
말하라 조선의 땅이여 바다여 하늘이여

결사의 전민항전으로 미제를 타승한
승리의 전통을! 백승의 력사를!

하늘을 뒤덮었던 미국놈비행기도
화학탄도 세균탄도 원자탄도
수령님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의 힘앞에서
미제의 운명을 구원하지 못했거니

오, 위대한 전승의 년대
전쟁의 불을 지른 도발자가
보총도 푼푼치 못했던 조선에
무릎꿇고 항복서를 받쳐올릴 때
세계엔 어떤 진동이 일었던가
이 나라의 승리자들
어떤 진리를 력사에 아로새겼던가

우리는 이렇게 전쟁을 기억한다
언젠가는 닥쳐올 최후의 성전
아마도 50년대의 그 새벽처럼
불시에 맞을수도 있으리
허나 조국통일대전의 그 시각이 오면
조선은 또다시 거인처럼 일떠서리라
미국의 항복서가 필요없는 싸움에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채 들어내는 싸움에

자주적인간이 소원하는 만복넘친 생활을
눈부시게 가꿔가는 창조의 세계에
더는 전쟁이란 말이 파편처럼 뛰어들지 못하게
승리자의 후손들 복수자의 후손들
50년대 그날처럼 일떠서리라

이제는 전쟁을 겪은 세대보다
후손들이 더 많아졌어도
불굴의 정신은 길이 남아 이어져
누구도 전쟁을 두려워 안한다
미제가 아무리 발광을 해도
승리는 영원히 우리의것이기에!

그들은 신입병사들이였다 외 1편

김 광 호

1950년 6월 25일

미제가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지른 그날
이 나라의 평범한 국민들은
저저마다 군복을 입고
신병훈련도 받지 못한채
가렬한 전선으로 나갔다

아직 대렬동작도 익히지 못했건만
상관의 명령을 조국의 명령으로
심장으로 엄숙히 받아들일줄 알았고
무장강행군의 극한점을 어떻게 넘겨야 하는지
한번도 체험해보지 못했건만
완강한 의지로 극복할줄 알았다

아직 전호를 왜 깊이 파야 하는지
한삽의 흙이 백발의 적탄을 막는다는것을
다는 알지 못했던 그들이였건만
다시 또다시! 깊이 더 깊이!
지휘관의 높은 요구성에
손바닥에 물집이 터져도 집행할줄 알았다

아직 조준훈련도 충분히 하지 못했고
목표판에 실탄 한발 날려보지 못했건만
전투들에선 총탄 한발 한발에
가증스러운 원수 한놈 한놈씩
불타는 증오심을 안고
어김없이 쏘아죽일줄 알았다

전쟁의 처절함에 너무도 익숙되지 못한
책상물림의 애송이들이였고
총보다 마치고 낮이 더 손에 익은
로농청년들이였건만
진정한 삶의 품 조국결사수호전에

용약 펼쳐나선 그들!

이런 신입병사들이
3일만에 피뢰아성 서울을 점령하였다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
대전해방전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전쟁이 일어난지 3달도 채 못되어
락동강까지 진격하였다

이런 신입병사들이
바다에선 어뢰정으로 적중순양함을 격침시키고
세계해전사의 한페지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하늘에선 프로펠라비행기로
날아다니는 미제의 공중요새들을
가을의 락엽으로 만들었다

이런 신입병사들이
전쟁 3년만에는 용맹한 싸움군
분대장이 되고 소대장이 되었다
가슴팍에 훈장 번쩍이는 위훈자
온 나라가 떠받들고 온 세상이 다 아는
전투영웅이 되었다!

아, 그들은
비록 신입병사들이였어도
수백년의 침략사를 승전으로 자랑해온
날강도 미제 최정예부대들과의
무자비하고 엄혹한 전쟁에서
언제나 련전련승만을 떨치고
마침내 위대한 전승을 이룩하였거니
오, 조국앞에 위기가 닥쳐온
1950년 6월 25일 그날부터
그들은 벌써 신입병사가 아니였다

병사의 배낭속에 축구화가 있었네

애꿎게 기다리던 습격조
마침내 돌아온 아침
지휘관도 병사들도 말없이 빙 - 둘러섰네
습격전에서 희생된 한 전우의 배낭앞에

그 병사의 배낭속엔
야전밥통이며 물통
누구에게나 다 있는 사품들과 함께

한켠레의 축구화 축구화...

해방전 소년시절에
고삭은 삼작문안 마당가에서
허기진 배 그러쥐고 누가 볼세라
짚신신고 새끼공차던 그

해방후에야 난생처음 축구화신고

희망의 공 높이 뛰어올리며
학교팀 구락부팀 유명한 공격수로
경탄속에 맹활약하던 그

가슴에 품은 축구희망
구슬땀 뿌리며 꽃피워가던 운동장에
미제의 까마귀떼 줄폭탄 던진 그날
용약 축구화를 군화로 바꾸어신은 병사

사랑하는 고향에서
축구장을 누비던 그 걸음으로
조국땅 삼천리 끝까지
서울, 수원, 대전을 지나
불모래치는 락동강기슭까지
언제나 축구장의 공격수 그 자세로
전선길 앞장서 헤쳐온 병사

습격전의 돌격로 통꼴로 열어놓고
한마디 말조차 남기지 못했던만
병사들은 모두 들었네

배낭속에 소중히 간수했던 축구화에서

조국이 없으면
우리가 원썬놈들 터럭발에 채워
피흘리는 공이 된다는
전우의 심장의 목소리를

조국이 있어야
우리도 후대들도 아름다운 희망
마음껏 꽃피울수 있다는
절절한 당부의 목소리를

...

또다시 결전의 길에 오르는 병사들
증오와 복수로 불타는 마음속에
전우가 남긴 축구화 간직했네
기어이 남해가에 승리의 자욱 짙을
맹세도 드높이

수 필

바늘에 대한 생각

박 경 로

나는 바늘을 남달리 애용한다. 그리고 남자이지만 바느질을 녀인들 못지 않게 능숙하게 잘한다. 그것은 바늘이라는 한그람도 못되는 그 작디작은 생활도구가 지나온 나의 짧지 않은 인생과 깊은 인연을 맺고있기때문이다.

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여섯살때 칠천지원쑤 미국놈의 폭격에 더없이 귀중한 어머니와 셋이나 되는 누나들을 한낱한시에 졸지에 잃었다.

그후 새 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바쁘다나니 내 옷이나 양말을 꿰매주는데 미처 손이 가지 못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존심이 류달리 강했던 나는 꿰여진 홀잡쟁이나 버선, 양말을 이뵈엄마에게 맡기지 않고 내 손으로 킁군 하였다.

그후 학창시절이 끝나고 새빨간 령장을 단 신입병사때부터 소좌로 제대될 때까지 군사복무의 나날 2~3일동안에 꼭꼭 한번씩 갈아다는 목달개며 어려운 행군과 훈련의 나날 헤어지고 떨어진 배낭

과 단추를 내 손으로 손질하면서 익히고 늘어난 나의 바느질솜씨.

그 나날 신입병사들의 목달개도 수많이 내 손으로 달아주었고 바늘에 실을 꿰여 목달개를 제일먼저 질적으로 달 내기를 하는 련대적인 경기때에는 군인가족들을 누르고 단연 1등을 하여 판중의 찬탄을 받은적도 있었다. 세월이 흘러 70이 다된 이 나이에 도 회여진 머리카락에 바늘을 비벼가며 능숙하게 바느질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면 시집간 딸이나 며느리도 바늘을 빼앗지 않고 신기하고 호기심에 찬 눈길로 멍하니 바라보군 한다.

나는 오늘 그 능숙한 바느질솜씨로 함흥역앞 공원의자에 앉아서 군대에 나가는 손자녀석의 목달개를 달고있다. 학교적인 수재로 꼽히우며 과정안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손자가 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며 최후발악을 하는 원썬놈들을 죽치려 희망하던 대학에로의 길을 에돌아 단연 입대를 탄원했던것이다.

옆에서 시아버지를 여겨보던 며느리가 내 손에서 바늘을 빼앗았다. 며느리는 내가 가르쳐주는 군대 규정대로 목달개를 정성껏 달면서 말하였다.

《참, 지금에 와서 재봉기가 있으니 옷짓는 일은 하지 않아도 소소한것들은 바늘이 있어야 해요. 참으로 이 바늘은 우리 여자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생활필수품이라고 말할수 있어요.》

바늘을 두고 며느리가 하는 말은 나에게 깊은 사색을 펼쳐주었다. 바늘—그것이 인간생활에 출현한것은 구석기시대 후반기라고 한다. 그 시대 인간들이 처음으로 만든것은 돌바늘이라고 한다. 그것이 점차 청동바늘을 거쳐 오늘의 쇠바늘로 발전하였다. 그 재질이 어떠한든 바늘의 창조와 리용의 목적은 하나였으니 그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옷과 신발, 주머니나 가방, 모자 같은것들을 짓거나 기우며 그외에 여러가지 물건들을 만들어 생활을 보다 아름답고 문화적으로, 윤택하게 꾸려나가는것이였다.

소박하면서도 고상한 창조적의의와 리용가치로 하여 바늘은 실과 더불어 오랜 세월 인간생활의 필수품으로, 녀인들의 애용품으로 되어왔다.

나의 상념을 깨뜨리며 지나가는 방송선전차에서 방송원의 격한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려나왔다. 오늘부터 철천지원쭈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전례없는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벌린다는것이였다. 전쟁연습은 곧 실천으로 이어질수 있었다. 침략전쟁, 파괴, 방화, 살인, 주검, 재더미… 그 순간 나의 뇌리에는 내가 어려서 직접 체험한 바늘에 깃든 피맺힌 원한이 떠올랐다. 세세년년 흘러온 인류력사와 더불어 우리 생활속에 노동과 헌신의 기쁨, 아름다운 모습만을 수놓아오던 그 바늘이 생판 다른 용도에, 그것도 가장 흉악한 고문도구로 돌변하여 무고한 우리 인민에게 죽음과 재난을 가져다준 잊지 못할 원한이 불쑥 되살아났다.

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실재한 사연을 딸과 며느리, 손자에게 꼭진히 들려주었다.

당시 사리원탄광에서 당일군으로 일하던 나의 형인 박경남은 문건과 설비들을 은폐하며 후퇴를 조직지휘하느라 늦어지는 바람에 미국놈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체포되게 되였다. 형은 군데군데 옷이 찢겨져서 상처가 그대로 드러난 잔등을 감방의 차디찬 세멘트바닥에 무겁게 눌러대고 쓰러져

있었다. 놈들은 인간의 리성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야만적인 고문과 폭행을 감행하였다. 포악한 교형리들은 《이 빨갱이야, 네놈을 고슴도치처럼 만들어버리겠다!》고 소래기를 지르며 미친듯이 날뛰였다. 놈들은 팔과 다리, 얼굴 등 형의 온몸에 수백개의 바늘을 주런이 꽂았다. 두눈에도 바늘 두개를 꽂아놓았다. 형의 온몸에서, 두눈에서 검붉은 피가 줄줄이 흘러나와 바닥을 적시였다. 형은 예리한 바늘로 놈들이 사정없이 온몸을 찢러대는 그 참기 어려운 순간에도 단 한마디의 신음소리도 입밖에 내지 않았고 입을 악문채 교형리들의 가증스러운 낯짝을 쏘아보았다. 아마도 바늘을 발견한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지금의 바늘을 만들어낸 노동자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너무나 억이 차서 사무치는 분노에 치를 떨며 이를 갈면서 놈들을 끝없이 저주하고 또 저주하리라. 인간들의 사랑과 정서가 무참히 짓밟히고 모욕당한것이분하여, 폐사로운 생활필수품이 갑자기 살인흥기로 변한것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통분하여서…

어찌 바늘뿐이었으랴! 원쑤들의 피배인 손에서는 농민들의 살불이나 다름없는 낫과 호미, 곡괭이, 쇠스랑, 작두, 채찍, 도끼들이 무서운 흥기로 되고 노동자들이 스스로없이 잡군 한 삽과 망치, 정대, 끌, 못들이 흉악한 살인쟁기로 변하였다.

그렇다! 노동의 희열과 보람, 삶의 기쁨과 행복을 안아오던 창조의 도구도 원쑤에게 빼앗기면 살인흥기, 죽음의 무기로 되였다. 딸과 며느리의 두눈에서 눈물이, 증오의 불길이 흘러나오고 타올랐다. 손자의 머루알같은 두눈에도 증오와 분노가 비껴 이글거리였다. 두주먹을 짜악 부르짖 손자가 또 박도박 말했다.

《할아버지, 하루빨리 일당백초병이 되어 원쑤놈들이 우리 땅에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어준다면 적들을 씨도 없이 아예 말려버리고 행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훈장을 번쩍이며 고향에 돌아오겠어요.》

새빨간 령장에 새하얀 목달개를 단 군복을 펼쳐 입은 미더운 손자가 힘있게 거수경례를 했다. 나도 거수경례로 답례를 한 다음 손자에게 배낭을 메워주었다. 그 배낭안에는 책과 함께 내가 마련한 바늘쌈지와 실토리도 들어있었다. 나의 손자는 그 배낭을 메고 자기 아버지와 옛 로병인 할아버지가 섰던 초소로 떠나갔다.

로병의 시

김 정 곤

공병삽 아홉자루

총탄도 떨어졌다
참호도 판이 났다
남은것은
공병삽 아홉자루

누가 먼저
전호기슭
바위터술에
삽날을 박아 새겨넣었던가

떡메 휘둘러
분여지의 패말 박았다는
평강땅 아바이병사였던가
보안경끼고
수령님과 함께 쇠물빛 살폈다는
용해공출신 그 병사였던가

출석부에 올랐던 제 이름 석자를
중대명부에 올리고
부르면 산고지 찌렁찌렁 울리며 대답턴

숨털내기 그 병사였던가

맹세로
넋으로
목숨으로
박아새기며
이글이글 바위에 불이 튀는 글발
《수령을 위하여!》

그렇지
나는 마감에
감탄부호를 삽날로 박았지
《!》 이렇게

오, 오! 《수령을 위하여!》
이 글발 목숨우에 세운 병사들
공병삽 아홉자루 주켜들자
고지우에 또 하나
불퇴의 고지가 치솟아올랐다!

마라초 한줌

락동강 모래불에
보병총 1번수 내곁에 었디어
마라초 한줌 덜어주며 하던 말
《막담배는 제주도에서 올라 말아피웁세》
덧이 보이며 활짝 웃던 얼굴
오늘도 눈에 삼삼...

뉘 알았으랴
물기둥 덮쳐내리던 도하전투
적탄에 쓰러진 1번수
강녘에 나직한 봉분 하나 앉혀놓고 울줄을

세월은 멀리 흘렀다
대학층계 오를 때에도
출근길 걸을 때에도
내 걸음 떼인 출발선은
그 못 잊을 전우의 봉분앞

오!
제주도에 올라 막대를 피우자고
내 손에 쥐여준 마라초 한줌
오늘도 가슴에 남아
진격의 일선에 이 몸은 서있다!

금강의 세동서

전선길녘에 밭가마 걸어놓고
가마밑곶이 창나도록
군대밥을 짓고 또 지은
금강의 세동서

그네들 지은 밥
나도 곡상 담아먹고
씨엿씨엿 바람 일구며

따발총메고 고지에 올랐지

범같은 우리 대대장도 어느날
여기 탈래김치 두사발 축냈다지
대대대렬명부에 세동서 올리자고
고지가 떠나갈듯 만장일치로 가결도 했지

밤이고 낮이고 가림없이

병사들을 맞으며 불러들이며
세동서 푸집한 마음처럼
가마에 꿰던 산나물국냄새

전호에 맞붙은 주방인듯
해종일 젖은 손 마를새없이
누나가 되어 어머니되어
고향의 향기풍기던 금강의 세동서

이제는 나도 머리흰 로병
그네들도 할머니 되었겠지
하지만 지금도 떠오르는 얼굴은

포화속에 싱싱한 세송이 들꽃

다 닳아진 반달밥주걱
행주치마에 감추며
뽀얀 뜬김속에 덧국을 떠주던
가리마 끈은 감실한 얼굴에
늘쌍 출렁이던 밝은 웃음...

아, 전승의 날 이 아침엔
더더욱 새록새록 어려와
세동서 밥짓던 그쪽을 향해
거수경례 보내고싶네

로병의 시

로병의 시를 짓자고
붓을 드니
발꿈치에 총탁판 부딪치며
남진길에 올랐던
1950년 7월 초닷새날이
삼삼 되살아나 붓끝에 매달린다

견장단 군복에
제 손으로 목달개 달던 바느질이
세월을 누비며 나를 이끌어가누나
석수 떨어지는 강도
방수포 대신 돌바위천정
금술 드리운 군기앞에서
군인선서하던 그 울림이 이 가슴 흔든다

어찌하랴
로병의 시를 짓자니
팔팔하던 병사시절이
년대순도 헛갈리며 자꾸만 비집고오는것을

전호에 엮디어 줌에 싸쥐고
옆을 툭툭 치며 주고받던 마디굵은 마라초가
풀풀 연기를 날리며
이 손마다에 목직이 잡힌다

아, 351고지공격전투
쓰러진 전우의 손에서 기발을 넘겨받고
귀뿌리 확확 뿜어치는 불의 언덕
《앞으로!》 뽀같은 소대장의 석유탄 구령소리
이 몸을 날려
원췌의 화점을 짓타고 쫓은 기발이
이 백발우에 자락을 펴고 황황 펄럭인다

이래서
로병의 시는 드문가보다
귀익은 소대장의 구령 울리면
지금도 총가에 달려가
눈 감고도 제 무기 찾아쥐고
결전의 대오에 총알같이 날아가 설득

오! 병사시절
이것은 내 인생의 알맹이
로병의 시 한수 지으려 하니
자꾸만 그날의 병사시절이 물밀듯 달려와
아침검사 받던 그 마당, 그 대렬
앞줄 세번째 자리를 찾아
다시 총잡은 그날의 병사로 나를 세워주는구나

가 사 병사는 언제나 판가리결전에 산다

최 흥 록

신성한 이 땅에 원췌가 침노한 그날은
사람들 행복에 단잠든 일요일 이른새벽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뼈에 사무치라
병사여 병사여 전쟁은 예고가 없다

하늘이 맑다고 평화가 깃든것 아니리
총포성 없다고 싸움이 끝난것 아니여라
비둘기떼 높이 날아도 순간도 잊지 말라
병사여 병사여 결전은 눈앞에 있다

하루를 위하여 한생을 사는 병사들아
조국은 그대들 믿어 래일을 꾸려간다
락원이 꽃피어날수록 심장에 간직하라
병사여 병사여 최후승린 총대에 있다

아 조국의 존엄과 정의를 위하여
병사는 언제나 판가리결전에 산다

단편소설



은방울꽃

김 은 경

1

《대학을 졸업한지 5년이 지났구만. 그래 지금 뭘하나?》

동창생들로부터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펍 힘겹게 대답하곤 했다.

송천옷공장 재단반장!

《이자 뭐라구? 작업반장? 아니 아니, 재단반장이라구 했지. … 옷공장 재단반장이야. 역시 자넨 뭔가 좀 류다른데가 있어. 우리들이 상상도 안해본 직업을 가졌으니깐. 여하튼 축하하네. 하지만 처녀와 선을 볼 때는 제발 재단반장이요, 옷공장이요 하는 말은 관두게. 남성적인 매력이 없어질 거란 말일세.》

남성적인 매력이라? 하긴 어찌보면 나에게는 천성적으로 남성적인 면보다 여성적인 성격이 더 우세를 차지하고있는지도 모른다.

봄이 한창인데도 도시가운데로 흐르는 강에선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다.

늦은 봄날씨가 자주 변덕을 부린다.

나는 옷의 목깃을 조금 세우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었다.

무엇인가 잡히길래 꺼내보니 아예 불품이 없어진 직사각형모양의 마분지조각이었다. 이따위걸 다 집어넣고 다니다니?

나는 아무 생각없이 그것을 바람에 날려보냈다.

문득 그것이 하얀 꽃잎처럼 내앞에 날아내리는 것이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그것을 주어들었다. 너무 보풀이 일어서 룬판이 선명치 않은 마분지조각에서 나는 뜻밖에도 하얀 은방울꽃그림을 보게 되었다.

송천옷공장 공인상표!

바로 우리 공장 은방울상표였다.

불현듯 입술을 꼭 다물고 웃어보이는 한 처녀의 모습이 또렷이 떠올랐다.

유명했던 《각쟁이 재단반장》!

그래, 그 처녀! 하지연이 내게 기념으로 주었던 것이지. …

그것은 분명 추억속의 그 꽃잎이었다.

나는 조심히 5년전 추억의 번두리를 예돌아 정든 일터—나의 재단반에 들어섰다.

《웁—》

이동식절단기가 돌아간다.

그와 함께 우리 재단반과 이어진 옷공장의 모든 생활이 치차처럼 맞물려 돌아간다.

85평방짜리 크지 않은 재단반!

나들문 맞은편에 고정재단기가 놓여있고 왼쪽창문 좌우로 절단제품을 올려놓는 제품탁과 길이가 10미터, 너비가 5미터인 재단탁사이로 넓은 《오솔길》이 지나갔다. 그 길을 따라 열댓발자국 걸어 가면 파란 에나멜을 칠한 작은 창고문이 보인다.

가지각색의 천필들을 넣어두는 재단반의 자재창고이다.

우리 재단반은 식구가 적었다.

저기 넓다란 재단탁에서 연단(천퍼기)에 열중한 단발머리처녀는 18살난 신입기능공이고 퍼그나 긴장된 자세로 결감사입(마분지로 된 옷도안전본을 천에 그려넣는것)을 진행하는 중발머리처녀는 공장의 유명한 팔랭이 정윤금이다.

윤금의 맞은편에 서서 약간 느릿한 자세로 사입견본을 선별하는 중키의 저 녀인은 안감사입공이다.

《후— 다됐다. 이만하면 어때요? 반장동지.》

윤금의 청높은 목소리에 나는 이마살을 찌프렸다.

《소리치지 말라고 그만큼 말해두었는데두… 윤금이의 곁에 있으면 멀쩡한 사람도 귀머거리가 되겠어.》

《하하하.》

윤금은 웃어도 남자처럼 터쳐놓고 웃어대군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 모두가 습관되었다.

윤금은 우습강스러운 표정을 짓고 내게서 조금 떨어진 이동식절단기를 가리켰다.

《이 절단기가 입을 다물었다는것을 깜빡 잊었요 뭐, 복잡한 소음에 습관됐으니…》

어휴— 한번만 더 습관이 됐단 큰변이 날것이다.

문득 엄청나게 큰 손전화착신음이 바로 곁에서 터져나왔다. 그 무슨 《혼쌀나는 호랑이》라던지…

정윤금이 아니면 아동영화음악을 손전화착신음으로 선택할 처녀가 아마도 없을것이다.

나는 저도 모르게 다시 미간을 모았다.

《작업시간에 소란스럽게 이건 뭐요?》

윤금은 미안한 기색이란 조금도 없이 문쪽으로 달음박질쳐갔다.

그가 다시 내앞으로 돌아왔을 때는 웃음기가 짝가서진 얼굴이었다.

자주 보게 되는 번덕스러운 표정이어서 별로 신경이 가지 않았다.

《사입을 마저 끝내야 하는데 명칭히 서서 뭘해?》

《지연동지가 돌아온대요.》

놀랄만큼 조용한 목소리이다.

하지만 내가 놀란것은 윤금의 조용한 목소리가 아니라 하지연이 온다는 바로 그것이었다.

처녀는 턱을 고이고 그 새말간 눈동자에 장난기를 담고서 나의 표정변화를 빤히 지켜보고있었다.

《이래도 날 옥치겠어요?》라는 도전적인 미소가 얼핏 떠올랐다 사라진다.

나는 아무것도 못 들은듯 고정절단기앞으로 걸어갔다.

하지연이 돌아온다! 그가 온단 말이지. …

나는 주머니에서 보풀인 상표를 꺼내보았다.

그 어떤 알수 없는 감정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왜서일가? 무엇때문일가?

나는 천천히 머리를 저으며 절단기를 손에 쥐었다.

왜 나한테 전화를 걸지 않았을가?

온종일 이런 부질없는 생각으로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다.

오늘 밤차로 하지연이 돌아온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할일을 다 잊어버렸던것이다.

《반장동지, 퇴근 안해요?》

어느새 갈아입었는지 산뜻한 양복차림의 윤금이 퇴근시간을 알려준다.

《먼저 퇴근해. 난 미진된 일이 있어. …》

퇴근시간이 펍 지나서야 나는 재단반에서 내려왔다.

어쩐지 혼자 있고싶어졌다.

방금전까지도 처녀들의 웃음소리로 가득찼던 공장구내는 놀랄만큼 조용했다.

나는 구내길의자에 가앉아 손전화기를 꺼내들었다.

기계적으로 눌러지는 번호를 바라보던 나는 흠칫 놀라 지워버렸다.

《퇴근시간이 지났는데 여기서 뭘하나?》

등뒤에서 울리는 귀익은 목소리에 나는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심정순지배인이었다.

《지배인동진 아직 퇴근 안하셨습니다까?》

《이제 가려던 참이었어.》

그러며 지배인은 나의 옆에 와앉았다.

《지연동무가 오늘 밤차로 도착한답니다.》

지배인은 알고있었다는듯 머리를 끄덕이었다.

《전화가 왔어. 대학으로 떠날 때가 어제같은데 …》

지연에게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있는 심정순은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심정순은 눈을 가늘게 찌프리고 어딘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길을 쫓으니 공장의 3층짜리 기본건물 중간벽에 커다랗게 부착되어있는 은방울꽃이 시야에 미쳐왔다.

은방울꽃!

송천옷공장의 상징이며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기도 한 저 꽃잎속에 하지연의 모습도 깊이 새겨져있다.

《내 생각엔 기다리는것두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왜서인지 지금 내 마음은 가볍질 않아. 그가 대학을 졸업하는 동안 이것이 우리 공장이 해놓은 일이다 하고 자랑할만 한것이 없거든. 액상계획수행률은 자꾸 떨어지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힘들어. 지연이가 오면 나는 한결 일하기가 험하겠지.》

지배인의 어조에 그 어떤 알수 없는 불안이 깃들어있어 나는 놀랐다.

《지배인동지!》

어느새 심정순은 정문밖을 나서고있었다.

저도 모르게 무거운 한숨이 나왔다. 나도 알수 없는 불안이 가슴속 갈피들을 헤집으며 서늘하게 스며들었다.

그때문이었다. 반가움보다도 먼저 앞섰던 그 무거운 감정이 이자 지배인이 말했던 그때문이다.

기다림에도 자격이 있어야 한다면...

나는 고집스럽게 머리를 흔들었다.

그만하면 자격이 있어. 그가 오면 명백히 말해주리라.

사계절 피는 꽃에 대해, 은방울꽃사랑에 대해...

2

하나, 둘 별이 빛났다.

밤이 깊어가고있었다.

반짝이는 별무리...

아름다운 별밤이다.

하지연이 지금쯤 공장구내길을 걷고있는지도 모른다.

전화해볼까?...

나는 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침대에서 일어섰다.

자그마한 상표가 보인다.

책상우에 정히 놓여있는 보풀인 상표!

그 류다른 기념품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그에 대한 추억도 가끔 내 생활에서 멀어져간건 아닌지?

5년전 그 여름밤이 생각난다.

나는 침대에 다시 드러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다.

꿈인지 추억인지...

선명한 화폭들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흘러간다.

...은방울꽃이 부착된 공장건물앞에서 조용한 미소를 짓던 처녀, 내가 그를 처음 만났던것이 경공업대학을 졸업하고 송천옷공장에 현실체험을 나왔던 그 봄날의 아침이었다.

하지연이 공장구내길에서부터 나를 맞이했던것이다.

못사람의 눈길을 끝만큼 아름다운데는 없었지만 류달리 날이 선 코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첫눈에 안겨오는것이 은방울꽃부각상이었다.

나는 잠깐 멈춰서서 그것을 감상하였다.

《은방울꽃을 부각한것을 처음 봅니다.》

《사계절 지지 않는 꽃이에요.》

처녀의 의미심장한 말에 나는 머리를 기웃했다.

그때에는 다 몰랐다, 사계절 지지 않는 꽃에 대한 의미를...

재단반에 들어서서야 나는 그가 재단반장이며 현실체험을 그와 함께 해야 한다는것을 알았다.

이름은 하지연, 나이는 스물셋.

《여기로 와줘서 고마와요.》

재단반의 문을 처음 열었을 때 축하삼아 했던 그의 인사말이 마음에 걸렸었다. 현실체험일뿐이라고 강조하려다가 그만두었었지.

각쟁이!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1센치의 천도 내버려두는것을 용서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무리 쓸모없어보이던 자투리천들도 그는 방석이나 책상보로 만들어 한조각도 그냥 내버리지 않았다.

아끼자! 절약하자! 라는 단어외엔 아무것도 말할 줄 모르는 녀자같았다.

그의 씨원씨원한 생김과는 너무도 모순된 성격에 조금 놀라왔으나 나는 인차 거기에 습관되어갔다.

옷공장과 재단반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습관되어있었던것이다.

그는 천을 사랑했다. 여느 천이 아니라 제 손으로 아낀 천을...

그때까지도 나는 이 옷공장의 손님이였다. 현실체험이나 끝내고 어디론가 가버릴 철새였던것이다.

아직 깃을 펴 고장은 찾지 못했으나 여기에 남고 싶은 생각은 꼬물만큼도 없었다.

현실체험 3개월만에 나는 새로운 형식의 노동자 작업복과 함께 흰색 여름달린옷을 제작해내었는데 단박 처녀들의 인기를 사게 되었다.

첫 시제품이 나온지 1주일이 지난 후 하지연은 흰색 여름달린옷을 입고 출근하였다.

떠들썩한 처녀들의 환성에 얼굴을 붉히며 돌아서려던 나는 그만 굳어버렸다.

그 녀자의 모습이 아름답고 눈부시어서가 아니라 달린옷주름장식우에 수놓아진 하얀 은방울꽃때문이었다. 놀랍게도 그 다섯송이 은방울꽃이 옷의 매력과 우아함을 더한층 살려주는것이 아닌가?!

그가 일주일동안 수를 놓아서 말없이 옷의 결함을 메꾸어주었던것이다.

처음으로 《작쟁이》재단반장에게 감사를 드리 고싶었다.

거리에 지나가는 수많은 처녀들, 하얀 달린옷을 입고 백설공주처럼 아름다워진 그들에게 나는 즐거운 미소를 던지곤 하였다.

그것은 행복이었다.

무엇이라고 딱히 짚어말할수 없는...

그러던 어느날인가 나는 《작쟁이》재단반장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다.

신입공이 서툴게 절단해보았던 재단제품.

《이건 뭐니?!》

캄캄하게 질렸던 그의 얼굴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50가폴의 남자와이깃절단제품에 똑같은 8미리의 편차가 났어요.》

가폴과 가폴, 천과 천사이의 세밀한 차이를 그가 알아보았던것이다.

《잘 알려지도 않는데 일없지 않을까요?》

기여들어가는 목소리의 주인은 아직 단발머리에 불과하였던 정윤금이였다.

《안돼! 손가위질로 작은 와이깃제품을 만들어야겠어요. 래일 제품출하를 보장하자면 서둘러야 해요.》

손가위를 집어들며 그가 나직이 말했다.

썩둑 썩둑... 그의 손에서 서슴없이 잘리어나가는 천들...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지연의 행동이었다.

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았다. 높은 코날우에 돋았던 미세한 땀방울...

그날은 재단반의 모든 사람들이 밤을 꼬박 밝힌 날이었다.

나도 예외가 될수 없었다.

새벽녘이 돼서야 재단탁에 기대여 깜빡 잠들었던 나는 도란도란 울리는 이야기소리에 어렴풋이 잠을 깬다.

《...그렇게 은방울꽃이 피어나게 됐단다. 추운 겨울 빨강게 언 내 귀를 따뜻하게 녹여주던 고깔모에도, 장난세찬 우리 동생 병어리장갑이며 언니들의 봄가을목수견에도 우리 공장의 하얀 은방울꽃이 피어있었지. 그 꽃은 이상하게도 사계절 지지 않고 피어있었던단다. <할머니, 저 꽃은 시들지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어릴적에 지배인을 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공장에 갔던 내가 이렇게 물은적이 있었어. 할머니는 은방울꽃이 잘 보이는 곳에 나를 데리고갔단다. <저 꽃은 시들면 안된단다. 옷공장 어머니들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피운 꽃이어서 죽어서도 안된다.>

그 말의 의미를 다는 몰랐지만 그때 처음으로 사계절 피는 꽃을 나도 한번 피워봤으면 하는 커다란 충동을 느꼈어. 나의 꿈은 그때부터 자랐지. 사입의 하나하나, 가위질 하나에도 사랑이 깃들지 않으면 저 꽃은 시든단다. 우린 모두가 은방울꽃을 피워가는 원예사거든...》

사계절 피는 꽃이라...

한 처녀의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꿈. 송천옷공장 은방울꽃에 대한 류다른 사랑이야기.

공장의 제품출하를 마치고 돌아오던 여름밤.

지금처럼 그밤은 몹시도 따뜻했었다.

어떻게 그와 단둘이 걷게 되었는지...

《8미리 같은거야 크게 차이도 나지 않았는데 무엇때문에 그랬습니까? 동무가 어쩌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옆에서 사입을 하던 나까지도 괴롭 더군요.》

《...》

처녀는 말이 없었다. 조금 침묵이 흘렀던것 같다.

《힘들었어요. 천을 잘라내던 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군요. 살점이 막 뜯겨나가는것처럼 아팠어요. 어떻게 마련된 천이라고...》

나는 놀랍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 가득찼던 맑은 눈물.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만이 가질수 있고 그만이 할수 있는 남다른 사랑이었다.

도대체 지연은 어떤 처녀인가?

그런 괴로움을 당할바엔 차라리 눈을 꼭 감고 절단체품으로 밀어넣으면 그만 아닌가.

《혼술여유가 적어졌어요. 그것으로 완벽한 우리 공장 옷들을 만들수가 없어요. 혼술여유가 없으면 옷들이 쉽게 동강나거던요.》

그 단순한 이유때문에...

나란히 걸어가던 그가 문득 무엇인가 감추어진듯한 주먹친 손을 내들었다.

가로등빛에 비추이는 그의 얼굴에 고운 꿈을 꾸는 어린애같은 천진한 표정이 어렸다.

그에게도 이런 동심이 있다는것에 기분이 조금 이상해졌다.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내가 뭘 하나 줄가요?》 하며 지연은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바닥에 펼쳐져 곱게 웃는 은방울꽃!

《기념으로 주는것이에요.》

그의 손안에서 나의 줌안으로 자그마한 종이상표가 옮겨왔다.

마치 친구에게 아끼던 보물을 선사하는듯 한 장난군소년의 빠기는 모습과 류사하여 나는 픽 웃어버렸다.

《우습지요? 우리 어머니도 가끔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는 철없는 어린애같다고 나무랐어요. 하지만 난 상점에서 사람들이 상품을 사며 떼는 은방울꽃상표를 볼 때가 제일 기뻐요. 고향도시사람들이 <잘 입었다, 고맙다, 일을 더 잘하라.> 하는 것 같거던요. 우리 공장 은방울꽃은 많은 사랑을 받고 산답니다.

나도 그 꽃과 함께 영원히 그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싶어요. 우리 할머니 행복이라는게 아주 조그마한것이라고 했는데 난 행복에 커다란 조건을 걸었답니다.》

그는 정말로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나는 이런 처녀를 본적이 없었다. 스쳐지나간 수많은 각이한 처녀들속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하지연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그의 티없이 깨끗한 미소가 나의 가슴속에 송천 옷공장에 대한 애착과 은방울꽃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자래우게 해준 씨앗이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와 함께 보낸 150일전투의 낮과 밤들속에서 당원증을 받아안고 행복감에 소리내어 울던 하지연의 모습앞에서 나 자신도 알수 없는 무거운

의무감을 느꼈다.

이제 더는 아무때든 날아갈수 있는 철새가 아니었기에...

그가 경공업대학추천을 받고 떠나가게 된 그날 저녁 우리는 호젓한 재단반에 단둘이 남게 되었다.

꼼꼼히 이동식절단기며 재단탁을 살펴보는 그의 눈가에 애뜻한 사랑이 흘렀다.

그는 공장구내를 걸어나오며 당부하듯 말했다.

《내가 간 다음에도 천은 꼭꼭 아껴쓰세요. 못해도 년간 80메터의 천은 절약해야 한답니다. 그리구 저 꽃! (그는 팔을 들어 달빛이 어린 은방울꽃부각상을 손으로 가리켰다.) 시들지 않게 해줘요.》

가슴속에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내가 현실체험기간이라는걸 잊었습니까?》

지연은 가볍게 머리를 흔들었다.

《알고있어요, 동무가 전도유망한 대학졸업생이라는걸... 내가 알고있는 또 다른 사실은 동무의 고향도 여기 송천이라는거예요. 송천에는 옷공장이 필요하고 옷공장에는 동무가 필요해요. 동무도 아다싶이 우리 공장엔 젊은 대학졸업생들이 많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배인동지도 저를 대학으로 떠민거구... 부탁해요.》

이런 믿음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도 알고있었다.

이제는 옷공장과 은방울꽃을 떠난 나의 생활을 생각할수가 없다는것을...

보다 중요한것은 그 처녀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잡고있다는 것이었다.

5년동안 그에게서 받은 편지는 단 두통뿐이었다.

모두 실무적인것들이여서 나 역시 공장 재단반장의 명목으로만 회답을 쓰곤 하였다.

보다 열정적인 편지, 사랑이 담긴 애뜻한 펜을 들고싶었으나 단념하였었다. 나에게 용기가 부족했던것은 아닌지?

창가에 솟았던 별들이 깜박깜박 조은다.

아름다운 태일이 다가오고있었다.

3

하지연이 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음날 아침 모든것은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웠다.

불어오는 바람도, 빛나는 태양도, 거리로 오고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출근시간보다 한시간 먼저 공장에 도착한 나는 천천히 재단반으로 향했다.

그를 만나자면 한시간은 더 기다려야 할것이다.

그러며 걸음을 옮기던 나는 몇발자국도 못 가서 굳어져버렸다.

아침해빛의 여광을 받아 불타는듯이 느껴지는 은방울꽃부각상앞에 우아한 흰색고급양복을 입은 처녀가 그린듯이 서있었다.

심장에 찌르르— 찌릿한 전류가 미쳐왔다.

주위를 잊은듯 한 처녀의 눈가에 반짝이는 맑은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지연이다 하고 단정하였다.

문득 지연은 가볍게 몸을 떨었다. 자기의 그림자 뒤에 생겨난 또 하나의 그림자를 보았던것이다. 고개를 돌리며 지연은 방긋 웃었는데 한가득 고였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 아침이슬과도 같은 놀라운 아름다움을 재생시켜주는것이였다.

《일찍 출근했군요.》

수년만에 만난 처녀앞에서 내가 한 소리란 고작 이것뿐이였다.

그는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세련된 몸가짐과 화려하게까지 느껴지는 고급양복...

왜서인지 나로서도 알수 없는 야릇한 불안이 갈마들었다.

무엇때문일까? 그앞에 서있는 나자신이 너무 초라해보여서? 그때문도 아니다.

《재단반에 먼저 가보고싶어요.》

속삭이는듯 한 그의 목소리에 나는 말없이 걸음을 옮겼다.

오래간만에 그와 함께 정든 길을 걸어보았다.

파아란 잔디, 록음이 짙어가는 공장구내길은 아침의 청신한 공기를 안고 새삼스러운 아름다움을 더해주고있었다.

재단반문앞에서 지연은 뜻밖에도 열쇠묶음을 꺼내들었다.

나는 사뭇 놀라왔다.

그가 아직도 우리 재단반의 열쇠를 가지고있을줄은 몰랐던것이다.

《우리 공장은 재단반에 매여달린 자물쇠조차도 달라진게 없군요.》

그의 잔잔한 어조에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수 없는 의미가 느껴져와 나는 새삼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지연은 이전처럼 조용히 재단탁에 기대여서서 재단반의 곳곳을 둘러보았다.

《사입견본과 고정재단기까지... 어쩌면 모두가 여전히 그대로예요.》

《...》

머리를 천천히 가로짓는 그의 눈빛에서 나는 5년전 그 여름밤에 비졌던 어머니다운 애뜻한 사랑을 찾아보려 했으나 허사였다.

싸늘하고 차거운 빛이 그의 예수비긴 눈동자에 어렴풋이 갈마들었다.

불안... 지연을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야릇한 불안이 공연한것이 아니였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의 눈빛은 탱정해지기 시작했던것이다.

《지연동지!》

요란하고 드세찬 윤금의 목소리와 함께 두 처녀는 얼싸안았다.

지연이 있는 재단반으로 재봉반과 완성반의 처녀들까지 달려왔다.

지연이 남겨둔 자리는 컸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기다렸던 상봉의 하루는 기쁘다고 말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한것을 남기고 지나갔다.

그것이 무엇이었던지...

하지연은 공장에 출근한지 이틀만에 기술준비실장으로서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날 오후 윤금의 통보문이 날아왔다.

《회의실에 다 모였습니다.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학습강의가 있다고 지배인동지가 기술일군들은 다 참가하합니다.》

나는 급히 1층에 있는 종업원회의실로 뛰어갔다.

강의가 시작된지 한참이나 지난것 같았다.

회의실의 측면에 커다란 대형액정텔레비존화면이 펼쳐지고 지연이 자연스럽게 강의를 해나가고있었다. 새삼스러운것은 지연이가 5년전의 그 하얀 달린옷을 입고 나온것이였다. 낯선 사람을 보는듯 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인츰 눈길을 화면에 박았다.

다른 화면이 펼쳐졌다.

간편하게 생긴 재봉기가 화면에 비졌다.

《아시다싶이 이 재봉기는 신형재봉기로서 우리 공장에서 쓰인적이 없는것입니다. 우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전동기가 달려있어 동력재봉기를 쓸 때만큼 많은 전기가 필요없습니다. 사용하기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져있어 재봉일에 익숙되지 못한 동무들도 수일내에 제품에 대한 담보물을 90%

로이상 확신할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천천히 공명되어 울렸다.

《한가지 문의하자요.》

문득 나의 앞에 부자연스레 앉아있던 재봉반장이 일어났다.

《그런 재봉기야 현대적인 피복공장들에서 쓰이는것이 아닙니까?

우리 공장 실태에 맞지 않아요. 즉 수입 대 지출이 안 맞는다는겁니다. 우리 공장이 버는 돈으로 그 재봉기를 산다는게 하늘의 별따기지요. 동력재봉기가 그 재봉기만 하겠나마는 수년간 아무탈없이 지냈는걸요. 괜히 새로 들어온 신입재봉공동무들의 마음이나 들뜨게 하는게 아닐가요?》

장내가 술렁이었다.

재봉반처녀들은 입들을 삐죽이며 앉아있었고 공장의 종년배들은 머리를 끄덕이었다.

《조용들 하자요!》

앞쪽에 앉아 지연의 강의를 누구보다 심중히 듣고있던 지배인이 소리쳤다.

나는 지연의 예리한 눈길과 퍼그나 랭정해진 얼굴모습을 보았다.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이 자리에서 꼭 상기시켜드릴게 있습니다. 재봉반에 세워놓은 동력재봉기 50대중에 가동하는것은 30대정도라는것입니다. 더구나 신입생들이 재봉기술을 더 배우기 위해 밤에 나가 동력재봉기 한대를 돌린다 해도 16대의 재봉기를 돌리는데 드는 전기를 다 쓰게 됩니다. 우리는 신형재봉기를 꼭 리용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주위가 조용해졌다. 얼굴이 달아오른 재봉반장이 자리에 앉아버렸다.

나는 미간이 천천히 좁아지는것을 느꼈다.

놀랐다.

그가 이렇게 달라진데 대해...

이전의 하지연과 다른것이 너무 많았다.

모든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공장 수입으로는 신형재봉기에 대해서 생각도 할수 없었다.

장내를 둘러보는 지배인의 얼굴에 한조각의 그늘이 지는것이 보였다.

화면이 다시 펼쳐지고 우아한 여성달린옷과 남자 고급양복들, 민족의 우수성을 높이 살려 만든 훌륭한 조선옷들이 화면에 비치였다.

《멋있아야!》

처녀들의 가벼운 환성에 어두워졌던 장내가 금시 밝아지는것 같았다.

《이 옷들은 제가 실습기간에 만든것입니다. 물론 고급한 옷도안사입과 훌륭한 재봉시설에 의한것이지만 나는 송천옷공장 재봉반의 능력을 타산한데 기초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공장 모든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믿고 노력하면 빠른 시일내에 세계적수준의 훌륭한 옷들을 지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하지연의 크지 않은 두눈에는 전에 볼수 없었던 단호한것이 어려있었다.

《그런걸 만들자면 세월이 있소? 새 재봉기요, 기성복이요 그런건 저기 현대적인 피복공장들에서나 만들라지요. 그런것 없이도 우린 계획을 100프로 수행했소. 안 그런가요?》

계획부원이 앉은 자리에서 누구에게라없이 하는 소리였다.

《계획부원동지에게 상기시켜드릴게 있습니다.》

문득 놀랄만큼 청청하고 날카로운 지연의 목소리가 장내의 술렁이던 소음을 말끔히 가셔버렸다.

《물론 생산계획은 100프로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액상계획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지연의 뾰족한 물음에 계획부원의 표정이 킁킁하게 질리었다.

공장의 가장 약한 부위, 누구나 상기시키기 두려워하는것을 서슴없이 건드려놓았던것이다.

《유감스럽게도 3년전부터 액상계획은 20프로계선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왜 20프로계선밖에 오르지 못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겁니다. 그냥 이렇게 나가다가는 20프로는커녕 10프로도 수행하기 힘듭니다. 현상태에서는 공장유지도 힘들어요.》

모두의 눈길이 지연이 아니라 회의실 옆면에 커다랗게 그려져있는 은방울꽃장식앞으로 향했다. 거기에 심정순지배인이 앉아있었던것이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심정순지배인의 고통스러운 얼굴모습을 띄여보았던것이다.

하지연은 여전히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해나갔다.

세계적추세에 대해, 발전하는 오늘의 피복계에 대해, 우리 나라 피복공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달았다.

다음은 새로운 옷도안사입건본에 대한 리론학습 강의이다.

《윤지성동무가 경공업대학 피복과를 졸업하고 다년간 재단반장사업을 하였기때문에 고급한 옷도안사입건본에 대해 얼마든지 제나름대로의 견해가 서있겠는데 생각을 말해보세요.》

모두의 눈길이 나에게 집중되고있었다.

이럴 때 나는 어떤 자세와 립장을 취해야 하는가?

무거운 침묵끝에 나는 입을 열었다.

《실장동무의 견해와 의견에 나도 공감입니다. 그리고 옷도안들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생각과 현실은 너무나 먼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지방산업공장이고 인민소비품생산단위입니다. 모든 일엔 자기 몫이 있지요. 그런 고급한 옷도안이 없어도 우리 공장은 상반년도계획을 100프로 수행했고 앞선 공장으로 되고있습니다. 실장동무가 환경이 달라져서 무엇인가 착오가 생긴것 같은데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렇다할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순간 지연의 눈빛은 표현하기 어려울만큼 커다란 실망으로 변했다.

《이것은 무서운 형식주의이고 자기보신입니다. 옳아요. 우리 현실을 인정해야 해요. 비약하는 조국의 현실과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달아올랐던 좌석의 열기는 하지연이 서슴지 않고 뿌려던진 얼음사태를 맞고 싸늘해졌다. 하지연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공장이라고 고급한 옷들을 생산하면 안되는가요? 우리 종업원들과 고향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필요한 자금도 나옵니다. 경영전략을 바로 세워 원가도 보상하고 공장도 더 현대화하자요.》

회의실은 물을 뿌린듯 조용했다.

나는 더이상 앉아있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어떻게 회의실에서 나와버렸는지...

빠른 발걸음소리와 함께 지연이 내앞에 다가선것은 나의 걸음이 은방울꽃부각상을 가까이 하고 있을 때였다.

우리는 약속이나 한듯이 은방울꽃을 바라보았다.

《동무는 달라졌구만...》

침울하게 울리는 나의 목소리가 어쩐지 자신의것처럼 들려오지 않았다.

묵묵히 은방울꽃을 향해 시선을 주던 지연이 내앞에 돌아섰다.

《예, 옳아요. 난 달라졌어요. 지금은 5년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동무가 이상할뿐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전변되어가는 오늘의 현실이 느껴지지 않는가요? 아니면 외면하고싶었나요? 달라져야 했어요. 하지만 공장도 동무도 그냥 제자리걸음일뿐이에요. 분하군요. 5년동안 조금도 발전한것이 없다는것이...》

나는 침묵했다. 아무 말도 하고싶지 않았다.

래일, 래일이 오는것이 두려웠다.

4

밤은 퍼그나 길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야 아침을 맞았던것 같다.

그렇게 기다린 그 아침은 돌발적인 사건으로 나를 맞이하였다.

《기술준비실장의 권한으로 모든 제품생산을 중지시킨다.》라는 말갈지도 않은 명령을 들었던것이다. 나는 곧장 기술준비실로 걸어갔다.

온 공장이 벌둥지 쭈서놓은듯 했고 완성반과 재봉반에서는 절단제품을 달라고 문이 닳게 드나든다.

무엇때문에 제멋대로 생산을 중지시킨단 말인가? 속에서는 무엇인가 와글와글 끓어번지고있었다.

《똑똑똑.》

나는 손기척을 하고 대답이 채 들려오기도 전에 문을 열었다.

컴퓨터앞에 마주앉아 뚫어질듯이 화면만 주시하는 그의 모습이 눈앞에 안겨왔다. 어쩌면 거만해보이기도 하고 심중해보이기도 한 얼굴표정...

나는 분을 가까스로 누착히느라 잠시 입을 다물고 서있어야 했다.

《그러지 않아도 재단반에 가려던 참인데 마침이군요.》

잠시후에야 나를 띄여본 지연이 보통인사말을 나누는듯 한 심상한 어조로 말을 건넸다.

《왜 갑자기 생산을 중지시켰습니까?》

거칠게 울리는 나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서랍에서 크지 않은 도면말이를 꺼냈다.

《공장의 기술준비상태에서 몇가지 제기된것이 있어서 잠간 중지시켰어요.》

《지배인동지도 알고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자재보장, 후방사업과 관련한 여러가지 일때문에 회계부원동무를 비롯한 몇사람이 출장을 떠났어요. 이자 금방 전화로 알려드렸는데 이삼일내로 도착한답니다.》

그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해버렸다.

《생산을 언제까지 중지시키는지 그동안 팔짱을 끼고 놀아야겠군요.》

나의 목소리에 뒤섞인 분노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의 크지 않은 두눈이 동그래지었다.

《놀다니요? 오늘부터 재봉1, 2반, 완성1반, 재단반, 공무반의 몇명을 제외한 기능공들이 새로운 기술학습전투에 들어갔어요.》

《...》

《이걸 좀 보세요.》

그는 급히 말머리를 돌려 나의 눈앞에 도면말이를 폈다. 여러가지 형태의 새로운 남녀옷설계가 그려져있는 상당히 고급한 기성복도안이었다.

어제 보던것들과 조금 차이가 있을뿐이었다.

이건 왜 또 끄집어낸단 말인가?

《이 옷도안을 며칠내에 사입견본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는지 타산해보세요.》

《예? 뭐라구?》

단번에 반말이 나갔다.

나는 그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하지만은 높지 않은 목소리로 공장의 모든 생산공정을 말끔히 바꿔버리겠다는것을 암시하고있었다.

나는 권하지도 않은 의자에 털썩 앉아버렸다.

《정신나갔군!》

그에게 한 말인지 나에게 한 말인지 딱히 분간하고싶지 않다.

사입견본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져야 한다.

생산지표들이 달라지고 피복공정들이 달라지며 더 나아가서는 50명이나 되는 재봉반원들에게 새로운 재봉기술을 배워주어야 한다.

우리 재단반에서는 고급재단기술을 소유한 고급 기능공들을 새로 데려와야 했다. 그러자면 당분간은 생산이 중지된다.

30년간 다져온 공장의 토대를 허물어버리는 엄청난 후파를 생각이나 하고 하는 말인가?

그는 여전히 콤퓨터화면을 주시하고있었다.

콤퓨터에서는 새로운 옷도안설계가 바뀌여지고 있었다.

《실장동무는 사입견본을 바꾸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알기때문에 설명은 피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장제품생산은 사입견본을 바꾸는것으로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니라는것만 알아두시오. 한 개인의 허영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만한 희생이 필요되오?》

격분을 참느라고 목소리가 자연히 떨리었다.

《아무렇게 말해도 팬찮아요. 나는 제품생산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입견본에 대해서 묻는거예요. 반장동무능력에 한해서 말입니다.》

조용했으나 거부할수 없다는 명령식의 어조가 느껴져 나는 텅기듯 일어났다. 이름할수 없는 불쾌감이 전신을 휘감았다.

《못해!》

나는 이 한마디에 그루를 박으며 그를 면바로 쳐다보았다.

《뭐라구요?》

그 녀자는 전혀 낯선 사람을 보는듯 한 이상한 표정으로 반문했다.

《못한다고 했소. 동문 아직도 내가 이 공장의 현실체험생인가 하지 않소?! 천만에! 주객이 전도됐소. 동문 여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왔기때문에...》

가오. 동무가 어울릴수 있는 어딘가어로! 신형재봉기가 가득하고 기성복이 짹짹 생산되는 그런 곳으로 말ियो. 붙잡지 않을거요. 그러고도 은방울꽃이 사계절 피게 해달라구?》

지연은 여전히 조용했으나 뒀담한 얼굴표정에 서리가 다 앉는것 같다.

《사계절 피는 꽃!》

지연은 또박또박 되뇌이고 창가로 다가갔다.

눈앞에 안겨오는 은방울꽃부각상.

《저 은방울꽃은 이미 향기를 잃고 시들어버렸어요. 액상계획이 20프로로 떨어졌던 그날부터... 동무는 아직도 저 꽃이 지지 않고 계속 피어있다고 생각하나요? 향기없이 시든지가 이미 오래지요. 신형재봉기가 가득하고 기성복이 짹짹 생산되는 그런 곳으로 가라구요? 못 가겠어요! 꼭 우리 송천옷공장이 그런 공장으로 되게 하겠어요!》

나에게 말하는지 저자신에게 말하는지 분명치 않은 말을 또박또박 그루박아 하고나서 지연은 천천히 기술준비실을 나섰다.

나는 한방망이 얻어맞은 사람마냥 그 자리에 못

박한듯 서있었다.

해마다 우리는 년간계획을 넘쳐수행해왔다. 액상계획에 대해서는 방도가 없다. 나는 한갓 재단반장일뿐이다. 우리는 있는것을 가지고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해왔다. 그런데 어째서 은방울꽃이 시들었던 말인가?

이때 손전화기의 진동소리가 울렸다. 손전화화면에 현시된 번호가 눈을 아프게 찌른다.

하지연이?

나는 머리속에 물음표를 가득 그린채 전화를 받았다.

《동무에게 꼭 할 말이 있어요.》

례외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를 놀라게 만들었다.

《두시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함께 가볼테가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서 나는 무엇인가 중요한것을 상기하고싶어졌다.

사랑!...

제품생산과 그로 인한 갈등때문에 내가 잊어버렸던 그 소중한 감정...

어쩌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래, 적어도 감정문제만은 명백히 해야겠어.)

...

나는 어렵פות한 기대와 가슴설레이는 희망을 안고 그와 걸음을 나란히 하였다.

야릇한 침묵...

눈가에 미쳐오는 자주색구두.

그런데 그의 걸음은 내가 상상했던 강안유보도나 아담한 공원이 아니라 복잡한 사람들속을 헤치고 시내 공업품상점앞에서 멈춰섰다.

지연은 말없이 회전문안으로 들어갔다.

《?!》

나는 물음표를 그린채 그의 뒤를 따랐다. 오래간만에 상점에 들어와보니 상점안이 류달리 흥성인다.

상점안에는 물건을 사러 왔던 사람들이 잠간씩 앉았다갈수 있는 2인용의자들이 놓여있었다.

그는 아무말없이 나를 그곳에 이끌어 앉혔다.

그리고 낮은 어조로 물었다.

《한해에 몇번이나 와봐요?》

《와본적이 없소. 올 시간도 없거니와...》

《여기서 두시간만 있어주세요.》

어망결에 의자에 앉아 눈길을 쳐드니 하얀 은방

울꽃그림과 함께 인상이 좋은 판매원처녀가 그린듯이 앉아있는것이 아닌가.

송천옷공장상품만 진렬해놓은 은방울꽃매대였다. 찰칵찰칵 상점 한쪽벽에 걸려있는 팽창히 큰 벽시계의 초침소리가 들려온다.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동안 나는 그 주위의 소음에 익숙해버렸다.

옆을 바라보니 하지연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듯이 아무 말도 없었다.

《〈은하수〉 화장품이 아직 있습니까? 난 또 이번처럼 다 팔렸으면 어쩌나 했지요.》

화장품매대에서 맑고 청청한 처녀들의 목소리가 청각을 따뜻하게 자극했다.

《〈미래〉 화장품이 새로 들어왔어요. 인기가 대단하답니다.》

친절한 판매원의 목소리와 함께 처녀들의 가벼운 탄성이 일어났다.

미래, 미래라...

처녀들의 화장품에도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가 있구나. 가슴이 부풀어오른다.

그만에야 나는 불쾌하였던 일들이며 그 어떤 야릇한 기대도 감감 잊은채 이 즐거운 소음에 귀를 기울이였다.

《엄마, 나 래일 들놀이가는데 고운 빈침 사줘요. 저거... 〈코스모스〉 꽃빈침, 우리 학급동무들이 다 저런것을 쫓아요.》

처녀애의 귀여운 응석이 들려오더니 이어 녀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렸다.

《요즘은 너무나도 새라새로운것들이 쏟아져나오니 요만한 애들의 눈도 나날이 달라지는군요.》

《그럼요. 오늘의것이 래일엔 낡은것이 되는게 지금의 우리 시대가 아니나요. 어머니들도 몹시 바빠야 할겁니다.》

판매원처녀의 목소리에 긍지감이 어려있었다.

저들은 얼마나 바쁘는가! 또 손님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갑자기 예리한 송곳에 찢리는듯 한 강한 아픔을 느끼며 눈을 떴다.

우리 은방울꽃!

그 인상좋은 판매원은 한가하게 소설책만 뒤적이고있었다.

여기 앉아있는 한시간이 넘도록 은방울꽃을 찾는 사람의 목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옆에 앉은 하지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도대체 그는 왜 여기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가?
나는 왜 여기에 앉아있단 말인가?

얼마후에 참으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몸집이
좋은 뚱보녀인이 은방울꽃매대앞에 다가왔다. 초면
의 녀인이었으나 구면처럼 반가웠다.

《한가하구만.》

판매원처녀와는 아는 사이인듯 녀인은 스스럼없
이 매탁에 두팔을 올려놓고 뜨직뜨직 이야기를 꺼
냈다.

《손자녀석이 요즘은 체육바람이 들어 축구요,
배구요, 통구요 못하는것이 없이 다 잘한다네. 그
래서 매일이다싶이 밥을 싸가는데 그 체육에만
정신이 가있으니 밥보자기채로 잊어먹고 들어오
지 않겠나? 그것도 한두번이지 오늘은 밥짝, 래
일은 밥보자기 차례로 잃어버리네. 오늘 장안을
뒤져보니 변변한게 어디 있더라구. 쓸만 한게 좀
없나?》

상점에 와서 밥보자기를 찾다니?!

나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런데 판매원은 머리를 끄덕이며 반문한다.

《밥보자기요?》

그러더니 돌아서서 자기의 판매탁을 돌아보는것
이 아닌가?! 나도 그와 함께 아연한 눈길로 은방울
꽃매대를 바라보았다.

처녀는 한참이나 머리를 기웃거리더니 파란 머리
수건을 녀인에게 들어보였다.

《이게 어때요? 볼품은 없지만 질기긴 해요.》

《그게 좋겠구만.》

녀인은 만족한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저도 모르게 뛰어들어나 그의 손에 쥐여진
머리수건을 알아냈다.

《어마나!》

깜짝 놀란 처녀의 목소리가 고막을 울렸다.

《상식이 없어도 분수가 있지. 이걸 자신이 만
든것이라고 생각해보오. 이 수건에 한뼘두뼘 수
를 놓은것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감히 밥보자기
나 하라고 주지 않을거요. 동무는 판매원의 자격
이 없소!》

아연해진 뚱보녀인이 나와 판매원을 번갈아 쳐
다보았다.

하지연은 벌어진 일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자세
로 앉아있었다. 놀라왔다. 자기 공장 상품이 이
렇게 무시되는데 그는 조금도 분노할수 없단 말

인가?

《손님이 무엇때문에 격분하셨는지 어렴풋이 짐
작이 됩니다. 하지만 눈을 바로 뜨고 귀를 기울
여보세요. 자기 손으로 만든 상품을 들고 거리에
나가 지나가는 처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게 어떤가고? 아마 그저 쥐도 안 가질겁니다. 아
무 용도에 쓰이든 판매만 잘돼도 좋겠어요. 은방
울꽃상품들이 우리 상점 창고에 체화품으로 쌓여있
어요.》

《...》

판매원의 조리있는 나무람에 나는 아무 말도 못
했다.

모든것을 다 잊고싶을만큼 고통스러웠다.

누구의 눈길도 끌수 없는 먼지오른 은방울꽃이
나에게 애처롭게 하소연하는것 같았다.

난 시들어가고있어요. 나에게 빛을 주어요. 향
기를 주어요....

여전히 상점안은 수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 다른
매대의 판매원들은 뺑이처럼 돌아가건만 우리 은방
울꽃매대에서는 책장번지는 소리만이 아픈 가슴을
허비면서 들려온다.

약속했던 두시간이 다가왔으나 지금 내 마음속의
모든 시간은 정지되어버렸다.

《여 윤지성이, 한가하구만. ...》

누군가 나의 어깨를 와락 그러안는 통에 깜짝 놀
라 눈길을 들었다.

중학동창생이었다. 비참한 정신상태에서 만나고
나니 그의 이름도 생각나지 않는다.

《여전하구만. 달라진게 하나두 없어. 이 꼭자
친구야.》

그의 마지막말이 나의 신경을 자극했다.

달라진게 없다구? 하지연도 언젠가 내게 말했
었다.

달라진게 있어야 한다고...

옆에 얹전히 앉아있는 처녀를 그제야 띄어본듯
그가 눈길로 지연을 가리키며 묻는다.

《누군가?》

그 친구는 나의 얼굴표정을 제나름대로 해석하
고 돌아섰다.

《방해해서 미안하네.》

친구가 변명조로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는 이러
게 덧붙였다.

《조카녀석이 식물채집을 가야 한다고 당장 배낭
을 만들어놓으라는데 별수가 있나? 어머니가 공업

품상점 은방울꽃매대에 있는 남자운동복이 질기다
며 그걸 사다 만들면 된다더군. 그래서...》

나는 말없이 일어섰다.

향기를 잃고 시든 은방울꽃...

이것이 바로 하지연이 나에게 하고싶은 말이였다. 그것을 명백하게 증명하려고 나를 여기에 데리고 왔던것이다. 야릇한 기대며 가슴설레였던 희망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자기자신에 대한 쓰디쓴 환멸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어느새 거리를 나섰는지...

고통스러운 침묵이 나의 걸음에 애써 보폭을 맞추는 그의 구두발소리를 짓누른다.

획 - 어디선가 날아온듯싶은 하얀 꽃잎.

우리는 약속이나 한듯이 걸음을 멈추었다.

어디서 날아왔을까?...

머리수건을 뱀보자기로 가져갔던 그 여인이 떨군 것일까? 아니면 조카의 식물채집배낭을 만들어준다고 운동복을 사가던 그 친구가?

손상된 자존심이 머리를 쳐들었다. 누를 길 없는 반발심이 뇌리를 치는 순간 나는 눈앞에 가볍게 내려앉은 은방울꽃상표를 정히 집어들고 한참동안 들여다보았다. 처녀의 구두발소리가 더는 들려오지 않았으나 나는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이제 어떻게 그의 티없이 맑은 눈동자를 꺼리낌 없이 마주볼수 있으랴!

5

달빛이 어린 은방울꽃부각상!

하지연이 대학으로 떠나던 그밤에도 달빛은 이처럼 유정했고 은방울꽃도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시들지 않게 해줘요.》

속삭이는듯 하던 그의 부탁이 귀가에 쟁쟁히 울려와 나의 마음을 아프게 채찍질하였다.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시든 은방울꽃!

그것을 인정한다는것은 참을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약은 쓰다. 써도 삼켜야만 한다. 그래야 병이 나을테니까....

나는 날이 새도록 지연이 보여주었던 기성복도안 앞에 앉아있었다. 그리고 새날이 어렴풋이 밝아올

무렵 새 사입견본에 첫 점선을 그었다.

...

그렇게 한달이 지나갔다. 내가 무수하게 지나보낸 달중에서 이번의 한달은 무던히도 바쁘고 숨가쁘게 지나간 달이었다.

매일과 같이 진행되는 종업원들의 첨단과학기술 강의며 새로운 옷도안설계와 고급재봉기술이며 그에 따르는 기술협의회며...

그 눈코 뜰새없이 바쁜 시간들에 나는 하지연과 용기내어 마주서본 일이 단 한번도 없었다.

새 사입견본이 완성되었을 때 나는 기술준비실이 아니라 고집스럽게 지배인방 문을 두드렸다.

몰라보게 수척해진 지배인의 모습에 나는 놀랐다.

《지배인동지, 이게 바로 우리가 기술협의회에서 결정했던 기성복사입견본입니다. 이것들은 언젠가 지연동무가 강의안에 들고나왔던 옷도안에 몇개를 더 첨부한것입니다.》

내가 한아름이나 되게 안고있는 사입견본에 눈길을 주던 지배인이 기술준비실창가를 손으로 가리켰다.

《방을 헛갈리게 아니야? 저쪽으로 안고 갔어야지. ...》

심정순의 가벼운 나무람에 나는 눈길을 떨구었다.

《...》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배인은 말없이 책상위에 놓여진 사입견본을 바라보았다.

《이젠 나도 늙은것 같아. 저도 모르게 자기보신에 빠졌거던.》

퍽 갈린 목소리가 방안의 정적을 깨치였다.

《솔직히 액상계획수행이 20프로로 떨어진 그날부터 제대로 잠을 잔적이 없었어. 하지만 난 래년도쯤이면 집에 들어갈 나이야. 무엇인가 대답하게 뒤집어엎고 공장의 경직을 풀어야 했지만 두려웠거던. 괜히 모든것이 복잡해지고 더 난감해질가봐. ...》

제품생산이 중지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공장으로 돌아오던 그날이 처음으로 공장정문을 힘겹게 넘어선 날이었어.

내 사무탁에 놓여있던 한통의 편지가 인정하기 힘들었던 오늘의 은방울꽃, 이미 향기를 잃고 시들어진 그 꽃에 대해서 느끼게 할줄이야. ...》

책상위에 놓여있는 자그마한 봉투가 눈에 띄었

다. 나는 말없이 그 봉투를 열었다. 각이한 크기의 송천옷공장제품상표들과 함께 네모나게 접은 종이 가 떨어져나왔다.

…사계절 피어나는 은방울꽃은 나의 사랑이었습니 다.

내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고향의 모습이었고 우리 공장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지배인동지, 은방울꽃이야기가 기억나시겠지요? 처음 재봉기앞에 앉은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말이에요. 어쩌서 수년이 지난 오늘 새삼스럽게 그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게 되는지…

엄혹한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고향 송천에 피어난 하얀 은방울꽃! 그 공장의 평범했던 재봉반장녀인이 밤새 수를 놓은 파란 봄가을목수건에 하얀 은방울꽃이 피어있었지요.

《전기사정으로 기대가 멎었으면 손으로 돌려서라도 공장을 숨쉬게 하여야 합니다. 내가 왜 은방울꽃을 수놓은줄 아세요? 어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외국방문의 길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수령님께 이 은방울꽃을 피워 기쁨을 드린 다음부터 우리 인민들 마음속엔 이 꽃이 영원한 충정의 꽃으로 새겨져있어요.

우리도 장군님께 이 은방울꽃을 피워드리자요.

고난의 행군이라는 엄혹한 겨울에 힘을 모아 향기가득 피워서 기쁨드리자요.》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밤잠을 잊고 허리띠를 조이며 손으로 기대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의 솜옷과 고깔모에, 처녀들의 목수건과 장갑에 사계절 은방울꽃을 피웠습니다.

어느날 머나먼 현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름없는 지방옷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참 훌륭한 동무들이라고,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여 주시었습니다.

그때부터 은방울꽃은 우리 고향의 상징, 송천옷공장의 또 다른 이름으로 되었지요.

지배인동지, 대학을 졸업하는 그길로 나는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그려보았던 은방울꽃은 시들어있었습니다.

해빛도, 맑은 공기도, 좋은 토양도 있는데 왜 시들었을까요?

수년전의 것과 똑같은 생산형태, 생산방식의 굳어진 도식과 틀! 공장을 질식시키고있는 이 경직

을 풀지 않으면 우리 은방울꽃은 영원히 시들어버릴것입니다.

지배인동지는 사랑과 열정에 젖어있던 그 평범한 재봉반장녀인이 자기자신이라는것을 잊으셨던겁니다. 번영하는 조국과 함께 우리 인민들의 생활수준도 급격하게 올라가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인정해야 하는 조국의 현실이에요.

어제날의 은방울꽃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엄혹한 겨울에 피운 꽃이었기에 오늘의 은방울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꿔주시는 사회주의대화원을 이채롭게 장식할 아름다운 꽃다발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나는 편지를 덮었다. 그리고 눈을 꼭— 내리감았다. 누를 길 없는 매혹과 두려움이 동시에 덮쳐들었다. 하지만 매혹은 두려움을 산산이 부서뜨리었다. 부서진 그 틈으로 탐스러운 은방울꽃 새싹이 힘있게 고개를 쳐드는것을 나는 아픈 미소를 머금고 바라보았다.

멀리 어딘가를 점도록 바라보던 지배인이 눈길을 돌렸다.

《은방울꽃은 누구 혼자서 피울수 있는 꽃이 아니야. 이 지배인도 지연이도 지성이도 옷공장 모든 사람들이 함께 피워야 하는 꽃이야.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치고 사랑과 정성을 합쳐야만 **김정은**원수님시대의 새로운 은방울꽃이 피여날수 있어. 그리고 내 인간적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어. 동무가 지연이와 남다른 사이라는걸 이미전부터 알고있었지. 지연인 사랑할만 한 처녀야. 그런데 어쩌서 둘사이의 거리가 조금도 좁혀지질 않을까? 그건 동무가 지내 편협하기때문이에요. 지연인 자기도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사이에 생긴 오해는 자기자신들이 풀어야 해. 자 윤지성동무, 절차야 제대로 밟아야지.

새 사입완성본을 가지고가서 기술준비실장의 비준을 받은 다음 내게로 다시 오세요.》

나는 은방울꽃이 활짝 피어웃는듯 한 새 사입완성본을 안고 기술준비실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그가 나를 어떻게 맞이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두려움과 기쁨이 엇갈린 야릇한 심정을 안고 나는 기술준비실문을 열었다.

(황해남도 웅진군 읍)

시 초

나는 소학교 선생님입니다

김 일 송

소학교 선생님

나는 1학년 학생들을 맡은
소학교 선생님입니다
못새들 다투어 지저귀는듯
끝이 없는 물음표속에서
나는 해종일 대답하는 백과사전같답니다

코흘려도 부끄럼 모르고
능금불에 얼룩 있어도
으시대는 아이들
책상의자 아프도록 삐걱삐걱
월새없이 뚝살내는 장난꾸러기들

짧은 글 하나 지어도
하늘만큼 커보이고
힘든 문제 하나 풀면
우주의 별을 딛듯 장해서
자랑에 급해하는 아이들

선생님이 새옷 입으면
초롱초롱 기쁨의 눈동자
거울처럼 따라다니고

엄마말은 귀등으로 들어도
선생님앞에선 착하고 공손한 아이들

존중할수록 어른스럽고
사랑할수록 어리광 많은
나의 귀중한 어린 학생들
나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위대한 내 조국의 미래이기에

물음표가 제일 많은 소학교시절
백번을 물어보면 백번을 알려주며
알아도 가장 완벽한 정의와
과학적인 진리를 가르쳐야 하기에
무엇이나 다 알아야 하는 선생님

아, 돌에 새긴 글은 지울수 있어도
아이들의 맑은 눈에 처음 비낀
조국의 모습은 지울수 없기에
애국의 첫 뿌리를 가슴마다 심어주는
소학교 선생님은
제일 높은 교단에 서있습니다

키 낮은 책상에서

소학교교실의 키낮은 책상에서
아름다운 우리 글을 배웁니다
꽃잎같은 손들에 연필을 쥐고
《만경대》《백두산》 받아 씁니다

소학교교실의 키낮은 책상에서
처음으로 《애국가》를 배웁니다

선생님의 발품금소리 맞추어
목청껏 우리 나라 노래합니다

소학교교실의 키낮은 책상에서
휘날리는 공화국기 그립니다
어서 자라 내 조국 세상에 펼칠
크나큰 심장들이 자라납니다

교 권

교권이 무엇일가요
어머니
학생들을 너무 고와한다고
이 딸을 나무람마세요

어머니 어릴적과는 달라요
그때는 선생이라면
그지없이 지엄한분으로만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이 날 보면
엄마처럼 좋아라 매달리고
등산길엔 내 머리에 꽃도 달아주고
룽구경기할 때면 내 공을 빼앗느라
밀치기도 하는게 뭐가 나빠요

어머니! 학생들앞에선
사랑하는 그 동무도 못 본척 하라는데
아이들의 눈이 얼마나 밝다구요
나보다도 먼저 그 맑은 눈들에
좋은 청년으로 비쳐들었거던요

아직은 철이 없어
세상리치는 다 몰라도
사랑과 진실만은 제일 잘 아는것이
바로 아이들이기에
참되고 끈게만 키워야 할 마음들이기에

어머니! 학생들앞에서
어렵고 엄한것만이
교원이 아니예요
높은 지성과 성실한 인간미로
학생들의 공감과 인정을 받아야 해요

세상에 다시 없는 교육제도
사회주의 이 땅에서 참다운 교원은
학생들이 저저마다 찾는
《우리 선생님!》
이 부름속에 있는거예요

학부형과 선생님

어머니를 잘못 만났다
탓하는 자식은 없어도
선생님을 잘못 만났다
탓하는 부모는 없지 않더라

부모만 한 자식생각 없다 하지만
교원만 한 학생생각 어디 있으랴
가지많은 나무에 바람잘 새 없는
오만걱정 자식많은 어머니의 마음

때로는 자식의 좋아리치는
어머니들이 부러울 때도 있어라
어머니가 치는 때는 아프지 않아도
선생님이 드는 때는 아플수 있기에

제 자식 남보다 잘 먹이고 입히고
사치한 학용품을 사주고

별스런 재간을 배워주는것이
정녕 부모의 구실을 다하는것일까

세상에 오직 제 자식밖에 없는듯
눈먼 사랑에 빠지는 부모들
직위와 명성이 아무리 높다 해도
진정한 부모라고 말할수 없으리

어렸을 때 마음속에 묻은 얼룩은
그 누구도 도려낼수 없는것이기에
인생의 영원한 첫 교과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기에

나는 말하고싶다
학부형과 선생님과의 감정은
오직 학생의 높은 점수로써만
주고받을수 있는 믿음이라고

공 지

그 누가 말했던가
이 학생들이 다 자라
제노라 이름 떨칠 때
셈세기 구구표 배워준
소학시절 선생님을 생각이나 할가...

나도 그랬다
중학시절 대학시절 스승들은
때없이 생각나도
소학교때 선생님은 어슴푸레
떠오르지 않으니

그러나 나는 더없이 사랑한다
성격도 취미도 지능도 서로 다른
서른명 나의 자식들을
모성애의 심장이 없이는 나설수 없는
소학교교실의 자그마한 교탁을

아무리 훌륭한 기념비도
기초는 보이지 않고
무성한 아름답드리거목도
그 뿌리 보이지 않거니
내가 바로 그 초석 그 뿌리인듯이

아, 날이 갈수록 미래사랑
후대사랑 깊어가는 이 땅에서
내 소학교 교원임을 자랑하노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
원수님 펼쳐가는 아이들의 세상에서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찾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완공된 과학자살림집들과
손꼽아 기다리는 중학교보다도
위성소학교에 먼저 들리셨나니

억만금 아끼지 않으시고
 인공잔디운동장을 펼쳐주시고
 아이들의 연필이 바닥에 떨어질세라
 책상마다 흙까지 파주라 말씀하시며
 키낮은 통구대도 다시 세워주시고
 황홀한 수영관까지 펼쳐주셨으니

아, 눈물겨운 그 사랑
 다심한 그 마음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보며
 어린 자식에게 더 큰 꿈을 들이는

어머니의 진정임을 어이 모르랴

어머니의 그 마음 그 진정으로
 내 한생 보이지 않는 뿌리 되리라
 사랑하는 조국을 세상에 펼쳐갈
김정은원수님의 인재들을 키우며
 내 한생 어디 가나 자랑하리라
 《나는 소학교 선생님입니다!》

(평안남도 개천시 자작고급중학교 교원)

미래과학자거리조감도앞에서

전 수 철

화가의 붓끝에서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오
 황홀하게 펼쳐진
 미래과학자거리조감도는

누구나 감탄하는
 이 화폭을 마주하니
 멋있는 광경이 눈에 보여온다오
 행복한 생활이 펼쳐진다오

전설같은 사랑속에 솟아난
 이 거리 하종아
 기슭을 못 떠나는 대동강물결우에선
 과학자들 신이 나는 뽀트경기 한창인듯

구름이 손끝에 닿는
 하늘가 50층 로대우에서
 날로 젊어지는 평양의 모습
 아기의 눈동자에 새겨주며
 건축가의 푸른 꿈 키워주는
 아름다운 녀인의 모습도 보여온다오

특색있게 꾸려진 배구장에선
 치렬한 공방전 한창인데
 드넓은 로라스케트장에선
 미래과학의 주인들
 세기를 주름잡아 썩썩 달린다오

립체미 조형미 뚜렷한
 초고층아파트 즐비한 거리에선
 함흥에서 모처럼 딸네 집에 왔다가
 어리둥절한
 할머니모습도 눈에 선히 안겨온다오

그늘진 정자나무 휴식터에선
 호기차게 울리는 장훈명훈소리에
 지나가던 길손들도 어깨성 쌓는데
 어제 밤 끝내지 못한듯
 젊은 축들 벌리는 열기띤 론쟁은
 한밤을 새워도 끝날상싶지 않소

약국이며 미용원 리발소...
 봉사당은 또 얼마나 멋들어지오
 화려한 조선옷 차려입고
 예쁘장한 접대원이 봉사하는
 저 식당 민족음식맛
 소문도 자자할걸세

한껏 즐거워진 내 마음
 강바람 시원한 유보도에 나서니
 사색깊은 걸음들도 보여온다오
 그들이 바치는 보답의 열매는
 번영할 내 조국의 재부로 주렁지고
 부강한 내 나라의 초석되어 굳건하오

아, 원수님손길아래 태어나는
 그 이름도 이채로운 미래과학자거리
 여기서 펼쳐지는 우리 생활은
 얼마나 환희롭고
 그 얼마나 가슴벅차오

시인의 상상력이 아니라오
 우리 원수님 높은 뜻 받들어
 최상의 문명, 최상의 속도를 창조하는
 건설자의 당당한 자격으로
 나는 지금 완공의 그날
 이 거리에 펼쳐질 희한한 현실을
 몇달 앞당겨 그려볼뿐이라오

평론

무지개에 비낀 정서와 랑만

최진혁

나는 지금 무지개를 보고있다.

우리 문단의 넓고 푸른 하늘에 아름답게 비낀 한 폭의 무지개를.

정녕 령통한 무지개를 보듯 그 섬세한 색채며 아기자기한 빛갈의 어울림이 그대로 비낀 한편의 단편소설을 보며 독자들은 누구나 황홀감을 금치 못한다.

《조선문학》(2014년 7호)에 실린 단편소설 《무지개》(서청송)는 새로운 성격형상과 정서적감화력으로 독자들의 심금을 울어잡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는 매 작품에서 자기가 발견한 뉘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 새로운 성격을 들고나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눈부신 선군혁명령도아래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생활의 변천을 이룩해가는 이 땅의 아름다운 인간들의 모습을 무지개에 담아 보여준 단편소설 《무지개》.

이 작품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에 대하여 역시 무지개를 빌어 평하고싶다.

1. 무지개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무지개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온 하늘을 활활 불태우는듯 한 붉은 노을도 아름답고 끝간데 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도 아름답다.

하지만 무지개의 아름다움이 류다른것은 다른 아닌 여러가지 색깔들의 조화로운 어울림때문이라.

무지개가 노을처럼 붉은빛 하나이거나 들판처럼 푸른빛 하나이라면 그 아름다움에서도 차이가 없을뿐더러 작가가 이 단편의 제목을 구래여 《무지개》라고 달지도 않았을것이다.

소설에서는 바로 이 무지개의 특성을 종자로 삼고 그 개개의 색깔들에 방직공처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대칭시켜 풍부한 형상을 꽃피웠으며 그를 통해 뜻깊은 사상적해답을 이끌어내고있다.

그래서 제목도 《무지개》인것이다.

보다싶이 우리 시대의 처녀들은 그 용모도 마음

도 하나같이 아름답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들도 하나의 사상, 하나의 뜻으로 합쳐지고 한마음으로 될 때 무지개마냥 더욱 아름다운것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소영을 비롯하여 진향이와 원심이 등 《무지개호실》의 처녀들은 다 자기의 고유한 성격미를 안고있다.

소설에서는 그들의 각이한 모습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새침데기 소영이, 진중한 진향이, 덜렁이 원심이, 덤배복청 철심이, 웃음혜픈 강금이, 꼭쟁이 현순이, 인정많은 옥심이 등...

하지만 그들은 다 하나같이 마음폭고 아름다운 처녀들이다.

우산공장 지배인인 아버지의 덕을 입어보려다가 대학입학시험에서 떨어진 후에야 남의 우산밑에서 살것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우산이 되리라는 강한 마음을 안고 방직공이 된 선동원 진향이.

소설에서 그의 형상적묘은 매우 크다. 그리고 아름답다.

원심이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처녀인가.

60년대의 방직공영웅이었던 할머니에게 보낼수 없는 편지를 매일 쓰는 기간, 잘한것도 못한것도 다 이야기하며 7백통을 쓰는 기간 그는 혁신자가 되었고 영웅이 될 꿈을 키운다.

호실의 막내이로 나이는 어리지만 소영이대신 남몰래 특류영예군인인 그의 아버지에게 다달이 소영의 혁신소식을 써보낸 웅심깊은 처녀, 역시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처녀들이 서로 돕고 이끌며 자기 하나만이 아닌 집단적혁신, 집단적위훈에 대한 갈망으로 가슴들을 불태우는것이다.

자신의 아름다움보다 서로의 아름다움을 내세워주고 가꾸어주며 그속에서 더더욱 아름다워지는 인간들, 이것이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참모습이고 《무지개》의 매력인것이다.

소설에서는 바로 이러한 개개의 인간상들을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처녀방직공들의 생활속에서 립체적으로 그려내고있다.

그를 위해 탐구된 하나하나의 극적인 세부들과 흥미있는 이야기들, 재치있는 묘사들로 하여 소설에서는 처녀들의 인물형상이 개성적이면서도 부러우리만큼 명랑하고 아름다운 모습들로 구김살없이 그려지고 있다.

정녕 부러운 모습들이다.

사실 방직공 하면 여성노동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평범한 모습이다.

하나라도 더 많은 기대를 돌리기 위해 바빠 일하는 모습, 한필의 천이라도 더 짜기 위해 아글타글 애써온 그런 모습이 이미전에 창작된 문학작품들에서 누구나 얻을수 있는 방직공의 표상이다.

그러나 단편소설 《무지개》에서는 계획수행이나 다기대관리 등 일면적이고 일반적인 문제보다 혁신자영웅이 되려는 청춘들의 열망에 대한 문제, 바로 그 길에서 사랑도 우정도 꽃피우려는 새로운 높이에서의 처녀노동자들의 형상을 창조하여 평범하면서도 안팎으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새 세대 여성로동계급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방직공들을 어느 처녀들이 부러워하지 않으며 어느 총각들이 탐나하지 않겠는가.

비록 빼여지게 차려입고 화려한 무대에 서있지는 않지만 언제나 수수한 작업복차림으로 수많은 녀성들로 이루어진 거창한 일터에서 누가 보진말건 인민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조국의 부를 늘여가는 자랑스러운 처녀들.

무지개가 아니라 그 무엇에도 비기지 못할 우리 여성로동계급의 참된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우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이고 인민의 마음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단편소설 《무지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꽃피나는 우리 여성로동계급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참된 삶을 구가하는 또 하나의 성과작이라고 할수 있는것이다.

매 인간의 아름다움이 하나의 뜻과 정으로 합쳐져 보다 큰 아름다움으로 꽃피나는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멋이기에 그것을 뿌리로 하여 형상을 펼친 단편소설 《무지개》의 매력도 거기에 있는것이다.

2. 무지개가 놓은 다리

예로부터 무지개는 아름다운 다리로 상징되어 왔다.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혹은 산과 바다를 잇는 다리 등 사람들은 그 한끝에 희망을 두고 그 한끝에 소원을 이어 행복의 칠색다리로 시구절에도 울

리고 노래로도 불러왔다.

단편소설 《무지개》도 처녀들의 아름다운 생활 화폭과 독자들의 감정사이를 이어주는 정서의 다리, 언어의 다리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소설은 독특한 세부형상과 짜인 구성, 세련된 언어로 독자들의 가슴에 그 한끝을 드리우고 주인공들의 생활에 대한 독자들의 찬양과 동경이 오가게 하며 그 숭고한 리상의 높이로 두둥실 띄워주는 무지개다리이다.

그러면 그 다리 한끝이 독자들의 가슴에 대번에 묵직한 정서적충격으로 육박해들어오는 그 하나하나의 계단과 란간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우선 소설의 아기자기한 형상의 갈피갈피에 숨배여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회적문제의 발견이다.

단편의 매력은 어느것이나 소설이 작은 생활속에 제기한 사회적문제성의 심각성과 그 해결의 재치성에 있다.

단편소설 《무지개》가 안고있는 문제성 역시 우리 생활속에 의연히 존재하며 누구나 쉽게 보지 못하는 작가가 예리하게 투시해낸 사회적문제이다.

그것은 안호일직장장의 심리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누구에게 기대를 맡기든 돌아가는 시간은 같다.

기능급수에 따라 차이는 좀 있겠지만 생산량도 거의 일치하다.

사람은 내세워주면 된다. 그러나 한사람때문에 열사람이 희생당할 때가 있다. 그것은 책임진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일군들은 항상 대중의 우산이 된다고 하지만 그 대중중에서 편안한 사람도 있다. ... 그러면 명예욕이 생기고 판료주의가 자라나 진실과 거짓을 가려보지 못하게 된다. 그럴 때 대중속에는 의심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며 순박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다. ...》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진향이라는 영웅의 우산을 만들어놓고 직장장의 명예와 더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명예를 빛내보려 하던 직장장 안호일의 이런 《전략적인》 조치로 하여 다름아닌 소영이도 피해를 입었다.

오래동안 직포기를 돌려온 소영이를 비롯한 다른 처녀들의 직기를 때서 권사공이던 진향이에게 《영웅의 발판》으로 넘겨주었다.

바로 그때부터 소영은 혁신자가 되기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욕이나 먹지 않게 일했다.

소영이 보기에 직장장의 머리속에는 혁신자나 영

웅이 따로 있었다.

그를 위해 위훈과 혁신의 발판이 필요했다.

자신이 그 발판으로 되었다고 생각한 소영이, 그에게서 혁신에 대한 열망과 영웅의 꿈을 앗아간 것은 한 노동자처녀의 넋을 뺏고 허울만 남긴 것과 같은 죄된 짓이 아닐수 없으며 명예의 대가로 되는 《희생》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명예를 위한 혁신, 평가를 바라는 위훈이 무엇에 필요한가.

소설에서는 단 한 사람의 락오자도 없는 집단의 명예, 집단적혁신을 지향하는 새 세대 노동계급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그속에서 누구나 다 혁신자로서라는 긍지로운 투쟁모습을 통해 이 문제에 해답을 주고있다.

그리고 일개인의 명예는 명예로 남지만 집단의 명예는 억센 단결의 힘을 낳고 그 힘은 누구도 헤아리지 못할 기적을 낳는다는 집단주의에 근본을 둔 또 하나의 진리를 우리 독자들—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재치있는 형상으로 깨우쳐주고있다.

다음계단을 올라보면...

소설이 읽을 맛이 있고 독자들에게 무지개다운 이채로운 색깔과 여운을 주는것은 기름진 세부형상이 주는 정서적감흥때문이다.

실지로 소설은 방직공특유의 생활속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다채롭고 생동한 세부들의 련속이다.

5.1절야유회에서 만난 총각들이 처녀들의 일터에 대해 물을 때 《테트론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는 총알같은 대답이며 이름을 물을 때엔 《옥양공》, 《권사공》 등 직공부름으로 대답하는 세부들은 자기 일터와 직업에 대한 처녀방직공들의 남다른 긍지가 엿보이는 세부이다.

그런가 하면 체육인총각들과의 특기경쟁에서 소영이가 보여주는 바늘짜기장면이나 설비점검날 소영이와 원심이가 하는 말꼬리잇기장면 등은 처녀방직공들의 생활에 대한 깊은 체험과 탐구가 없이는 쉽게 형상 못할 값진 세부들이다.

그런 세부들에 이끌려 독자들은 다음사건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예측을 앞세우고 저도 모르게 입귀를 버그러뜨리며 소설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진향이의 우산세부는 참으로 작은 이야기속에 큰 의미를 담고 독자들의 가슴을 파고든다.

언제나 긴 우산을 지팡이처럼 들고다니는 진향이, 개인 날조차 병사가 총을 메고다니듯 늘 쥐고다니는 우산이어서 직장장도 우스개소리로 통을 주곤 했지만 진향은 가볍게 웃을뿐이다.

바로 그 우산에 온 직장이 다 들어간 그날 진향

이가 들려준 우산에 대한 사연은 참으로 감명깊은 것이다.

아버지 우산밑에서 호강하려 한 진향이에게 노한 아버지는 이렇게 타일렀다.

《남을 위해서 우산이 되지 못하고 남의 우산안에만 찾아들어가는 사람은 꼭 진창에 빠진다.》고—

진향이는 그 뜻을 새기고 진정 남을 위한 우산이 되고저 호실을 혁신자호실로 만들었으며 소영이도 너그럽게 안아 그를 위해 자신의 마음과 지어 영웅이 될수 있는 기회마저도 서슴없이 바치는 것이다.

이 하나의 세부가 소설에서 노는 형상적묘음은 매우 크다. 집단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것, 작은 마음속에 집단을 안고사는 마음이 자라고자라 동지애로 깃들고 조국애가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소설에서는 통보문세부와 편지세부를 비롯하여 감칠맛이 나면서도 의미깊고 흥미있으면서도 감동깊은 세부들로 독자들의 마음속을 뚫고들어오는 무지개다리의 한계단한계단을 늘어나갔다.

작가가 이미전에 창작발표한 단편소설 《영원할나의 수업》(《조선문학》 2014년 6호)을 놓고보아도 이러한 참신하고 독특한 세부형상에 많은 탐구와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또 하나의 계단을 올라보면...

단편의 매력은 또한 독자들의 예상을 뒤집는 구성의 매력과 독특한 언어형상의 매력을 전제로 한다.

단편소설 《무지개》에서는 구성수법에 있어서 재치있는 뒤집기수법들로 독자들의 예술적감흥을 한층 돋구어주고있다.

그 하나가 바로 소영이의 《간첩》오해사건이다.

소영의 일신상 작은 세부까지도 일일이 애인에게 통보해주는 《간첩》은 과연 누구일까.

소영의 눈에 덜렁이 원심이가 첫번째 혐의자로 걸려든다.

매일 밤 어디엔가 꼭꼭 편지를 쓰는 원심이, 덜렁거리면서도 새로운 웃음거리와 장난거리를 잘도 빚어내는 원심이여서 소영은 그를 의심했고 어느하루는 결단성있게 《적발체포》한다.

그러나 원심이는 소영의 애인에게가 아니라 보고싶어하면서도 전화를 못하는 특류영예군인인 소영의 아버지에게 소영이의 혁신자된 소식을 남몰래 전하곤 했다.

뒤집어지는 독자들의 예상은 소영의 마음과 함께

뜨거운 감동으로 이어진다.

《간첩》은 바로 진향이, 소영이가 전혀 의심하지 못한 진중하고 말없는 처녀 진향이 바로 그 정보전달자로 되어 독자들의 예측을 뒤집는다.

소설은 마감에서 다시 한번 재치있게 뒤집어진다.

독자들은 누구나 다 소영이 그렇듯 사랑하는 애인과 땀땀이 만나게 될 상봉을 기대한다.

그러나 서로가 통보문으로 무르익혀오고 약속해온 상봉의 그 시각, 약속한 장소에 나타난 사람은 소영의 애인이 아니라 바로 소영의 애인역을 수행해온 진향의 애인—기관사총각이다.

소설에서 소영과 체육선수 권충길의 상봉장면은 끝내 마련되지 못한다.

그러나 독자들은 물론 소영이도 아쉬워하지 않는다.

소영의 애인이 진향의 애인으로 뒤집어진 그 극적대목에서 독자들과 또 소영은 서로가 서로를 끝없이 사랑하고 위해주는 우리 사회, 이 땅에 넘치는 정과 정의 아름다움에 가슴을 적시게 된다.

단편은 이렇게 되여야 한다.

충분한 생활의 타당성을 타고 흐르되 한번 뒤집고 두번 뒤집고 세번 뒤집어서라도 오늘날 매우 높은 문학적소양을 지닌 우리 독자들의 예상을 뒤집을 때라야 웅당한 예술적감흥과 정서적충격을 주게 되는것이다.

구성뿐아니라 소설의 언어형상 역시 개성이 뚜렷이 엿보인다.

모든 어휘들이 다 한편의 서정시를 읽는듯 격동적이고 박력이 느껴지는 문체로 씌여졌다.

간결하면서도 속도감있는 문장들, 어순전도와 반복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수필체로 형상된 문장들과 생활적이면서도 진실한 대사들을 읽노라면 독자들은 저도 모르게 소설의 주인공들과 함께 가슴을 들먹이게 된다.

특히 문장들이 매우 짧고 단순문과 단일문들이 기본을 이룬다.

짧음이 넘치고 박력있는 문장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달려오고 부서지는 파도마냥 들먹이는 호흡으로 일관되고있다.

그러면서도 심리와 행동에 대한 감각적인 묘사들이 그 흐름속에서 섬세하게 펼쳐졌다.

《으하하...

총각들이 웃고

깔깔깔...

처녀들도 웃고

...

순서대로 대주었다. 직포공, 기대공이며 양성공까지 사랑하는 그 이름모두를.

그제야 총각들이 알았다. 그 이름의 의미를, 그들의 직업을...

《또다시 박수소리, 박수소리...

그다음 다같이 불렀다.

노래, 체육인의 노래, 방직공의 노래를...

이것은 5.1절야유회때 방직공처녀들과 체육인총각들의 화합을 보여주는 문장들이다.

시의 한구절같기도 한 문장들.

소설의 문장들이 고재치는듯 한 열정을 안고 격동적으로 씌여졌다.

그런 실례는 소설에 얼마든지 있다.

《저 사람이다. 바로 저 사람!

야유회에서 만났던 그 사람을 다시 상상해보았다.

키, 큰 키, 비슷했다. 눈, 억실억실한 눈, 비슷했다. 아니, 똑같았다. 분명한듯싶었다.》

이러한 반복과 대구의 자유로운 리용은 다른 소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문체이다.

소설은 그러한 문체—수필체로 마감 역시 특색있게 맺었다.

《처녀들아, 우리도 그때는 거수경례로 화답하자.

우리가 병사들처럼 못할건 또 뭐냐.

〈거수경례로!〉

〈거수경례로!〉

소영은 진향이가 가져다준 〈체육신문〉을 보고 또 보며 그날을 상상했다.

그 상봉의 날, 공화국기를 펼쳐든 그날을.

우리 청춘은 이렇다! 우리 무지개는 이렇게 아름답다!

오, 삶은, 미래는 창창하다!

태양, 이 땅에 태양이 있기에!...》

독자들의 마음을 휘저으며 흥벽을 두드리는듯한 격동적이고 자유분방한 문체의 대담한 구사, 독특하면서도 개성적인 언어형상으로 《무지개》는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 풍만한 정서로 독자들의 마음의 밑바닥까지 공감의 다리를 놓을수 있었다.

소설의 구절구절에 엿보이는 젊음과 자신심, 뚜렷한 개성!

바로 《무지개》다리의 한돌기한돌기는 작가가 바쳐온 피타는 고심과 노력의 한돌기한돌기 이리라.

3. 무지개에는 검은빛이 없다

무지개에는 검은 색깔이 없다.

이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고 또 자명한 리치이다.

하다면 단편소설 《무지개》에는 검은빛이 있는가, 없는가.

물론 이 소설에도 부정이 있고 갈등이 있다.

그러나 그 갈등은 아름다운 《무지개》에 한점의 그늘도 주지 않고 오히려 형상의 밑바탕에서 인물들의 성격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단편소설 《무지개》는 갈등의 설정과 해결에 서로 작품의 양상에 맞는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소설의 예술적갈등은 등장인물들의 내면세계에 반영되어 인물들사이의 직접적인 성격충돌이 아니라 내적체험에 기초한 심리적충돌로 설정하였으며 이야기발전과정과 더불어 스스로 해결된다.

소설의 주인공 소영이 자신도 결코 긍정인물이 아니다.

락오자도 아니고 혁신자도 아닌 처녀, 삶은 소리는 듣지 않지만 칭찬도 바라지 않는 조용한 처녀, 그것만으로도 그는 쌀의 벼알처럼 부정적인 인물로 되는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그는 부정인물이 아니었으며 그로 하여 다른 등장인물들과 아무런 대립도 충돌도 없다.

직장장과의 갈등 역시 내적체험으로만 간직하고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부단한 심리적충돌속에서 절로 해결되는것이다.

자기의 기대를 진향이에게 넘겨준 때부터 소영은 혁신자가 되려는 의욕을 버렸다. 왜? 역시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명예에 대한 다분한 리기심이 있었기때문이었다.

5.1절야유회에서 체육인총각을 만난 그때, 바로 그때부터 소영이의 가슴속에는 애인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는 마음과 더불어 또다시 혁신자가 되려는 열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만약 그 총각이 금메달을 타오는 날 그때도 평범한 처녀로 있다면, 그 무엇도 자랑할것이 없다면 어떻게 당당히 그앞에 나설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사랑앞에 떳떳하려는 소영의 쉽지 않은 결심마저도 아직은 자기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집단의 명예보다 자기의 사랑을 귀중히 여기는 데서부터 출발한것이었다.

그렇게 혁신자로 자라는 기간 그는 자기 하나를 위해 남모르게 바쳐지는 진향이와 원심이를 비롯한

한호실처녀들의 뜨거운 진정을 알게 되며 집단의 사랑을 모금모금 받아안고 한순간 움뻐던 부정의 싹이 긍정의 꽃으로 피어나게 되는것이다.

자기에게 애인의 자격으로 통보문을 보내오던 사랑이 다름아닌 진향의 애인이었다는것을 알았을 때에도 그는 실망이 아니라 뜨거운 감동에 휩싸이게 된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위해주었는가.

...

이들을 위해서 혁신자가 되고 공로자가 되는건 얼마나 웅대한 일인가.

이들속에서 떨어진다면 그 인간의 생은 얼마나 비참해질것인가.》

정을 알고 진정을 깨닫는 인간은 그만큼 아름다워지는 법이다.

이렇게 소영은 무지개처럼 이 땅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집단의 사랑과 정을 알며 그 역시 아름다운 무지개의 한폭으로 되는것이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소영의 내면세계에서 부단한 심리적충돌과정에 스스로 갈등이 해결되도록 사건발전과 감정조절을 일치시켰으며 그로 하여 랑만적인 화폭속에 극적인 계기들을 자연스럽게 조화시켰다.

《무지개》속에서 사는 소영이기에 그는 결코 검은색이 아니었다.

그러면 직장장 안호일은...

그는 이 소설에서 당당히 부정인물의 뿔을 가지고 기본갈등의 주인으로 될수 있는 인물이다.

소영의 마음속 웅이도 다름아닌 안호일의 그릇된 생각과 조치로 하여 박힌것이다.

그러나 직장장 안호일도 어떤 극적정황이나 다른 인물과의 구체적대립, 충돌이 아니라 내면적인 심리충돌속에서 자신의 본태를 찾도록 형상되고 있다.

집단의 명예와 개인의 명예.

이 두 저울추를 걸고 눈금만 보아오던 안호일직장장은 진향이를 비롯한 처녀들의 뜨거운 진심앞에서 일군된 자각과 망심을 되찾는다.

그는 진향이의 말에서 옛 부분대장의 목소리를 듣는것이다.

그는 자기 망심앞에, 자기의 명예판앞에 끝없이 반문한다.

《내가 한명을 내세워 얻자는것이 무엇이었던가.

몇명을 희생시켜 얻자는것이 직장의 명예였던가, 아니면 자신의 명예였던가, 우에 잘 보이자

침이었던가.》

그 반문속에서 안호일은 량심의 먼지를 씻어버리며 소설의 부차적 갈등 역시 풀려나가는 것이다.

안호일 역시 무지개속의 아름다운 한줄기 빛이고 색깔이었기에, 우리 시대에 달리는 될수 없는 인간이기에 그 역시 검은색은 아니다.

무지개에는 검은빛이 없다.

소설은 우리 시대의 밝고 랑만넘친 생활을 형상하는데 맞게 예술적갈등의 설정과 해결 역시 특색있게 처리함으로써 집단의 힘으로 전진하고 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는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위대한 태양의 빛이 있어 이 땅에는 서로 다른 색들이 하나로 합쳐져 아름다운 무지개로 비껴가리라는 작가의 주장이 여기에서도 맥맥히 울려나오고있다.

태양의 사랑속에 인간들은 얼마나 아름다와지는가.

무지개에 검은색이 없듯이 우리 사회, 우리 생활에는 한점의 그늘도 없을것이다.

소설은 이렇게 웨치고있다.

4. 무지개는 영원하다

자연의 무지개는 잠간 비졌다 사라진다.

그래서 아쉬움을 남기는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무지개는 영원하다.

태양이 있기에, 그 빛이 영원하기예.

방직공들의 합숙을 세상에 부러운것 없는 만점짜리 보금자리로, 호텔보다 더 멋지게 지어주시고 몸소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 뜻깊은 설날 아름다운 머리수건까지 선물로 보내주신 그 사랑이 없었다면 단편소설 《무지개》도 아쉬움을 남겼을것이다.

그것은 그 따사론 사랑이 우리의 주인공들을 진짜 무지개로 꽃피워주었기때문이다.

하기에 소설은 그 마감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청춘들의 집을 하늘의 무지개가 층층이 쌓여진 무지개집이라고 소리높이 자랑하고있다.

하늘에 비낀 무지개도 이 땅에 비낀 무지개가 하늘을 물들여 밝고 아름답게 빛난다고—

소설은 처음부터 엮어온 《무지개》이야기를 우리 로동계급을 위하시느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로 비약하여 그 절정을 이루고있다.

《무지개!

무지개는 태양의 빛이다.

그 빛을 받아 서로 다른 아름다운 색들이 꼭 하

나로 합쳐지듯이 이 땅, 이 나라엔 수천만사람들이 일심단결된 하나의 무지개가 아름답게 비껴있지 않는가.》

물론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독자들은 누구나 이해한다.

그 위대한 사랑이 서로 돕고 이끄는 내 나라의 아름다운 일심단결의 화원을 가꾸었고 평범한 로동자처녀들도 온 세상이 부러워할 아름다운 인간들로 키워주신것 아닌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펼쳐진 새로운 전변, 우리 녀성로동계급의 긍지높은 생활과 감정세계를 민감하게 형상하여 자그마한 이야기에 보다는 큰 생활의 진리를 밝혀낸데 소설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의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본다.

랑만넘친 생활에서 랑만넘친 형상이 나오는것은 응당하다.

그만큼 특색있는 종자를 찾아내어 특색있는 형상을 창조하기까지 작가가 기울인 고심과 정열 또한 클것이다.

성파에 비해 보잘것 없는것이지만 몇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소설이 격동적인 문제로 씌여지다나니 소설고유의 묘사가 미약한것이다.

많은 경우 회화적인 묘사보다 구체적설명이나 주정도로가 기본으로 되고있다.

인물들의 성격이 그 모습이나 행동, 심리가 아니라 설명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항이나 원심이를 비롯한 처녀들, 직장장 안호일 등의 구체적성격과 용모가 뚜렷한 표상으로 안겨오지 않는것도 그때문이라고 본다.

그런가 하면 성격형상에서 비진실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다.

행동도 느리고 얌전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새침데기 소영이가 총각들을 처음 만난 그날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수줍음도 없이 척 나서며 마치 미리 준비나 했던듯이 바늘과 실을 꺼내들게 한다거나 오락회에서 의미깊은 이야기로 청중을 감동시키게 한것 등 장면들에서 성격의 불일치가 엿보인다.

첫눈에 반하여 사랑에 불탄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그런 성격의 변화가 실지로 가능하겠는지...

진항의 우산이야기 역시 억지감이 나는 부분이 있다.

아무리 깊은 사연이 있기로서니 맑게 개인 날마저도 큰 우산을 꼭 들고다닌다는것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생활의 론리에 어긋나는감이 다분하다.

우산세부가 소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만큼 거기에 자그마한 빈구석도 있어서는 안되는것

이다.

그러다나니 우산세부가 소설에 꼭 필요하기때문에 억지로 끌어들인감을 주게 되고 그것으로 하여 진향이의 또 다른 성격적측면—고집스런 모습이 불필요하게 안겨오는것이다.

치녀들이라면 지금 한창 류행인 자그마한 접이식 꽃우산을 들고다닐수 있다. 그러나 진향이만은 꼭 긴 우산을 지팡이처럼 들고다녔다.

이런 식으로 처리했으면 사연깊은 우산에 대한 설명도 쉽게 나올수 있고 그 의미도 보태여질수 있었다.

왜냐면 진향이가 날씨에 관계없이 우산을 든다면 거기에는 비올 때 먼저 찾는 우산이 되자는 의미가 먼저 오기때문이다.

분명히 소설에서는 남을 위한 큰 우산이 되리라는 진향이의 마음을 부여했을진대—

물론 소설이 주는 정서적감흥에 비해볼 때 스쳐지날수 있는 문제점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독자들은 앞으로 보다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고싶어한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헌신적인 강성국가 건설령도와 뜨거운 인민사랑의 정치는 날에 날마다 이 땅 가는 곳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전설을 낳고 있으며 평범한 인간들을 시대의 전형으로, 영웅으로 키워내고있다.

그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이 땅에 비낀 일심단결의 무지개, 인간사랑의 무지개는 영원할것이며 더더욱 아름다와질것이니.

우리 작가들은 벅찬 시대의 인간서사시를 보다 훌륭히, 보다 아름답게 창조해내기 위해 모든 정열을 다 기울여야 할것이다.

태양의 영원으로 무지개가 영원하듯 그 아름다운 세상을 세상에 소리높이 구가하는 우리의 문학작품들은 오늘의 《무지개》처럼 그 형상적매력과 정서적여운으로 독자들의 기억속에 영원한 생명력을 가질것이다.

=====

상 식

피테의 모험과 과학탐구

도이칠란드시인 피테는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다.

피테라면 누구나 《젊은 웨르테르의 변민》을 세상에 내놓고 20대에 이름을 날렸으며 《프로메테우스》, 《들장미》, 《파우스트》 등으로 유명해진 작가였다는데 대해서만 알고있지 그가 법학자, 철학자, 화가, 연출가였다는데 대해서는 잘 모른다. 더구나 그가 자연과학자이기도 하다는데 대해서는 관심을 두는 사람이 많지 않다.

피테는 과학분야를 탐구하는데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한 과학자이기도 하다. 그가 내놓은 《식물의 변화》(전 8권), 《광학연구》, 《도이칠란드건축술》, 《색채론》 등은 식물학자, 물리학자, 건축학자, 화학자로서의 지위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의학계에서 인체의 턱사이뼈를 발견한 학자도 피테이다. 그의 지질 및 광물학자로서의 활동도 실로 놀라운것이었다.

피테가 이탈리아에 있는 베주비오스활화산폭대기에 올랐을 때 있던 일이다. 그날도 베주비오스산은 설새없이 연기를 뿜어올리고있었다. 언제 용암이 분출하여 사방에 돌비를 뿌리겠는지 모를 아슬

아슬한 순간이었다. 분화구에 다가간 피테는 땅이 금방 깨지는듯 한 굉장한 음향을 들었다. 피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온몸을 전율케 하는 무시무시한 연기가 솟구쳐올랐다. 요란한 땅울림과 함께 크고작은 암석들이 화구안에서 돌개바람처럼 휘몰아치더니 그중 얼마간은 밖으로 튀어나왔다. 화산재는 하늘을 뿌얇게 덮었다. 피테는 가지고온 배낭속에 화석들을 잔뜩 채워넣었다. 분화구에 대한 탐구심이 그로 하여금 이런 모험까지 하게 했던것이다. 그는 화구안을 들여다보았다. 연기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화구안을 유심히 관찰하였다. 또다시 연기가 타래쳐오르기 시작하였다. 분출시간이 되였는가보다 하고 피테는 생각하면서 바위쥘에 몸을 숨기었다. 이윽고 분출이 시작되어 굵직한 모래알들이 사정없이 그한테로 휘뿌려졌다.

《자연의 비밀을 밝혀내는 과학연구야말로 문학보다 험치 않은 학문이구나.》하고 피테는 중얼거렸다.

이처럼 피테는 문학뿐만아니라 자연과학을 꾸준히 탐구한 이름난 시인, 과학자였다.

멋쟁이 지식인 청년의 형상을!

림 순 남

새 세기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미래를 향하여, 최첨단을 향하여 달음쳐가는 오늘의 현실은 소설창작에서 인간문제도 성격형상도 언어구사도 멋쟁이, 미남아를 요구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도식은 문학과 독자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이다. 작가는 온갖 도식에서 벗어나 저마다 새로운것을 들고나와야 한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오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실현자, 관철자들인 과학자, 기술자들의 미더운 형상을 담은 소설들이 힘있게 창작되고있다.

이미 장편소설 《불타는 려명》, 《은하수 흐른다》, 《래일에 사는 사람들》, 《녀학자의 고백》 등 부피두터운 장편소설들을 비롯하여 《나래를 퍼덕이라》, 《나의 희망 별하늘》과 같은 단편소설들이 창작되어 새시대, 과학기술시대의 면모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시대적흐름속에 또 한편의 장편소설 《함께 사는 사람들》이 창작되었는데 독자들은 이 소설에서 한두명이 아닌 웅근 하나의 대오를 방불케 하는 미더운 청년지식인들을 보게 되며 그가운데서도 이채를 띠면서 두드러지는 청년기사 리운호와 새롭게 알게 되면서 흥분한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 국제무역지대가 창설되고있던 동북변 항구도시의 공장, 기업소들앞에는 사회주의원칙을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새 세기를 내다보는 혁신적안목으로 경제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할 문제가 절박하게 나섰다. 시대적배경은 비록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이지만 작품이 안고있는 문제의 심각성으로부터 오늘의 현실, 특히 새 세기를 내다보는 혁신적안목으로 경제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하는 구체적인 현실적요구로부터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가되는 소설이다.

소설은 변화된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의 투쟁을 다양한 인간관계와 생활적인 이야기로 펼쳐보고있다.

이 소설의 인물배치에서 특징적인것은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다른 많은 소설들에 비해 그 수가 특별히 많은것이다. 풀섬양식기사 해심, 산업설계사업소 설계가 현숙, 세멘트공장 책임기사 운식, 형타수리공장 기사 운호, 풀섬양식사업소 지배인 서경, 시방송위원회 경제보도부 기자 문광 등 이러한 긍정인물들과 기사로서 유일한 부정인물인 대외청부설계실장 유민수까지 포함하여 실로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모두가 젊었다. 또 모두가 개성화되어 있다.

깊고깊은 바다속처럼 그 표면을 보아서는 깊은 속내를 다 헤아리기 어려운 내성적인 진해심, 짙고 맑으면서도 도고하기 그지없고 마디마디가 꼭꼭 찌르는것처럼 쌀쌀한 현숙, 늘 옷차림이 단정하고 누구나 그의 날카로운 눈길을 피할수 없을 정도로 사리에 밝고 실무에도 밝은 지배인 서경, 기사로서 상대방의 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말없이도 많은 말을 던질줄 아는 준수하고 예민한 문광, 부정인물로서 처세에 능하고 시세변동에 민감하여 늘 자신을 앞서가는 지식인이라고 내심 자칭하는 유민수...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차례로 부르면 그 때 개성들이 대답을 하며 성큼성큼 나선다. 한편의 소설에서 이렇게 매 인물들을 개성화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지식인형상무대에는 이때까지의 반복되는 그릇된 형상경향에 의해 그 성격들이 몇가지로 굳어져온 도식과 틀이 있다.

뛰어난 지식에 비하여 개인적인 인간생활에서는 정서적인 좁이 메마르다든가, 혹은 거칠고 이지러진 측면이 있다든가, 사랑에서 남다른 우여곡절이 있다든가.

총적으로는 뛰어나고 풍부한 실력에 보조가 맞지 않는 일상생활에서의 이러저러한 불균형, 부조화가 대체적이었다. 물론 수많은 지식인들속에 그런 사람이 실지로 있을것이며 예술적으로 재가공되어 형상되었을것이다.

그것도 처음에는 독창적인것으로, 진실한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러한 형상이 다른 작품들에 반복되면서부터는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력사가 흐르고 시대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실속에서 장편소설 《함께 사는 사람들》은 단번에 여러명의 지식인을 다주인공적으로 나란히 내세우되

그 한명한명을 밝고 다정하게, 사색적이며 활달하게, 지성적이며 준수하게 개성화하였다.

소설에 펼쳐지는 국제무역지대창설을 위한 전역에 나란히 들어세운 이 적지 않은 청년지식인들속에서 가장 이채롭게 두드러지는 인물은 형타수리공장 기사 리운호라고 말하고싶다. 뜻밖에도 그는 동심속에 살고 동심을 자랑하고 동심으로 미래를 보며 활기있게 뛰어가는 남자의 모습을 보이고있다.

동심과 지식청년!

이 두가지 개념은 이제까지의 경직된 사고방식으로서는 그 결합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새롭다. 이제까지의 이러저러한 경직된 사고방식에 의하면 지식인들은 자기 분야에서 남들보다 풍부하고 깊은 지식세계를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못사람들과 구별되며 풍부한 지식, 깊은 사색, 저력있는 언행 등 이모저모에서 자기 년령기를 초월한 즉 성인세계를 보다 앞당겨사는 사람들로 인식되어있다. 그런데 동심에 사는 기사 리운호는 자기 년령을 앞당겨사는 사람들에 비해 전혀 반대방향의 양상을 보여주고있다.

《〈행, 난 동요, 동시 아홉편이나 발표했소. 〈우리 교실〉 문학상두 탔거던. 그건 메달까지 있소.〉

〈대단한데요.〉

〈동무가 나하구 친하면 보여주겠소. 친하겠소?〉

〈메달이나 구경하자구요? 흥!〉》

앞날의 두 련인으로 소문나게 될 리운호와 리현숙의 첫 상봉시에 오가는 짝막한 대화이다. 리운호는 정말 아이처럼 자기를 자랑했으며 이에 깔깔하고 도고한 현숙은 놀라면서 또 놀리기도 한다. 현숙의 심정이자 독자의 심리이기도 하다.

계속해서 리운호가 진해심과 리현숙을 다같이 만나는 장면을 보자.

《〈우리 셋이 다같이 풀섬에 나가보기요. 해심 동무는 주인으로서 안내하구 현숙동무는 설계가니까 설명해주구.〉

톡톡거리는 현숙이의 말을 조금도 타내지 않고 자기나름의 공상에 잠겨 운호는 지그시 실눈까지 지었다.

〈난 거기 가면 멋진 동요, 동시를 써낼지도 몰라. 아니, 꼭 써낼거요.〉

현숙은 그만 어처구니없어 머리를 들며 먼산을 쳐다보았다. 그 고운 코구멍으로 흰 코김이 콧 불려나왔다.

〈흥, 서사시를 써도 모르겠는데 기껏 동요, 동시?〉

해심이 역시 그랬다. 풀섬개척전투는 자기들의 가슴속에 영웅서사시처럼 간직되어 때없이 심장을 울려주고있는데 동요, 동시라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요. 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구 솔직한건 동심이요.〉

꾸밈과 과장, 외곡이 없는 순결한 동심이 감탄할 때 그 이상 값높은 평가가 어디 있겠소?〉》

너무나도 힘있게, 옹호하듯 울리는 운호의 목소리에 두 처녀는 못박아선다.

아울러 독자도 그 자리에 못박아서며 제나름으로 생각한다. 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솔직한 동심, 참말이지 동심이야말로 그래서 그림고 귀중한것이 아닌가.

무릇 동심의 주인공들인 아이들은 동심을 모르고 지낸다. 어른들에게 있어서 동심은 추억속에 되살아오고 그리움을 자아낸다. 과연 동심시절에 진짜 동심의 가치를 알고지내는 아동이 있을까.

있다면 그는 벌써 아동이 아니며 어느덧 조숙아로 불리운다. 그렇다고 동심의 가치를 드디어 안성인이 동심을 되찾고 동심에 잠겨 산다는것 또한 그려보기 어렵다. 운호가 바로 그렇게 산다는데 방점이 있다.

청춘기에 살아 정열이 남아돌아가는 무분별한 정열의 남아도 아니고 장차 건설장재공장으로 변모될 형타수리공장의 핵심기사이며 또한 앞날의 류진물길굴건설돌격대 대장으로 임명될 리운호이고 보면 이러한 그의 성격규정은 자못 심중하다. 이런 시점에서 운호의 성격을 심중하게 분석하면 그 하나하나가 정말로 동심에 묻혀있는것 같으면서도 우리 시대 지식청년들에게 여러개의 침을 놓는듯한 형상이다.

운호는 광산금속대학을 졸업하고 형타수리공장에 기사로 왔지만 형타수리공장은 이미 10년전부터 자기 사명을 다하고 시대밖으로 밀려난 형편이다.

운호는 공장에 금속가공기계기사가 할일이 하나도 없으니 심심하다면서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인 류진공업대학에 다닌다. 정식 편입한것이 아니어서 출석부에 이름도 없지만 단 하루도 결석하는 일이 없이 부지런히 다닌다. 공장의 젊은 축들을 휘동해서는 한때 이름있던 공장축구팀을 되살리려고 주장이 되었다. 독자는 여기서 납지 않고 지지 않으려는 운호의 깨끗한 동심적열망을 소중하게 느낀다.

한 로동자가 가내부업을 해서 그 수입을 공장에 들여놓겠으니 소형전동기를 한대만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막무가내로 전동기를 마대에 써서

자전거에 싣고나가다가 운호네의 눈에 걸렸다.

《당장 제 자리에 가져가랴요. 혼썰내기 전에!》

상대는 아무리 위엄있게 말을 해도 애티가 나는 운호의 날파람있는 몸을 아예우로 훑어보다가 한숨을 쉬며 전동기를 내려놓는다. 애송이같은 총각기 사녀석은 무섭지 않은데 운호의 뒤에 있는 그 축구팀이 무서웠던것이다.

그날부터 공장축구팀은 한주일동안 경기장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운호의 지휘밑에 밤낮없이 공장 설비들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어찌자구 그러느냐는 안만수의 물음에 운호는 대답도 하지 않는다.

넓은 화물자동차 한대가 신발 벗은채로 네발을 들고 서있는 공장의 너털청한 차고에 큰 설비들은 해체해서, 작은 설비들은 통채로, 아무튼 공장의 쓸만 한 설비들은 모조리 처넣는다. 그리고는 차고의 두쪽으로 된 철문을 아예 용접해버리고만다.

영구보존된 설비명세를 책임기사 안만수에게 넘겨주고 운호는 호기있게 말한다.

《고난의 행군이 끝나면 출교합시다!》

깜짝 놀랄 이 사건을 두고 시당비서 인석은 돌아가지 않는 형타수리공장의 당비서로 새로 임명된 지국림에게 말한다.

《비서동무, 이게 내가 말한 그 설비창고요. 이젠 뭘 말해주는가? 이 공장에 주인이 있다는걸 말해주고있소. 동무들은 큰 재산을 가지고있소. 이안의 설비들? 아니요. 이렇게 한 그들이 바로 가장 큰 재부요. 명심하오. 비서동무, 이걸 용접해치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이 철문도 열수 없다는것을...》

이것은 운호에 대해 또 한걸음 깊이 들여다볼수 있게 한다. 운호는 모든 면에서 명백하고 단호하다. 그것도 동심에 대한 운호의 남다른 견해와 신념에서 우러나오는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제대군관인 새 당비서 지국림에 의해 철문열쇠가 드디어 열리고 새로운 활기를 띠기 시작한 형타수리공장에서 기본은 이미 사명을 다한 공장에 새 지표를 받아들이는것이다. 류진국제무역지대의 특성에 맞게 어느 지표를 잡아야 죽었던 공장을 살리겠는가. 군대시절에 부업소좌로 불리운적이 있는 지국림은 국수기계, 가루기계 같은것을 차려놓아보기도 하며 실로 동분서주, 갈팡질팡한다.

이에 대하여 운호는 우리 공장은 기계공장이지 식료공장이 아니라는것, 부업과 본업이 삭갈리고있다는것 등에 대해 깨끗하게 분석하면서 기계공장은 기계공장답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식료가공기계는 모른다고 딱 나눌더니 못기계를 한번 만들어보라니까 아이들 나무편총 깎듯 어렵지 않게 만들어놓는다.

물론 운호에게 심중한 결함이 있다.

그는 못기계를 휘딱하니 만들어놓고는 또 무슨 일감이 없겠는가 며칠동안 지꼇게 지켜보다가 신통한 일감이 더 없으니 류진항팀과 그 무슨 선수권방위전이라는것을 들고와서는 축구팀을 훈련장으로 휘동해가버렸다.

(뭘? 기계공장은 기계공장답게 돌아가야 한다구? 그렇게 잘 아는 녀석이 뭐든 방도를 내놓을 궁리는 하지 않고...)

당비서의 심중은 무겁고 안타깝다.

운호는 깨끗하고 단호하고 정열적이되 아직 여물지 못했다. 그를 애송이라고 놀려대는 현숙이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시당비서의 충고에 의해 기왕 제노라 으시대며 돌아가는 운호네 형타수리공장축구팀과 류진시에서 유일하게 돌아가는 생산단위로 손꼽히우는 세멘트 공장축구팀사이에 대전이 벌어진다.

장소는 세멘트공장운동장이다.

물론 축구에서는 운호네 팀이 우세하다. 그러나 축구를 하면서 운호는 공보다 먼저 연기가 보기 좋게 타래쳐오르는 세멘트공장 굴뚝을 본다.

숨죽어 10년째 돌지 못하는 형타수리공장과 류진시에서 자력갱생의 상징으로 고난의 행군을 뚫고 어엿하게 솟구쳐나가는 세멘트공장!

이렇게 놓고볼 때 오늘의 경기에서 형타가 이겼다고 해도 그것은 명실공히 패배한것이며 세멘트가 진다 해도 본질에 있어서는 이긴것이 아니겠는가.

두 공장 응원팀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축구공 한알한알이 생사를 판가리하듯 오고가는 경기장 한복판에서 이것을 깨달은 운호는 경기절정에 무릎을 꿇고 통탄속에 패배를 자인한다.

《공장을 세워놓은 주제에 축구나 이겨선 뭘합니까? 난 살아있는 이 공장이 부럽습니다.》

가슴을 찢어헤치는것 같은 그 부르짖음앞에서 모두가, 독자모두가 굳어진다.

운호는 형타수리공장의 생산지표를 갱신하기 위한 탐구과정에 이 문제는 공장의 책임적인 한두일군에 의해서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깨닫는다.

운동장에서 꼴 하나를 넣자 해도 열한명이 한마음한뜻이 되여야 한다.

자기 공장을 살리는 문제에서 기본핵심은 바로 운호네를 비롯한 새 세대 청년기사집단이 되여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호는 이것을 새로운 제대군관당비서의 책임에 한한 문제로 보고 순간이나마 손님대하듯 하지 않았던가. 운호는 당조직과 기사들의 관심과 지지속에 형타수리공장을 건설장재공장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문제에 핵심기사로 성큼 나선다.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며 류진물길돌격대 대장이

되는 운호, 이렇게 놓고볼 때 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솔직한 동심, 과장, 외곡이 없는 순결한 동심을 과연 문자 그대로 아이들의 마음으로만 평가하겠는가. 운호의 동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일생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검은머리 희여져도 인생길에 소중히 떠나가야 할 깨끗하고 티없는 흰눈파도 같은, 진주보석파도 같은 량심이다.

때문에 운호는 일생에 단 한번밖에 없을 사랑의 고백도 동심을 담아 터뜨린다.

《〈정말이야. 현숙이, 난 동무를 사랑해, 불타는 현숙이를. 우리 같이 저 하늘의 빛나는 별이 되자. 동무별, 싫어?〉

현숙은 심장이 후두둑 뛰었다. 리운호! 순진하고 깨끗한 웃음. 내 나라 하늘의 보석별이 되려는 소중한 꿈. 절대로 낡아지지 않으려는 그 노력... 내가 이런 동무를 마다한다면 어떤 남자를 바란단 말인가, 어떤 남자를!》

장편소설 《함께 사는 사람들》에서 운호의 동심은 이렇게 절정을 이룬다. 그지없는 동심에 살면서도 결코 철없이 느껴지지 않는 청년기사 운호의 성격, 추억이 아닌 현실의 동심에 살면서도 독자에게는 그가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전진하

는것으로만 느껴진다. 그의 량심에 간직된 동심은 변하지 않으되 새 세대 청년기사로서의 운호는 눈부시게 발전한다.

한 소설에 등장하는 여러명의 청년지식인들 가운데 동심을 안고사는것으로 하여 남달리 두드러지고 애착이 가는 운호, 그의 성격은 매력적이다.

동심을 참답게 귀중히 여기는 그만큼 운호의 앞길은 밝고 창창하다.

소설전반의 양상도 운호에 의해 적지 않게 좌우되었다.

운호의 동심에 의하여 새것, 밝은것, 량만적인것을 남달리 지향하는 새 세대 청년지식인들의 성격미가 더욱 이채롭게 안겨오면서 아울러 우리 시대의 양상이 상징적으로 안겨왔다.

장편소설 《함께 사는 사람들》에서 운호의 형상은 최근 지식인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여러 소설들에서 흔히 느껴지는 경직, 도식과 틀을 깨버리고 생활이 안고있는 새로운 성격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소설가들은 시대의 요구, 생활의 요구에 맞게 보다 새롭고 독창적인 성격을 계속 창조해야 할 것이다.

수 필

하늘

박 수 선

《두 하늘》.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인 1965년 5월 28일 부 《문학신문》에 실렸던 나의 아버지의 수필제목이었다.

당시 우리 출판물에 소개된 대구 영덕국민학교 5학년생이었던 리운복의 일기 《저 하늘에도 슬픔이》를 읽고 모든 사람들이 가슴아파하였었다.

경상도의 독특한 사투리로 자기의 피맺힌 생활과 감정을 그대로 절절히 담은 그 하루하루의 기록은 고향을 경상남도 밀양군에 둔 아버지로 하여금 어느 한 육친의 얼굴을 상기케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때 나는 인민학교(당시) 2학년생이었다.

《하늘을 쳐다보니 참말 맑습니다. 구름을 찾으려 해도 구름은 보이지 않고 우리 집도 저 하늘처럼 맑았으면 얼마나 좋으랴. 저 하늘에도 슬픔이 있을가요. 순나는 지금 어디 있을가요? 어디 가다 죽어도 저 하늘밑이겠지요.》

아버지가 저녁마다 읽어주는 리운복의 일기는 나

의 어린 마음에도 남녘땅의 윤복이와 그의 동생 순나가 몹시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작문시간에 이렇게 썼다.

《...윤복이는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지만 나는 〈저 하늘에도 기쁨이〉라고 말해요. 윤복이가 깡통을 차고 밥 얻으러 갈 때 나는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지요. 어린 동생 순나를 찾아서 떠난 윤복이는 어디서 헤매일가요. 나는 불쌍한 윤복이 형제를 우리 집에 데려오고싶어요. **김일성**원수님의 품속에서 우리 함께 공부하고 뛰놀았으면 얼마나 좋을가요? 흰 구름이 함박꽃처럼 피어오르는 푸르른 저 하늘에는 기쁨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윤복이는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니 또 다른 하늘이 있을가요?》

선생님은 나의 작문에 5점을 주셨다.

막내딸이라 응석받이로 자라나서 나를 철부지라고 생각하셨던 아버지는 나의 작문과 윤복이의 일기를 두고 많은것을 생각하였다면서 펜을 들게 되었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수필에서 조국의 맑은 하늘을 두고 두 아이가 보는 눈과 감정은 얼마나 하늘땅과도 같은 차이가 있는가고 하면서 절대로 내 조국에 두 하늘이 있을수 없다고 쓰셨다.

《우리의 가슴을 그렇게도 아프게 하는 남녘땅의 수만수천의 윤복이가 〈저 하늘에도 슬픔이〉가 아니라 기쁨만이 차넘치는 그런 하늘을 바라보게 될 날도 결코 멀지 않았다.》

아버지의 수필은 이렇게 끝을 맺었었다. 그때로부터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때 인민학교(당시) 2학년생이었던 내가 오늘은 소학교 2학년생 손자가 있는 할머니가 되었다.

그 50년이란 세월을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저 하늘에도 기쁨이》라는 작문을 쓴 때로부터 5년후에 나는 볼치의 병으로 아버지를 잃었고 그 다음해에 어머니마저 우리 5형제를 두고 세상을 떠나셨다.

하지만 나는 변함없이 《저 하늘에도 기쁨이》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거니 우리 형제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살며 모두가 대학공부까지 하였다. 나는 고향을 번듯하게 꾸려보고싶다던 아버지의 소원을 안고 건설건재대학(오늘의 평양건축종합대학)에 입학하였고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하였다.

대학졸업후에는 자강도의 어느 한 시험소에서 마음껏 과학연구사업에 종사하면서 여러건의 국가발명권까지 수여받아 《발명가처녀》라 불리웠다. 나의 일생에는 영광도 있었으니 중앙에서 열리는 대회들에 참가하여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였고 높은 국가표창도 수여받은것이다. 과학기술활동에서 거둔 자그마한 성과까지도 출판물에 널리 소개도 해주었다.

나의 자식들도 이 어머니가 걸어온 행복의 길을 그대로 걸어왔다. 어려운 고난의 행군시기에 아들은 강원도1중학교에서, 딸은 원산농업종합대학에서 공부하였다. 오늘은 그 아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어 성스런 군사복무를 마치고 우리 나라 배움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고있다.

어제와 오늘, 뒤를 보아도 앞을 보아도 우리 조국의 하늘은 변함없이 맑고 푸르다.

그 하늘에 울리는 노래소리도 유난하다.

오늘 우리 조국은 그 어디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아래 눈부시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어 행복의 노래, 기쁨의 노래가 저 하늘가에 더욱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내가 사는 강원땅도 정말 몰라보게 변모되어 행복의 노래소리가 저 하늘에 울려퍼진다.

세계적인 마식령스키장, 아이들의 궁전-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 철령아래 사과바다, 세포지구 축산기지, 올림폭포...

지난해에만도 평양과 강계에서 조카네 애들이런 이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와서 야영생활을 하였다. 야영소가 얼마나 희한하고 야영생활이 어찌나 즐거웠던지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작은할머니에게 집안소식을 전할 생각은 않고 그저 야영소 자랑뿐이었다. 참으로 감격과 기쁨에 넘치는 우리의 생활이다. 어제도 오늘도 기쁨의 노래넘치는 조국의 하늘이다.

《저 하늘에도 슬픔이》를 썼던 윤복이는 살아있겠는지. 살아있다면 할아버지가 되었을것이고 그후 그의 생활은 더욱더 암담하였을것이다.

지금 남조선에는 《3포세대》들이 실로 헤아릴수 없이 많다고 한다. 결혼, 가정, 해산을 포기한다는 3포세대가 늘어나고 부모의 리혼과 학대로 내버려진 아이들이 상품이 되어 다른 나라에 팔려가고 있다. 이 땅에 태어난것이 후회되고 살고싶지 않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들이 늘어나 세계적으로 자살자수에서 앞자리를 놓지 않는것이 바로 남조선의 현실이다.

한 조상의 피를 받은 단일민족이 조국의 분렬로 장장 70년동안 두갈래의 길을 걸어왔으며 한하늘 밑에서 전혀 다른 두 세계에서 살고있는 오늘의 가슴아픈 이 현실은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을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하루빨리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한 위대한 통일강령을 우리 겨레앞에 다시금 제시하시였다.

지금 남조선피괴력도는 인민들을 5천년민생고에 시달리게 했던 만고역적 박정희의 본을 그대로 따서 남조선을 인간생지옥으로 더욱더 전략시키고 이 땅에서 핵전쟁의 불구름을 떠올리려고 발광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 남강도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의 전쟁책동이 더욱더 로골화되고 광기를 부리면 부릴수록 비참한 자멸의 길은 더욱더 다그쳐져 우리는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력사적인 통일의 날을 맞이하게 될것이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신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통일헌장, 통일대강들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 모시여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천만군민의 영웅적인 투쟁의 앞길에는 오직 하나의 푸른 하늘만이 펼쳐질것이니 《저 하늘에도 기쁨이》의 노래가 하나로 된 이 강도에서 영원히 울려퍼질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만다.

시 초

무명전사들의 한해 그리고 한생

김 정 경

도착성명

포옹하노라 낮선 산발이여
랑림이라 하늘고장 수림이여
이 나라의 높낮은 봉우리
징검돌마냥 딛고 날으는
지질조사중대 우리가 왔다

우거진 산림속에 튼튼히 지은
이깔나무귀틀집우에
품고온 붉은기 정히 올리고
늪가마 두개 번뜩이는 부뚜막에
장작불 지펴 타는 흰 연기로
우리는 입산식을 대신하였다

4월도 마감무렵 5월을 부르는데
아직도 겨울을 한껏 떠닌
아득한 산발 끝모를 골짜기여
너는 이 나라 조종의 산 백두에 뿌리두어
너의 광활함 끝이 없던가

가슴벅차구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어
불이 이는 심장에 이리도 걸맞는
광활한 탐사지여 드넓은 밀림이여

이제 우리 여기에
빨찌산식 우리 생활 즐기차게 퍼려니
령봉과 령봉 골짜기와 골짜기 차고 날으며
너의 품에 간직한 보화를 찾아
김일성-김정일조선의 무궁미래에 삼가 드리려니

울울창창한 천연수림속에
말없이 누운 만년지층이여
억년 품어온 네 비밀의 문
우리 활짝 열어제길 불타는 각오
이것이 우리 탐사대원들의 도착성명이다

붉은 철쭉

참나무며 박달이며 억센 나무들이
하늘은 통선에 뿌리를 박고
땀젖어 오르는 나를 반기누나
붉은 철쭉아

철쭉!
너는 어느 고장에서나 항상
이런 통선 이런 벼랑에 뿌리를 박고
드세찬 바람에 불길같이 일어번지며
탐사대원 우리를 마중하군 하였지

그 어느 꽃밭에 뿌리를 두었다면
바람찬 고생 면할수도 있었으리

그 어느 길가에 자리를 잡았다면
너의 아름다움 아는지 얼마나 많았으랴

허나 너는 안일과는 인연이 없는듯
또한 명예도 탐하지 않는듯
바람찬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싱싱한 웃음 숲에 뿌리며
강산의 아름다움 보탬하누나

오, 철쭉이여
보는이 없는 산정에 삶을 두었어도
애국으로 불타는 우리의 넋을
웃음과 향기로 고무하는 꽃이여!

발자국

폭우가 내리는 이런 때에는
아름드리거목밑이 그저그만
차고온 주먹밥 모닥불에 굴리며
직통배기 광남의 불부은 소리

—체 우리가 비맞으며 오른 발자국
풀섶에 묻혀 보이지도 않는구나
이제 이 모닥불자리도 락엽에 묻히겠지

성미 누그러운 인석아바이

채취한 돌덩이 이리 기울 저리 기울
—허 그놈의 돌이 금광 하나 품고있는것 같군
찬비를 맞는 보람이 있어

잘 구운 밥덩이 슬쩍 들어 쪼개는
아바이의 두눈은 실눈이 되누나
—이런 밥덩이 10년은 먹어봐야
탐사일의 진맛을 안다니
이제 여기 서게 될 광산이
우리가 남긴 발자국이 아니겠나?

참으로 그렇다네
검덕과 호하, 개천과 우시
나라의 곳곳에 무수한 탄광 광산들은

탐사대원 우리의 발자국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대를 이어 걸어온
큼직큼직한 발자국들이

돌배낭이 무거워

무거운 광석 지고올적에
림산마을 너인들 허차는 소리
-에그 얼마나 무거울가
찌물쿠는 삼복철에 돌배낭이라니...

그렇다마다요 아주머니들
이 배낭엔 뭐나 다 들어있따우

수령님들 그토록 중히 여기신
총대로부터 아이들의 놀이감까지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재부
앞날의 광산이 듚적이 들어앉은
이 배낭무게야 오죽할라우
그래서 발걸음엔 나래가 돌쳤다우

단풍빛 어린다

이날에 마음을 두고
이날을 당겨오자고
천고밀림 바늘같이 누벼온 사람들
어이하여 점도록 말이 없는가

안경을 벗어드는 책임기사의 눈엔
눈물이 고여올라 동을 넘을듯
손에손에 옮겨지는 지질도우에
불꽃같이 떨어지는 더운 눈물

사방 백리로 뻗어간 거대한 광맥
한장의 지질도에 날날이 들어있거니
됐구나!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
이 지질도 삼가 올리게 되었구나

가슴속 안도감이
행복을 부르고
행복이 뜨거운 눈물로 고여올라
하얀 지질도 적시고적시는데

천고밀림의 가을바람 불어불어
단풍의 바다 파도쳐 축복하누나
숫되고 정직하고 또 열성껏
밀림속에서 살아온 이 사람들을

이름도 남기고 명예도 얻을
하얗은 길 곁에 두고
이슬찬 초행길 택한 사람들
조사의 먼길 돌아오지 못하는 밤
가랑잎 덮고 차도 지름길 모른 사람들

장군님의 위업 받들어
원수님 걸으시는 전선시찰의 소식에
라디오의 파장 맞추고 심장의 박동 맞추며
칼벼랑 덤불길도 웃으며 넘고헤치는
억센 심장을 지닌 사람들

아,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뜻
드팀없는 삶의 로선으로 정하고
가정의 평온 단란한 생활 뒤에 두고
야영의 비바람과 포옹할줄 안
참된 무명전사들의 눈물

금보다 무겁고 옥보다 정갈한
행복의 눈물이
한장의 지질도우에 꽃처럼 피는데
밀림을 수놓는 아름다운 단풍빛
삼가 어리누나 지질도우에
탐사대원들의 행복한 얼굴에...

잘있으라 정든 교장아

나무잎 움틀 때 찾아온 교장
나무잎 지는 때 떠나가노라
잘있으라 정든 밀림아
또 한해 생의 자취 새긴 교장아

말 못하는 나무와 룡선의 츤령바위
샘물을 나눠먹던 산짐승들뿐인데
작별의 마음은 이런것인가

사나이들 눈굽도 불깃이 물드누나

그 어느 나무밑 바위아래들
우리의 발자취 번진 곳 있으랴
바위밑 쪽잠도 지겹게 맞던 비도
오늘은 보람으로 안겨오는 이 교장
한오리 바줄에 몸을 맡겼던
이름없는 벼랑도 추억으로 남는 교장

잘있으라
우리의 붉은기 띄웠던 기발대여
너로 하여 우리 생활 게으르지 않았거니
잘있으라 시대의 흐름에 뒤질세라
당의 목소리 높이 올려주던
라디오 틀스레 앉았던 창문이어

통나무 짜개 만든 뜰안의 책상에서
광맥의 시료며 탐사일지 펴놓고
우리는 매일 저녁 작성하였지
광석의 품위며 광석밭의 수량
원수님께 드려야 할 정확한 보고서를

여기서 산 나날은
봄 여름 가을 세 계절뿐이건만

이곳에 바친 땀과 량심앞에
천고밀립은 억년 비밀의 문 활짝 열었거니
미래를 전망하는 내 조국의 광석밭을

잘있으라 청청밀립이어
김정일애국주의로 불타는 심장들을 품어준
우리 중대 귀틀집이어
이제 몇년후이면 너는 억년보화를 들어낼
이 고장의 새 주인 광산사람들을 맞이하러니

그때면 부디 말해다오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공업의 척후병들 여기서 살았다고
새 광산의 탄생을 간절히 념원하며
또다시 낮은 고장으로 떠나갔다고

다시 먼길을 떠나며

아들아 너는 이 아버지에게
대답하기 힘든 말을 물었구나
한생 집 떠나 살면서도 세운 위훈이 무엇인가고
보이는 없는 밀립속
이 길을 왜 부디 또 떠나는가고

네 말했듯이 이 길은
세상을 흔들어볼 위훈과는 거리가 먼 길
하기에 직장과 마을밖에선
내 이름 아는이도 별로 없다
그러나 오늘도 탐사의 길 서두르게 되는구나

이 아버지도
인생의 길 바꾸고싶은 때 없지 않았다
탐사지의 깊은 밤 등불밑에서
밤새소리 처량히 들을 때
신문과 방송들에 동갑또래들의 위훈이
큼직이 소개될 때

남들이 보란듯이 내 인생도 위훈으로 꾸며
못사람들 추억속에
빛나는 이름 남기고도싶었다
그것을 위해 탐사대원의 무거운 돌배낭 벗고
떠나간 철새들도 없지 않다

허나 아버진 이 길을 걸었구나
체비가 우리 집에 깃들이는 봄이면
정든 집과 너희들의 곁을 떠나
먼먼 탐사지 낮은 산야로
엄마의 서운한 바램속에 떠나곤 했다

무거운 광석배낭을 지고
풀덤불 헤친 그 자욱우에
광산이 서고 탄광이 자리잡아

자원을 안아내는 광부와 탄부들이
만사람의 자랑이 되고 영웅이 될 때
이 아버진 새로운 탐사지에서
또 다른 광석을 찾아 먼길을 걸었거니

자기 이름 남기려ney 이 길을 못 가
자기 명예 귀중한 사람 이 길 못 걸어
땅에 스며 새움 띄우는 흰눈과 같이
불어 꽃망을 부풀리우는 봄바람같은
그런 녀이 없으면 이 길을 못 걸어

진정 그렇게 살고싶었다
식량사정 긴박하면 농민이 되고싶다 하시고
탄생산이 걸렸을 땐 탄부가 되고싶어하신
아버이수령님처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초석이 되고 뿌리가 되고싶어하신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처럼

고결한 그 녀앞에 이 몸을 세웠기에
조국의 높낮은 산야 터밭처럼 밝으며
진함을 모르고 걸어온 아버지이다
누구든 먼저 헤쳐야 하는 이 길에
또다시 이 몸을 세우는 아버지다

걸어온 길 돌이켜 후회가 없다
남들이 다 아는 이름과 위훈 남기지 못했어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탐사대원들은 공업의 정찰병—무명전사라
값높이 불러주신 그 이름속에 내 이름도 있는
거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의 그 위용속에
나의 땀도 진주처럼 묻혀있다는
량심의 자부로 이 길을 가는거다

외국인시 (쑤련)

조국과 승리

이. 그리샤쉬윌리
서진혁(역)

내 처음으로 입에 올린 말이 아니여라
그 거룩한 두마디 말
오늘 또다시 올린다
—조국과 승리!
이 두마디 말의 힘을 느끼라 온넛으로 온몸으로
—조국과 승리!

너 까르폴라의 해빛밝은 고장들아
오랜 세월속에 얼마나 많은 싸움 보아왔더냐
갈라질수 없는 두개의 산정수리 두마디 말이여
마치 이웃처럼 높이 솟아있는 두 산정수리
한가락소리처럼 노래속에 합쳤구나

—조국과 승리!

기쁨속에서 슬픔속에서
합쳐진 영원한 두마디 말을 내 다시 다짐한다
그리고 이 두마디 말의 거룩한 힘을 믿나니
이 두마디 말 우리에게서 온갖 불행 몰아내고
빛나는 행복의 선물 안겨주리니...
우리들이 웨치는 소리
—조국과 승리!

(1941년)

봄시위

에쓰. 에쎄닌
서진혁(역)

들은 아직 흰눈옷 입고있는데
 시내물은 봄이라고 소리쳐요
잠든 기슭을 깨우며
반짝이며 굽이쳐요

시내물은 소리쳐요
《봄 봄이 와요!

우린 봄의 사절
봄아씨가 먼저 보냈답니다!》

봄 봄이 와요!
고요하고 따스한 봄이 오면
춤꾼들은 흥조어린 얼굴로
봄아씨를 즐거이 따른답니다

시 《평양에서 외적을 섬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에 대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시대의 작가와 작품을 문학사나 예술사에서 취급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작가, 예술인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우리 문학사와 예술사에도 당대 문학예술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작가와 작품이 있었다는것을 알려줌으로써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동시에 지난날의 력사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게 하자는데 있다.》

김지초의 시 《평양에서 외적을 섬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리 인민의 반미투쟁사에 첫페지를 아로새긴 1866년 침략선 《서면》 호격침투쟁을 반영한 고전시작품이다.

자료에 의하면 김지초는 량반가문출신으로서 1788년 10월 17일 무산면 구산리(현재 평안북도 녕변군 구산리)에서 김치각의 둘째아들로 태어나 자를 이요, 호를 칠전이라고 불렀다.

그는 어려서 삼촌인 김치항의 양자로 들어가 성장하면서 13살때부터 친등산에 들어가 독서와 학문 습득에 열중하였고 20대에 벌써 판서일대의 손꼽히는 학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장차 학문으로 나라에 이바지할 포부를 안고 세번이나 과거시험에 응시하였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권세가 없이는 빛을 볼수 없는 정계풍조에 환멸을 느낀 그는 산천유람과 시창작으로 세월을 보냈으며 말년에는 구산리 대장산 남쪽에 거처하면서 후진육성에 전념하다가 1874년 86살을 일기로 생을 마쳤다.

그의 저술과 창작활동에 대한 자료는 1881년 제자들에게 의해 편찬된 시문집인 《칠전김선생문집》(6권 4책)에 실려있다.

김지초는 일생을 조용하게 지내면서도 당시 봉건 통치배들의 세도정치와 날로 로골화되는 외세의 침략기도로 시련 겪는 나라의 운명에 대한 근심으로 애를 태웠으며 그러한 심정을 자주 시에 담곤 하였다. 특히 시 《10월 겨울날 군사훈련의 밤중에 서쪽 성에서 화불들이 줄지어선것을 보고》, 《충민사에서 제를 차리는 운에 따라》, 《충민사에서 양의공 김경서장군을 제사지낼데 대한 론의를 듣고》를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전통을 긍지높이 내세우고 그를 살려나갈데 대한 지향을 노래한 작품들을 적지 않게 창작하였다.

시 《평양에서 외적을 섬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김지초의 이러한 애국적자각과 창작적

재능이 집중적으로 반영된 대표적작품이다.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보잘것 없고 어리석은 서양오랑캐무리
대동강에 기여들어 우리 군사 건드렸네
망녕되게 돛 펼치고 말 몰아대듯 쳐들어오더니
우리 군사 드센 공격에 모기마냥 너부러졌어라
풍랑은 배를 띄울수도 뒤집어엎을수도 있거늘
선불질 했다가 도리어 제가 불타버렸네
이번의 승전쯤에 태평세월 기대하랴
모두가 노력하여 나라근심 없게 하세

우리 나라 근대력사의 시점으로 된 《서면》호사건은 근대시기 우리 인민이 진행한 첫 반침략애국투쟁인 동시에 미제가 아시아에서 당한 최초의 참패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우리 나라에서 봉건제도가 급격히 몰락하고 새로운 근대기가 성숙되어가던 19세기 중엽 유미자본주의 열강들이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던것으로 하여 정세는 매우 첨예하였다. 이러한 때 오래전부터 조선침략의 기회를 노리던 미제는 1866년 침략선 《서면》호를 대동강에 침입시켰다. 격노한 평양성인민들과 군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중조할아버님이신 김웅우선생님의 지도밑에 7월 24일(양력 9월 2일) 화공전술로 《서면》호를 단호히 수장해버리는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고있는 시는 흉악한 미국침략자들과의 대결에서 거둔 통쾌한 승전소식에 접하여 우리 인민들이 체험했던 침략자에 대한 증오와 커다란 민족적 긍지를 정서적으로 질게 구현하고있다.

시의 전반부에서는 《통상》과 《친선》의 허울을 쓰고 기여들어와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통욕하는 등 온갖 만행을 감행하던 양키무리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한 우리 인민의 견결한 투쟁기개를 격조높이 찬양하였다.

또한 후반부에서는 싸움에서 제노라고 뽑내며 오만무례하게 날뛰다가 개죽음을 당한 미제놈들의 말로는 그 불에 제가 타고마는 격이라고 조소하면서 전승으로 맛보게 되는 희열을 구가하고있다. 특히 시인은 마감부분에서 이번의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앞으로도 원수들의 침략에 응당한 각성을 가지고 대하며 나라에 닥쳐온 위기를 가시기 위해 조국수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강렬하게 호소

하고있다.

보는것처럼 작품에서는 침략과 략탈로 비대해진 미제침략자들이 우리 인민을 알보고 함부로 덤벼들었다가 쓰디쓴 패배만 당한데 대하여 풍자조소하면서 나라의 존엄을 해치려는 침략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는 우리 인민의 민족자주정신과 불굴의 기개를 깊이있게 일반화하고있다.

시의 사상적지향은 세련된 예술적특성으로 하여 더욱 감명깊게 부각되고있다.

작품에서는 사건의 발단과 전개, 결말을 점진적으로 심화시키면서 시종일관 그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정서적토로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형상의 집약화를 실현하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망녕되게 뚫 펴치고 말 몰아대듯 쳐들어 오다》, 《모기마냥 너부러지다》, 《풍랑은 배를 띄울수도 뒤집어엎을수도 있다》와 같은 비유와 대구 등 다양한 표현수법과 참신한 시어들을 구사하여 침략자들의 허장성세와 비참한 말로에 대한 야유, 놈들을 통쾌하게 수장시킨 우리 인민의 슬기와 용맹에 대한 긍지, 전승의 희열을 선명하게 나타냄으로써 형상의 생동성과 진실성을 보장하는데서 재치있는 기교를 보여주었다.

근대시기에 들어와 우리 문인들속에서는 가사 《패섬한 양국되놈》(신재효)과 시 《서양배가 멀리 도망친 날 의병들에게 써주노라》(리문규), 《병인년 느낀바 있어》(임현희), 《강화도양요》

(류린석)를 비롯하여 유미필장의 침략에 직면한 나라의 운명을 우려하면서 항전의식을 불러일으킨 시들이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들은 김지초의 시보다 이후시기에 나온것들이였다. 더우기 김지초의 시는 현재 《서면》호격침투쟁을 노래한 고전시로서 유일하게 알려지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시 《평양에서 외적을 섬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리 나라 근대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갈래를 이루었던 반침략애국투쟁주제의 선구적작품으로 되며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이 가지는 문학사적의의와 유산적가치가 있다고 할수 있다.

김지초의 시는 또한 원쑤와의 싸움에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과 뜨거운 애국심을 발휘해온 우리 민족의 생활정서를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우리 문학의 반침략애국적성격을 뚜렷이 보여준것으로 하여 문학사적의의가 크다.

김지초의 시는 우리 문학사에 알려진 첫 반미주제작품으로서 오늘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밑에 반미대결전에서 승리만 펼쳐온 자랑스런 전통을 빛내어나가며 투철한 반미계급의식을 지니고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우리 군인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서도 의의를 가진다.

변 남 혁

임진조국전쟁의 승리를 안아온 우리 민족의 애국적투쟁에 대한 설화작품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문화유산들과 력사교양거점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인민들과 청소년들이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 미풍양속을 잘 알고 민족적 긍지와 애국심을 깊이 간직하며 민족성을 고수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이며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열렬히 싸우는 애국정신이 강한 민족이다.

열렬한 애국정신을 지니고 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였기에 우리 민족은 7년간에 걸치는 임진조국전쟁에서도 횡포무도한 왜놈사무라이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간고하였던 임진조국전쟁은 전지역적판도에서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전민족이 일본의 침략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전인민적인 항전이였다. 그런것으

로 하여 임진조국전쟁을 반영한 설화들에서는 슬기와 용맹을 다 발휘하여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리익을 지켜싸운 각계각층 인물들의 애국적인 투쟁이야기를 전하고있다.

설화 《〈한다리〉의 마장수》는 그러한 대표적작품이다.

황해도 배천의 서쪽 산밑에 마씨 성을 가진 농민이 살고있었는데 힘이 대단히 세여 사람들은 그를 마장수라고 불렀다.

왜적들이 기여들자 마장수는 나무짐을 지고 자주 배천읍에 드나들면서 적들의 내부형편을 상세히 알아낸 다음 홀몸으로 놈들의 목을 눌러 죽이였다. 그러다가 추격을 받아 어느 강다리에 들어선 그는 한다리로 다리우에 걸쳐놓은 가름대를 튕기여 뒤쫓아오던 수십놈을 죽이였다. 이후부터 사람들은 그 다리를 《한다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근로인민들의 투쟁형상은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였을 때 피리소리로 우리 군사들을 고무하고 왜

적들을 전몰케 한 어느 한 농민을 형상한 설화 《피리소리》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임진조국전쟁을 반영한 설화들에서는 리순신, 권틀, 박재우, 김덕령, 리정암, 정문부 등 애국명장들과 의병장들의 투쟁모습도 잘 보여주었다.

리순신장군은 거북선을 만들고 우리 수군을 능숙하게 지휘하여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한 애국명장으로서 오랜 세월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그의 애국적무훈을 담은 이야기들이 많이 창조되어 전해내려왔다.

실례로 전라도 목포에 있는 유달산봉우리와 결부되어 전하는 로적봉설화에서는 수적우세를 믿고 달려들던 왜적들을 물리친 리순신장군의 기발한 지략을 반영하고있다.

그에 의하면 당시 리순신장군은 우리 군사와 군량이 많은듯이 보이기 위해 유달산봉우리를 짚과 섶으로 덮어 로적가리처럼 꾸며놓음으로써 왜적들의 기를 꺾고 줄행랑을 치게 하였다고 한다.

또 다른 설화에서는 리순신장군이 부녀자들에게 색동옷을 입히고 《강강수월래》를 부르며 쉬임없이 산을 돌게 함으로써 왜적들로 하여금 우리의 대군이 행군하는줄로 착각하게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하고있다.

우의 설화들에서는 인민들에게 의거하여 적은 력량을 가지고도 왜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애국명장 리순신의 군사적지략을 반영하고있다.

설화 《세마대》도 임진조국전쟁시기 애국명장들의 투쟁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주인공 권틀장군은 포위된 수원 독왕산성에서 음료수가 떨어져 곤란을 겪자 봉우리로 올라가 말잔등에 물을 끼얹는 시늉을 하였다. 이를 목격한 왜적들은 봉우리에까지 물이 많으니 쉽게 함락할수 없으리라고 여기고 공격을 포기하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 역시 어떤 곤란에도 굴함없이 적들을 쳐물리친 명장들의 슬기와 위훈을 전하고있다.

한편 황해도 연안지방에 전해지는 설화 《리정암의 연안성승전》에서는 결사의 각오로 왜적과 싸워 이긴 의병장 리정암의 공적을 반영하고있다.

대적이 성을 에워싸자 판로들까지 도망쳐버린 어려운 상황에서 주인공은 성문앞에 섰을 높이 쌓고 만일 성이 함락되면 불을 질러 원쑤들의 칼날에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맹약한다. 그에 격동된 성안의 군민들은 사흘째 거듭되는 적의 공격을 물리치고 끝끝내 성을 지켜내고야만다.

이밖에도 임진조국전쟁을 반영한 설화들에는 왜놈들이 물속에 박아둔 말뚝들을 옮겨놓고 기묘한 유인전술로 적의 대부대를 토막쳐 요정낸 《천강홍의장군》박재우, 적진을 제 집 문턱 넘나들듯 하며 침략자들에게 공포를 안긴 《익호장군》김덕령을 비롯하여 임진조국전쟁의 승리에 기여한 의병장들

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많다.

임진조국전쟁시기에는 산속에 은거하고있던 중들도 의병부대를 못하고 도처에서 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었다.

《구월산성과 서산대사》, 《백련암》, 《사명당의 행적》, 《왜땅에서 신묘한 도술로 적의 피수를 굴복시키다》등의 설화들에서는 비록 살생을 금하는 불교도들이지만 신성한 내 나라가 왜적의 마수에 유린당하는 현실을 보고있을수만 없어 싸움에 펼쳐나섰던 애국승려들의 위훈을 찬양한 대표적 이야기들이다.

설화 《구월산성과 서산대사》에는 임진조국전쟁직전에 70고령의 몸으로 팔도강산을 돌아다니던 서산대사가 구월산에 이르러 아홉아홉봉우리를 굽어보다가 모자라는 성돌을 다듬으며 성을 복구하는 백성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들의 애국충정에 감탄한 서산대사는 장정 10여명도 다룰수 없는 큰 돌을 한손으로 뉘끔뉘끔 들어올렸는데 그의 도움으로 불과 몇시간 안되어 성을 다 수리할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 구월산 성벽의 큰 바위같은 성돌은 이때 서산대사가 쌓은 성돌이라고 전해진다.

민간에서 전하는 다른 한 설화에서도 구월산의 지명유래를 서산대사의 애국적활동과 결부시키고있다. 즉 구월산성을 복구하던 백성들이 날이 어두워 안타까와하고있을 때 서산대사가 아홉개의 달을 하늘중천에 띄워놓아 어둠을 가셔줌으로써 성복구를 다그쳐끝낼수 있었다는것이다.

그런가 하면 설화 《백련암》에서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서산대사가 구월산에서 수많은 승병들의 식사에 쓰던 쌀뜨물로 강물을 뿌엿게 흐려놓았는데 이곳까지 기여들던 왜적들이 그 사연을 알고는 기가 질려 달아났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서산대사의 애국적투쟁을 찬양하였다.

사명당과 관련한 설화들 역시 임진조국전쟁시기 애국승려들의 투쟁에 대한 찬양으로 일관되어있다.

사명당과 관련한 이야기는 신비한 도술담과 함께 실화적인 일화로도 전해지고있는바 금강산의 유점사에서 략탈과 전횡을 일삼던 왜적들을 물러가게 하고 특히 적장 가등청정과의 담판때 적장이 당신의 나라에는 어떤 보물을 으뜸으로 치는가에 대하여 당신의 머리를 제일 큰 보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그 까닭을 설명하여 적장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는 이야기, 또 일본에까지 건너가 신묘한 도술로 왜왕을 굴복시키고 항복을 받아냈다는 이야기들을 들수 있다.

임진조국전쟁을 반영한 설화들에서 특별히 이채를 띠는것은 높은 애국심을 지니고 조국수호성전에 펼쳐나선 조선녀성들의 무비의 희생성과 슬기로운

투쟁모습을 찬양하고있는것이다.

유명한 평양기생 계월향, 진주기생 론개와 함께 함경도 단천지방에서 전해지는 기생 방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행주치마의 유래》를 비롯한 많은 설화들에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도 바쳐 싸운 우리 여성들의 무비의 희생성과 기개를 보여주고있다.

방씨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야수같은 왜적들을 굴속으로 유인하고 마을사람들이 입구를 막게 한다. 40여일후 마을사람들은 굴에 묻힌 방씨의 시체를 찾아 잘 묻어주고 그를 위해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설화들에서 찾아보게 되는것은 침략자들과 목숨도 기꺼이 바쳐 싸우는 조선여성들의 높은 애국심과 자기희생성이다. 이들은 연약한 몸으로 얼마든지 싸움을 피할수도 있었지만 침략자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스스로 싸움의 길을 택하였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 임진조국전쟁시기 의병장들로 명성을 떨친 광재우나 김천일의 안해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수 있다.

설화들에서 광재우나 김천일의 안해들은 모두 선견지명이 있고 지혜를 겸비한 여성들로 형상되어 있다. 그들은 앞으로 닥쳐올 국난을 미리 내다보고 허송세월하던 남편들을 일깨워 왜적들의 침략에 대처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자기들은 박농사를 지어 수많은 박통들을 마련해두었다가 왜적들을 죽이는 싸움에 리용한다. 광재우의 안해는 박통마다 벌과 뱀들을 넣어 왜적들을 몰살시키며 김천일의 안해는 가벼운 박통은 의병들이 허리에 차게 하고 가짜 쇠박통을 일부러 전장에 떨구어 적들이 의병대의 용력에 겁을 먹고 감히 맞설 엄두를 못 내게 하는것이다.

실로 임진조국전쟁을 반영한 설화들은 전쟁의 승리를 안아온 인민들의 애국적인 투쟁모습과 정신적 풍모를 열렬히 찬양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귀중한 문학사적가치를 가지고있다.

주 명 철

고구려에서의 소설발생과 《온달전》

소설은 오랜 발전력사를 가지고있다. 다른 문학형태들과 마찬가지로 소설도 유구한 력사발전과정에 자기의 형태적면모를 완성하여왔다.

우리 나라에서 소설의 발생과정을 살펴보면 그것이 고구려에서 먼저 출현하고 그뒤를 이어 백제와 신라에로 파급되면서 일정한 경험적단계를 거치면서 그 발전의 경험을 쌓았다는것을 알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소설은 묘사문학인 동시에 이야기문학이다. 소설이라는 말도 이야기라는 말에서 나온것이다.》

소설은 묘사문학인 동시에 이야기문학이다.

소설은 이야기문학인 설화가 서사수단에 의하여 문자로 고착되는 과정에 창조되기 시작한 문학형태이다.

고구려에서 소설이 발생하게 된 요인은 설화문학의 발전과 함께 사회문화의 발전, 다시말하여 서사수단이 새롭게 발전하고 서사생활에서 큰 전진이 이룩된것과 관련된다.

중세 초기 서사수단의 새로운 발전은 당시에 구전문학으로부터 서사문학이라는 새로운 문학발전단계를 낳게 하였으며 소설의 출현을 산생시킨 직접적인 문학적동기로 된다.

고구려에서 건국 초기부터 편찬하였다는 《류기》나 그것을 요약하여 후날 리문진이라는 사람이 《신집》을 묶었다는 《삼국사기》편찬자의 발문내

용은 중세 초기 우리 나라에서 방대한 년대기를 편찬할만큼 한자의 사용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년대기에 수록된 서술정형 하나만을 분석해보아도 당시 문인들이 문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높은 형상구사능력을 가지고있었다는것을 쉽게 알수 있게 한다.

결국 서사수단의 새로운 리용은 서사생활, 특히 서사문학의 발전을 추동하고 서사창조의 경험을 받아들이어 소설을 출현시킨 직접적요인으로 된다.

고구려에서는 이러한 문학발전의 흐름을 타고 소설적형상창조의 경험이 련마되는데 따라 남먼저 소설을 창작하기 시작한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고구려의 소설인 《온달전》이 이룩한 창작성과를 통하여 찾아볼수 있다.

《온달전》은 삼국시기의 대표적인 소설작품이다.

이 작품의 창작년대를 정확히 밝히기는 어려우나 이야기줄거리에서 보여지는 평강왕과 양강왕(실지는 영양왕임)이 6세기-7세기초의 인물인것으로 미루어 6세기말 또는 7세기초에 고구려에서 창작되었다고 본다.

《온달전》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삼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을 배경으로 하면서 그들의 높은 상무정신을 예술적형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작품의 주인공 온달은 소설적인 허구와 자유분방한 상상에 의하여 창조된 아름다운 인간이다. 그는

당시에는 물론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 전해오는 설화적인물이다.

작품에서는 주인공 온달이 나라를 지키는 싸움에서 떨친 무훈을 기본내용으로 보여준다.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시대의 사람이다. 그의 용모는 여위고 옷은 허름하기 짝이 없어 우습게 보였으나 마음이 순박하여 사람들의 동정을 샀다.

그는 집이 몹시 가난하여 항상 밥을 빌어서 어머니에게 봉양하는 효자였다. 그런데 해진 옷과 낡은 신으로 저자거리를 왕래하니 잘사는 사람들은 그를 《바보온달》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그에게 평강왕의 딸이 부명을 어기면서 궁전을 뛰쳐나와 시집을 가게 되는것이다.

작품은 계속하여 평강공주가 남편으로 하여금 무술을 익히도록 하여 이름을 날리게 하는 생활을 보여준다.

온달은 락랑언덕에서의 사냥경기에서 이름을 날리고 외적과의 싸움에서 용맹을 떨쳐 장군이 된다. 그는 신라에 의하여 강점당한 땅을 도로 찾기 위한 싸움에 자진하여나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친다.

소설 《온달전》은 비교적 초기소설창작의 발전된 면모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작품은 우선 생활세부들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소설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려나가고있다. 소설은 인물을 그리는 환경을 그리는 생활세부로 성격을 개성적으로 드러나게 형상하여야 하며 그것으로 생활을 펼쳐보여야 한다. 작품에서는 왕이 울보인 딸을 보고 룡담을 하는 세부, 그후 공주가 상부고씨에게 시집보내려고 하는 부왕의 명을 단마디로 거절하는 세부 그리고 공주가 산에 나무하러 간 온달을 찾아갔을 때 온달이 그를 《여우귀신》이라고 하면서 도망치는 세부, 공주가 온달에게 여윈 말을 사오라고 권고하는 세부 등 세부와 세부의 연속으로 이야기를 그려나가고있다. 작품은 이러한 세부들에 의하여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개성적으로, 극적으로 펼쳐지게 되었다.

작품은 다음으로 성격창조를 위주로 하는 소설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려나가고있다. 소설은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그리는 문학으로서 그 어떤 형상을 창조하든지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보여주는데로 지향되어야 하며 그것을 개성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온달전》에서는 등장인물들을 소설의 인물형상적특성에 맞게 예술적으로 비교적 원만하게 그리고있다.

작품은 우선 설화에서와 같이 주인공의 성격이 고정격식화되지 않고 이야기발전과정속에서 드러나는 주도적인 특성을 잘 그리고있다. 온달은 작품의 전반부분에서 당시의 가난한 인민들속에서 찾아볼수 있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지닌 근면하고 선

량하며 구김살 없으면서도 용감한 기질의 소유자로 보여지며 후반부분에서 나라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그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싸움에도 아낌없이 몸을 내맡길 아는 애국적이며 영웅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발전시켜나가고있다.

그런가 하면 평강공주는 철없는 소녀로부터 당돌하고 사리에 밝은 녀성으로, 아름답고 외유내강하며 슬기로운 성격의 소유자로, 남편과 가정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할줄 아는 고구려녀성의 전형으로 보여주고있다.

이 소설의 인물형상에서 주목되는것은 평강왕의 형상이다. 소설은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문학인 것만큼 등장인물들의 성격발전과정을 잘 그리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작품에서는 평강왕의 성격을 형상의 론리에 맞게 그 발전과정을 따라가면서 잘 그린 특성을 보여준다. 소설에서 평강왕은 처음 온달을 바보로 취급하며 공주가 그를 사랑하게 되자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러다가 사냥경기에서 1등을 하게 되자 벼슬은 주지마는 사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평강왕은 그가 외적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큰공을 이룬 후에야 비로소 사위로 받아들인다. 이와 같은 성격발전과정은 평강왕의 심리적변화를 그 발전의 론리에 맞게 보여주는 형상으로서 이 시기 소설이 성격형상에서 일정한 수준에 이르고있음을 보여준다.

작품은 또한 묘사를 기본형상수단으로 하는 소설문학의 특성에 맞게 그 발생의 초기부터 일정하게 묘사적인 형상을 지향한 특성도 보여준다.

형상을 묘사적으로 보여줄것을 요구하는것은 서사문학인 소설창작에서 글말체에 의한 서술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인 특성이다. 따라서 소설이 이야기문학으로부터 묘사문학으로 지향하는것은 그의 본성적요구이다.

《온달전》에서는 작품의 앞부분에서 온달의 초상을 묘사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를 일정하게 표현하고있다. 《그의 용모는 여위고 험름하여 우습게 보였으나 마음은 순박하였다.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서 항상 밥을 빌어서 어머니를 봉양하였으며 해어진 옷과 낡은 신으로 저자거리에 왕래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바보온달〉이라고 지목하였다.》고 서술하고있는 《삼국사기》에 실린 이 작품에 대한 기록을 보면 비록 요약된 줄거리이기는 하나 《여위고 험름하다》, 《해어진 옷》, 《낡은 신》과 같은 표현들을 통하여 온달의 초상에 대하여 묘사적으로 형상하려 하고있었다는것을 엿보게 한다.

또한 서술문장에서뿐아니라 인물의 대화에서 적지 않게 심리묘사도 추구하는 특성을 보여주고있

다. 이 시기 소설들은 일반적으로 서술에서의 묘사보다도 주로 인물들의 대사속에서 묘사적형상을 창조하는것이 특징이다.

작품에서 온달 어머니와 공주가 나누는 대화가 서술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 어머니는 말하기를 《내 자식은 지지리 못나서 귀인의 짝이 될수 없고 내 집은 몹시 가난해서 아예 귀인이 있을수 없다.》 하니 공주가 대답하기를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한말의 곡식도 찢어서 함께 먹을수 있고 한자의 배도 기워서 같이 입을수 있다.〉 하였으니 만일 마음만 맞는다면 어찌 꼭 부하고 귀하여서만 같이 살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

여기서 보는바와 같이 온달 어머니의 대사속에서는 온갖 수모와 천대속에서 굳어진 생활의 체험으로 하여 바랄수도 실현될수도 없는 온달과 공주의 혼인문제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력력히 풍기고있다. 사실 자기 자식이 못나서 귀인의 짝이 될수 없

고 가난하여 귀인이 있을수 없다고 하는 그의 말속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천대하고 멸시하는 봉건사회에 대한 인민의 원한이 직접적으로 표현되고있으며 동시에 그러한 감정태도를 통하여 봉건통치계급들과 자리를 함께 할수 없는 인민들의 단호한 계급적립장이 반영되어있다. 그런가 하면 한말의 곡식도 찢어서 함께 먹을수 있고 한자의 배도 기워서 같이 입을수 있다는 공주의 말속에는 참되고 진정한 삶을 갈망하는 그의 깨끗하고 결백하며 아름다운 지향세계가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이것은 이 시기 소설들이 대사속에서도 일정하게 심리묘사를 추구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구려에서는 일찍부터 소설창작을 지향하여왔으며 그 과정에 비교적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소설작품을 내놓음으로써 우리 나라 소설발전의 단계를 열어놓았다.

리 수 향

조선문학 주체104(2015)년 제6호 (루계 제812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 체 104(2015)년 6월 1일

발 행 주 체 104(2015)년 6월 5일

7-56144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5

D P R Korea

ISSN 1727-9437